

겨울간

1993.7.8

# 중국을 주께로

통권 23호

중국어문선교회

##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

박 성 주

우리는 인내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좋은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몇 해 전 강화에 가서 배를 탈 일이 있었다. 사람들은 배가 오기 전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사람이 꽤나 많아서 다 탈 수 있을까 싶었다. 배가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그동안 기껏 잘 서 있던 줄을 무시하고 삼시간에 배 앞으로 몰려 갔다. 그리고는 꾸역꾸역 선실 이층으로 밀려 들어갔다. 맞은편 섬까지 10여 분 항해하게 되는 코스였는데 한 3, 4분 남겨 놓고 이번엔 승객들이 선실 아래층으로 몰려 내려왔다. 배가 닿으면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육지에 오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서두르는 마음에는 먹이를 찾아 끼룩대는 갈매기떼를 감상할 여유도, 북한땅을 쓰다듬으며 흘러 내려온 바닷물에서 민족의 비애를 느껴볼 시간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 작은 예이지만 우리는 매사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참을성 없이 허둥지둥 쫓기듯 살고난 뒤에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레보아야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서두르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일까?

인생은 여차피 장거리 장애물 경주이다.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때로 편법을 써서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고, 장애물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며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라면 장애물 하나 하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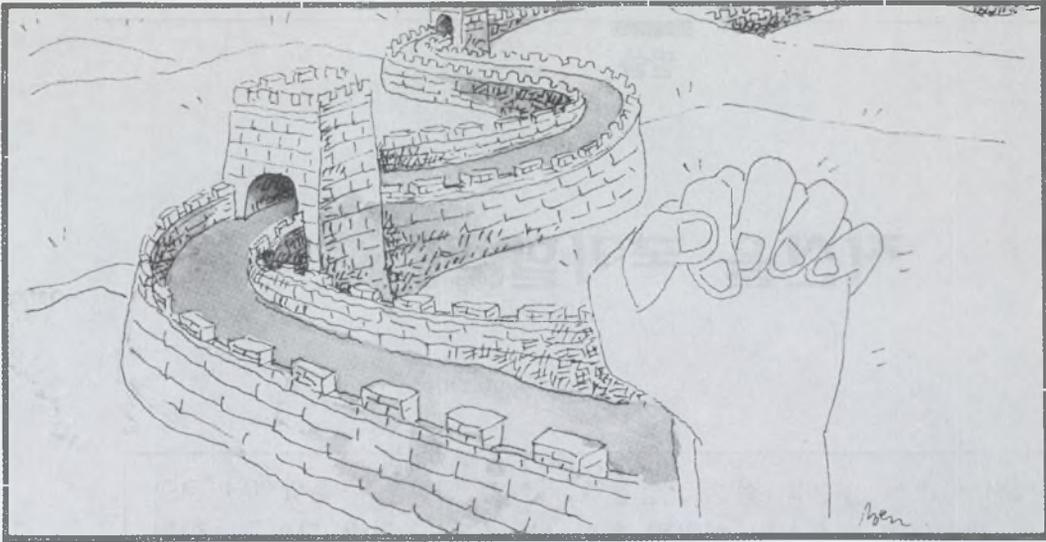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인내란 소극적으로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는 바를 타협함 없이 견지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흔들림 없이 인내할 수만 있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계획에 의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당장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열심은 뭘지도 모르고 남들을 따라 덩달아 뛰면서 초조하게 세상사람들의 경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인 것이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이러한 자는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부르시면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다”하며 나설 수가 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다를지라도,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은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1)



장승원 그림

격월간

**중국을 주기로**

1993. 7. 8 통권 23호

**목차**

**말씀**

자신을 포기할 때 • 송국선 목사/2

**화교를 생각한다.**

한국화교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6

타향과 고향/8

화교를 통한 世界宣敎 • 신장섭 목사/14

**탐방**

신반포교회를 찾아서/17

**세미나 • 연구**

中國思想의 理解 • 曹京鉉 박사/21

최근 중국의 교육문제 및 새로운 추세 • 감성광 선교사/28

흑룡강성 종교활동장소관리 조치/30

종교 자유와 규제의 이원화/39

**인물 • 간증**

大馬站 가정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 懷雅/42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교육가 • 陳崇桂/50

크리스천이 되기까지 • 무명/57

**신교상식**

민속풍물/宛平縣 河北村 探訪記/63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 중국어/결인과 예수님/68

중국선교 참고도서/70

중국어로 찬양을/72

중국여행 상식/73

**소식 • 기도**

중국선교훈련원 소식/75

사랑의 집 소식/79

최근중국동향/80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86

중국선교훈련원 모집/88

알림/90



표지 설명: 신강 키스키르  
시장 길목에서  
만난 중국 소수  
민족중의 하나인  
위그르족 어린이들

## 자신을 포기할 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눅22:39-43)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어문선교훈련원 제1회 수료식 예배 시간에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모든 간사님들과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정신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가 없는 기독교의 신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납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포기가 없이는 성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자기 포기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도 자기 포기가 없이는 가장 으뜸되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의 성품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

송국선 목사  
(밀양 명례교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 곧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훌륭한 선고사는  
 그리고 아름다운 선고사역은 자기를 포기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보다 더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적인 시험과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적인 많은 것들로 유혹과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믿음이 있다는, 교회의 직분이 있다는, 신앙생활을 오래했다는 사람들도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즈음 교회 안에까지도 사탄이 들어와서 어진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며 자신을 주님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세상의 유혹을 받아 우리의 신앙, 믿음을 이 세상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자신의 목

숨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의 주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신앙고백을 하지마는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은 자기를 포기 하기 보다는 십자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며 아름다운 선택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한번 뿐인 우리의 인생, 좀 더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중에서 자신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좀 더 세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좀 더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아픔을 포기하지 않았습다. 그는 십자가를 위해 세상의 것들과 자신의 젊은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자유도 있고 또한 세상을 멀리하고 십자가에 나아갈 자유도 있습니

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해도 그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맡기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포기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자랑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자기 포기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포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 오시며 천사가 수종들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선교 동역자 여러분! 선교는 자기 포기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포기에는 몇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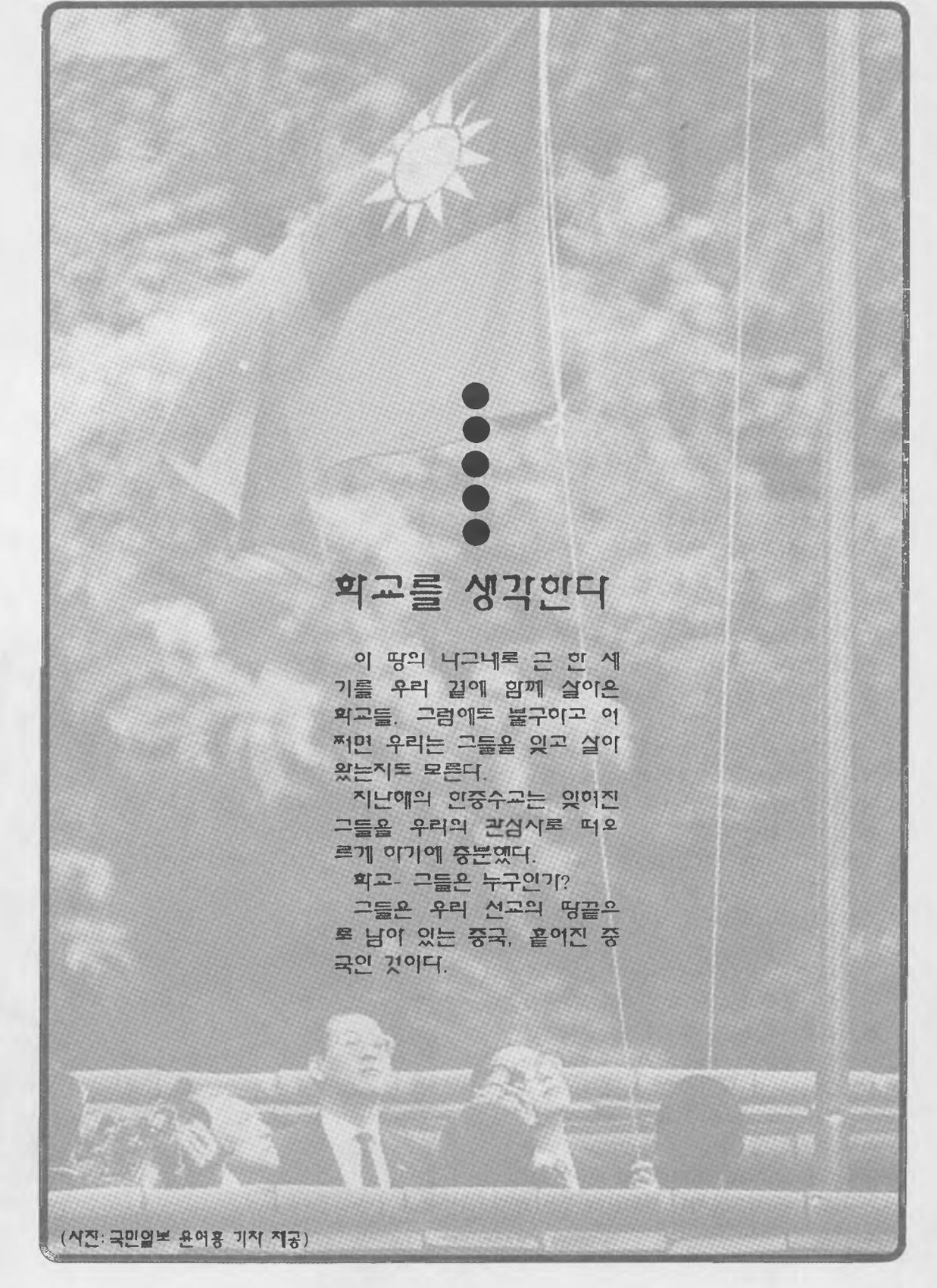
둘째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포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했으며, 백부장이 자기의 위치를 포기할 때에 그 가정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 곧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훌륭한 선교사는 그리고 아름다운 선교 사역은 자기를 포기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어문선교회가 또한 중국선교훈련원이 다 하나같이 <자신을 포기>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중국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 글은 5월 8일 제1기 중국선교훈련원 졸업예배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다.



## 확고를 생각한다

이 땅의 너그레로 근 한 세기를 우리 곁에 함께 살아온 확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면 우리는 그들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지난해의 인증수고는 잊어진 그들을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이기에 충분했다.

확고-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 선교의 땅끝으로 남아 있는 중국, 흩어진 중국인 것이다.

## 한국화교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최근 몇년 간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열매와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국선교에 있어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선교 방법론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서, 화교와의 협력선교는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주장되어 왔지만, 대개 그 필요성의 인정이라는 차원에서만 머물렀을 뿐, 그 구체적인 협력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92년 12월 14일에 중국어문선교회 주체로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계기로 계속해서 중국관계 선교기관들이 돌아가면서 중국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특별히 두번째 기도모임은 93년 3월 31일 “한국 화교를 위한 기도회”(장소: 한성교회)로 모였는데 정말 뜻 깊은 모임이 아닐 수 없다.

여러 중국선교 관련단체인, 중국복음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 중국교포선교회, 갈릴리세계선교회, 호프, 중국연변조선족기술대학(서울)의 실무진과 한성교회(漢城教會)의 성도와 선교회의 소수 회원들이 모여 화교와 중국선교를 위해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협력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점 이외에도 한국교회와 화교교회가 함께 중국선교

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모임은 특히 국내 중국선교 전문 연구단체의 호시랄 수 있는 중국복음선교회가 주최하였는데, 이 선교회는 화교교회와 한국인이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선교세미나 개최, “중국과 교회”라는 선교지 발간



화교인구의 약 2%밖에 되지 않는  
 화교 크리스천이 침체된 화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다. 더욱이 이 변화된 화교가 한국인의 중국선교에  
 함께 참여하여 사역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어떠하겠느냐는  
 반문으로 한국교회의 화교교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등을 꾸준히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기도회의 1부 예배시간에는 대만에서 오신 沈正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2부에는 화교 3세인 중국복음선교회 해외선교국장인 林鎮平 집사가 『한국 화교 상황』에 대해 발표했는데, 화교들의 신분, 국적문제, 교육문제, 화교 단합문제, 교회문제에 대해 소개하였

다.

특히 화교이민 초기 4만 명 정도로 다달았던 화교인구가 최근 18,000명으로 점점 떨어지는 데는, 한국의 화교정책상 화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아 3년마다 거주 신청을 갱신해야 하는 신분상의 불안을 그 최대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화교 대다수의 국적이 대만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이 한 중수교 이후에 여러가지 면에 있어 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

임 국장은 또 화교인구의 약 2%밖에 되지 않는 화교 크리스천이 침체된 화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다. 더욱이 이 변화된 화교가 한국인의 중국선교에 함께 참여하여 사역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어떠하겠느냐는 반문으로 한국교회의 화교교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계속해서 이 기도모임은 갈릴리세계선교회(5월21일), 연변조선족기술대학(7월19일)에서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호프, 중국교포선교회 등 등 장소를 바꾸어가며 계속될 예정이다.

중국선교와 특히 화교와의 협력 선교의 길을 희망하는 많은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참여가 보다 많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사진: 국민일보 윤여용 기자 제공)

## 타향곡 고향

편집자 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하였다. 대만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 아울러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과도 감정대립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화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亞洲週刊」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작년 8월, 중국정부는 한국과 국교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대만과 동북아에 있어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대만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사십여 년 동안의 반공국가와 단교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북한은 「꿀떡은 병어리」같이 유구무언이었다. 한편 일본은 경각심을 느끼며 자신들이 동북아 무대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한바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지의 여론은 2만여 명의 한국 화교들의 감정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 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변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마 더욱 직접적이고,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정치적인 새로운 결단에 직면한 것 외에도, 그들은 미래를 생각해야만 하였다. 정치 및 경제상에 있어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곤경인가?

서울시 중심의 화교 국민학교 학생들은 담벼락 사이에 있는 중화민국 대사

관에 청천백일의 깃발이 하강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금년 2월에 새 이웃은 문 입구에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의 문패와 오성깃발을 걸어 올렸다. 한국은 이전에는 반공국가로서 한국거주 화교 중에 비록 중국대륙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대만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국과 대만이 단교 후에 현지 화교들은 자신들이 정치의 가운데 끼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거의 반공입장이 시세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현재의 한국정부의 외교 입장에 따라야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 거의 매일 중국대륙의 상업 방문단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고, 현지 신문에도 끊임없이 한국 무역상들이 중국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핵문제 있어서도 서울은 북경 당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화교들이 소지하고 있는 중화민국 여권에 국한되고 있는 느낌이다.

표면상으로, 현지 화교들의 생활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작년 한국이 북경과 국교 수립을 결정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 한국 법무부의 성명을 받아들여 쌍방의 국교수립이 결코 대만 여권을 소지한 인사의 한국에서의 지위에 대해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반

면에 반년이 지난 현재 친대만의 화교 중학교는 예전과 같이 수업을 받고 있어 단교 후에도 커다란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교사회는 한국이 대만을 배신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 화교협회의 비서인 杜書溥는 <亞洲週刊>에서 “감정상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말하였다. 또 언론에 종사하는 한 화교는 “일본 통치시기에 한국의 망명정부는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정부의 현재 행동은 도의상 옳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國旗騷動」이 곧 서울과 대만관계의 변화가 친대만 화교들의 직접적인 충격이 되고 있다. 금년 초에 북경 주한대사관 개축공사가 완성될 즈음에 한국당국은 건너편 화교 국민학교와 화교상회에 대해서 청천백일의 국기계양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 화교들은 이 지시에 대해 극도로 불만을 터트렸고, 강한 항의를 제기하였지만 결국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명의 여학생이 청천백일의 깃발을 올린 후에 사십오분이 안되어서 하강되었고, 이로부터 다시는 계양하지 못하였다. 화교 중학교 교장인 孫樹義는 “한국정부는 일찍이 대만과 원래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재의 행동은 학생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화교들이 유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 화교협회 부회장이었던 鞠柏嶺은 “한중수교가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과거 대만정부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현재 중국대사관도 우리를 위해 아무 하는 일이 없으

니, 어떤 차이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찍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현재 대북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 연구센터 연구원인 朱松柏은 한국 화교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심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마당에 현지 화교사회는 점차 두 파로 나뉘어지고 있다. 주송백은 <아주주간>에서 “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사십 년 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충실한 지지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의 한국 화교들은 대만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중년의 남자는 <아주주간>에서 말하기를 한국의 화교들이 때때로 대만에 가기 위해 입국신청을 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며 여러 차례 출입국 비자를 획득할 방법이 없어, 지위가 외국인과 차이가 없다. 그는 또한 “산둥이야말로 우리의 고향이다. 그렇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화교들의 백분지 구심은 중국의 산둥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최초의 화교들은 생계를 위해 일찍이 청나라 때에 조선반도로 이주하였다. 그 사이에 일본침략, 제2차세계대전, 6.25 동란을 거치게 되었고,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 동란 전의 사만여 명이 가장 번성할 때였다. 지금은 2만여 명으로 감소되어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대부분 화교가정은 조선반도에서 삼대 이상을 거주했으며, 그들은 대부분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들은 대부분 현지 대만학제에 따른 화교 중학교에 입학하고, 다시

대만으로 가서 대학에 진학한다.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화교들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관계없이 영구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외국인출입관리법>에 의하면, 그들은 「居住者」로 구분이 되며, 매 삼년마다 한 차례 거주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화교들은 제한을 받게 된다.

가령 당국은 엄격한 토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은 마음대로 사업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화교들이 특별한 허락을 얻어 상점을 차릴 수 있지만, 매 호당 한 군데 주택과 한 점포만을 매입 설치할 수 있고, 면적도 규정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 의 무부의 한 관리는 <아주주간>에서 “중국인들이 결코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된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인사든지간에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조문은 결국 화교들의 경제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공장을 개설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된 바에는, 한국 화교들은 단지 식당, 잡화점을 운영하거나, 한의원을 개설하는 등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서울 화교사회의 국백송은 <아주주간>에서 “한국인은 보통 중국인을 짜장면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화교들이 법률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짜장면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칠십년대에 박정희 정권 시기에 한국정부는 중국집에서 밥종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고, 다만 밀가루 음식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국집에 대한 각

종의 제약을 완화하여, 화교들이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은 漢醫와 漢藥을 매우 신뢰하고 있고, 화교들이 이 방면에 이미 훌륭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의 각 대학의 의예과는 외국 학생에 대해 여전히 학칙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화교들이 어찌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가? 杜書溥는 말하기를 “귀화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신청인은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두 명의 고급관리나 혹은 국회의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鞠柏嶺은 또한 말하기를 “한국은 혈연법을 채용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출생한 아이가 설령 모친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친이 외국인이면 여전히 부친의 국적을 따르게 된다.”고 했다. 최근들어 점차로 화교들이 한국으로 귀화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모두 2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들은 모두 비교적 젊고, 대부분 한국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사업상 발전의 기회가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혹은 정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장년들도 대학에 진학할 때에 법률, 의학 등 진로가 좋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화교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드물었으나 최근에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杜書溥는 말하기를 새로운 세대의 화교들과 한국인들간에 접촉이 많아지면서, 대학이나 직장에서 공통의 사교권을 형성하여 통혼도 더이상 드문 사례가 아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보통 한국 국적의 처자들이 남편을 따라서 국적을 바꾸고 있다.

한국의 화교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성립된 조직과 단체는 적지가 않다. 각 구마다 분포된 화교협회가 있다. 또 직



화교들이  
“정의는  
죽지 않는다”  
등의 피켓을  
들고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국민일보  
윤여용 기자 제공)

업상의 조직이 있는데, 가령 교사친목회, 한의사학회, 요식업협회 등이 있고, 종교와 본관으로 구분한 단체 등도 있다. 한국 화교들의 중국어 교육 실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총 2만여 명의 화교들 중에 중학교 4개소, 국민학교 31개소와 유치원 1개소 등이 있다. 화교중학, 소학 교사들의 대부분은 대만에서 학업을 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다. 한국정부는 화교학교와 화교들이 중국어 교육을 보급하는 데 있어 어떠한 간섭이나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교 졸업생이 대만에 가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현재 이미 5퍼센트에 밀리고 있다. 孫樹義는 말하기를 “이는 적지않은 화교들이 대만에서 진학하거나 혹은 직장을 구할 때에, 멸시를 받는 느낌이 있다. 그들은 대만어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화교들은 이미 한국의 생활에 습관이 되어, 이 곳에 머물면서 발전하기를 원하여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화교중학은 모두 고등학교를 한국 대학 반으로 확충하고 한국어 과목을 중학교에서 매주 세 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

고, 아울러 현지 역사와 지리 등의 과정을 보강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입학 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지만 화교들은 모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즉 외국인이라는 특별 배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직 많은 젊은이들이 대만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25세의 陳子玲은 대만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후에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아주주간>에서 말하기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또한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돈을 많이 모은 후에 다시 대만으로 가려고 한다.” 그녀는 대만을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고 편리하여, 발전의 기회가 서울보다 많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화교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진학하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한.대만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1대의 화교들은 대부분 가난으로 인하여 한국에 건너왔는데, 당시에는 주로 노동을 하였고, 사회의 지위도 낮아서 현지인들의 멸시를 받았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박재우 교수는 말하기를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온 제1대의 이민자들을 형편없이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낮았고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박재우씨는, 제2대 화교들은 대만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하였는데, 주로 밖으로 뺀어 나가려고 하였고, 단지 소수만이 한국의 사회에 융합되었다. 현재의 제3대에 이르러, 정황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장인 孫樹義는 말하기를 “젊은 화교들이 모두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데, 만약 중국어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분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20여 세의 화교 李淑明은 말하기를 “그녀의 친구 중에 한국인과 중국인의 숫자가 균등하며, 평소에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인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구사할 뿐이다. 그녀의 두 동생은 한국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우가 중국인 사회에서 일하는 것 보다 나은 편이고, 한국인 여자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집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사진 국민일보 윤여용 기자 찍음)

중국인이 몇대에 걸친 노력을 통하여, 현지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다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잃고 있을 뿐이다. 서울 화교협회의 杜書溥는 말하기를 “한국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변호사 등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몇명의 화교들이 대학교수가 되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은 한국에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중국인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개별 중국인들이 출판이나 잡지를 발행하려면 한국인 명의로 등기하고, 한국인이 발행인을 맡아야 비로소 당국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

70년대 이래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정치 형세가 급변하여, 한국의 중국인도 도움을 받게 되었다. 북경과 워싱턴이 국교를 수립한 후에, 많은 화교들이 중국 산둥성의 친척들과 만나고,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을 하고 있다. 1988년, 한국과 중국대륙이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화교들은 황해를 건너기만 하면 산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대륙과 직접 접촉을 하게 된 이후로, 화교들은 실제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교적 연로한 제2대는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을 만난 후에 그곳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다고 말한다. 한편 젊은 제3대들은 중국대륙이 대만이나 한국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2대의 한국 화교들도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진전이 있어 최후에는 중국통일이 이룩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孫樹義는 말하기를 “현재 모두 대륙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두 나라가 빨리 통일되기를 희망한다.”

북경과 서울이 작년에 국교를 수립한 사건은 적지않은 중국인에게 우월감이 생겨나게 하였다. 한국 화교들의 지위가 이전에 낮았던 원인의 하나가 조선 반도가 원래 중국 청나라 정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 후에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중국인들의 처지에 영향을 주게 된 사실에 있다. 현재 북경이 국제사회에 있어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여, 한국인들이 중국대륙을 보는 시각도 현저하게 바뀌어서, 재한 화교들도 자연이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이다. 鞠柏嶺은 말하기를 “한국은 한국화교의 「養父」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해 자연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 중국대륙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화교들의 한국에서의 지위와 대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중국교 수립이 한국 화교들을 위하여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한국인 무역상인 許宗億은 <아주주간>에서 “많은 한국회사들이 중국대륙에 특히 산동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화교들 소개인으로 삼아 쌍방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손수익의는 또한 한중간의 무역이 대폭 증가한 후에 서울의 화교중학교의 많은 졸업생들이 한국회사를 위해서 통역을 하면서 그들이 대륙에서 투자를 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화교 자신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많지 않고, 규모도 적어서 주로 식품이나 의류업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대부분 식당이나 잡화점을 경영하여 공장을 세우는 경험이 결여되어 있어 대규모의 투자를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중국대륙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개혁개방의 국면이 안정되고 나서야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대륙의 대사관이 금년 2월에 서울에 개관할 때에, 약간의 화교대표들을 초청하였다. 대사관도 화교의 사무를 관장하는 전문 요원이 있다. 그러나 현지 화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북경의 관원들의 화교와의 접촉이 여전히 많지 않고 저조한 편이다. 사실, 북경이 한국 화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할지라도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반공이라는 환경 아래에서 수십 년을 생활한 관계로, 한국 화교들이 일순간에 입장을 변화시키기란 어려울 것이다. 몇명의 화교들이 중국대륙과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지만, 화교 사회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 대륙과 장사하기를 희망하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단순한 이권에서만 출발하고 있다. 더욱 극단적인 견해는 “대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대만 여권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야 어떻든지간에 한국의 화교들 특히 나이 많은 화교들은 고향과 중국문화에 대해 매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어 그들과 모국의 왕래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그들이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쉽게 되었지만, 문제는 사상의식과 정치 감정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손수익의는 “현재 화교들은 매우 혼돈에 빠져 있는데, 고향 산동성이 지적에 바라보이지만, 여전히 정치 요소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특별히 대륙의 개방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亞洲週刊』 93년 5월 16일 중에서)

번역/안거안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협력간사)

## 화교를 통한 世界宣敎

신장섭 목사  
(평산교회)

본인이 세계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으로 어떤 학술적인 바탕 위에서 연구한 것이 아님을 서두에 밝히면서 읽는 독자들에게 다소나마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 1. 화교가 주는 어릴적 느낌

화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다.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 고향을 등지고 전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의 슬픔과 고난이 떠오른다. 우리 민족도 디아스포라(어원적 의미)되어 중국 땅과 러시아 땅에서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 2. 화교들의 지위

전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 화교들을 만날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도시도시마다 화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 저들은 화인이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경제의 우선권을 쥐고 있다. 그들 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역사 의식이 뚜렷한 민족이 화인들이다. 특수하게 자기들 언어를 고수하면서 화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도시도시마다 화인들이 상권을 다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역사 속에서 우뚝

서 있는 자세로 화인들은 보르네오 섬에서도 오히려 주민들을 거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버마에서도, 말레이아에서도 저들의 문화와 언어를 고수하면서 자기 민족의 식이 뚜렷한, 독특한 화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화인들은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 민족 속에서 상류층에 속해 있음을 본다.

### 3. 화교와 유대의 디아스포라와의 유사 관계

본인은 화인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으로 되돌아가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회당을 생각해 본다. 로마의 국도를 따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저들의 회당을 짓고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 종교로 전략해 버렸다. 훗날 사도바울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은 찾으셨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회당을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셨다. 한편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찾으시고 그 회당을 중심해서 세계 선교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주님의 섬세한 섭리 앞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화인들의 교회는 동남아시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뚝 서 있다. 심지어 모슬렘 사원이 우뚝 서 있는 그 옆에 십자가가 드높이 세워져 있음을 본다. 감히 우리로서는(한국선교팀)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힘든데, 이미 그곳에 디아스포라된 화인들은 저들 속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 옛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 사도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동남아시아 속에 속해 있는 모슬렘권 화인들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회당과 유사관계를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선교의 또 다른 길을 발견해 볼 수 있었다.

#### 4. 화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본인은 세계선교를 하다가 특별히 아시아권 선교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아직까지 저 방대한 중국 땅에 선교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날 세계지도를 보면서 중국 변방에 전아시아권이 연결되었음을 발견하면서 본인은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다.

중국 남방 국경선을 타고 신학을 공부하러 나오는 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손목을 붙잡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했던지.

1) 화교를 통한 중국 대륙 선교를 중국 변방에 있는 신학교(버마, 태국)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발견했다(왕래가 가능함). 선교사가 중국대륙에 질서없이 선교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오히려 제동을 걸어왔다. 공산권일수록 선교는 직선적 선교가 아니라 우회권 선교가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다. 중국 국경선을 넘어 화교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중국 대륙 선교에 진짜 선교사임을 느껴본다.

실패를 들어, 러시아에서 펼쳐지는 대

형집회는 오히려 러시아 선교에 악영향을 현재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러시아 정교회들에게 복음 선교에 썩기를 박을 수 있는 구실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선교 역시 자국교포들을 통한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른다.

2) 화교를 통한 모슬렘 선교는 그리 쉽지 않다.

신분을 감추어야 되고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 출국당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경우는 외국인 선교사를 출국시키고 있다. 회교도 신학생을 일년에 수백 명씩 메카에 보내서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런 곳에서 외국 선교사는 공격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화교인 어느 목사는 원주민 지역에 37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인도네시아 국적이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저들은 언어가 능통하고, 이미 모슬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화교를 통한 모슬렘 선교는 가장 효과적이다.

말레시아에 화교가 세운 농장이 있는데 신학교 간판이 아니고, 농장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말레시아 원주민(모슬렘) 신학생들이 암암리에 신학 교육을 받고 있다.

#### 3) 화교를 통한 세계선교

화교들은 대단한 경제권을 쥐고 있다. 저들의 교회가 선교에 눈이 떠지면 엄청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세계 화인 기독교인들 집회가 일년마다 모이는데 5,000명 이상 모인다(싱가폴, 자카르타 등). 그 경비를 몇 사람의 화교 기업가들이 충당한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화인들이 선교에 불타는 믿음만 가진다면 동남아 선교는 10년 내에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는 모습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가진 선교의 열정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4) 한국교회와 화인들의 교회와의 긴

중국이 복음화되면  
 결국 세계는 복음화됨을 믿는다.  
 왜냐 하면 전세계 어느 곳이고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유대 백성의 디아스포라라는  
 슬픈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전세계에 디아스포라된 화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의  
 한 장을 베풀고 계신다.

밀한 유대 강화

① 한국에 속에 있는 화교를 통한 세계선교

본인은 카리만한(보르네오 섬)에 사마린다 교회(화인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통역은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선교사였다. 완벽한 통역이기에 저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폭탄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 후에 그 교회가 원주민 선교에 협조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에 있는 화교들(한국어에 능통한 화인들)이 한국교회의 선교에 불타는 그 열정과 교회 학습을 배워서 저들이 세계 속에 있는 화인 교회들에게 선교의 눈을 뜨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② 한국교회가 저들에게 도전을 주자.

자카르타 어느 화인 교회(1,000명)는 본인과 선교집회를 약속했다. 그 교회 주임목사는 선교에 눈이 뜨인 목사였다. 한국교회가 직접 화인교회들에게 선교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저들에 도전을 주면 반드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③ 중국어문선교회와 세계선교  
 중국어문선교회는 막중한 선교적 사명

이 있다. 언어가 뚫려야 국경선을 넘어 갈 수 있다. 중국어에 실력있는 선교사들을 동남아 땅으로 파송해서 화인교회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어야 한다. 실례로 우리 교회(평산교회)에서 싱가포르에 중국어를 전공하여 중국어가 유창한 한국 선교사가 싱가포르 화인들에게 선교적 도전과 비전을 심어 주는 데 성공하였다. 많은 화인교회들이 도전받아서 선교에 박차를 가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중국이 복음화되면 결국 세계는 복음화됨을 믿는다. 왜냐 하면 전세계 어느 곳이고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유대 백성의 디아스포라라는 슬픈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전세계에 디아스포라된 화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의 한 장을 베풀고 계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어서 그 문화 역사의 장벽을 넘어서 마지막 남은 지구촌 땅끝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세계 속에 디아스포라된 화인교회가 일어나면, 우리 선교사들의 수십 배의 선교적 사명을 그 땅에서 감당할 수 있기에, 화교를 통한 세계선교는 선교의 숙제로서 끝없이 연구 검토되어야 하며 그들을 깨우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 신반포교회를 찾아서



회선교 저널, 한나선교회, 태국 목회자훈련원 등의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 외에도 총 약 90개에 달하는 농어촌 교회를 교회 지역적으로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여 기도와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신반포교회가 어떠하리라는 대략적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

외관상으로는 신반포교회는 그렇게 반들거리지도 웅장하지도 않는 건물이었다. 더욱이 당회장실은 대충 여느 중소교회의 사무실과 다를 바 없는 소탈함과 조용한 활기가 넘쳐 있었다. 그저 걸만 봐서는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하는 느낌이 들기조차 하였다. 방문했을 때의 날씨가 비를 뿌리고 있어 그랬는진 몰라도 대충 이런 것들이 신반포교회의 첫인상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들의 단순한 느낌은 그때 막 중동선교사 한 분과 대화를 마무리지며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나오는 홍문수 목사와 선교위원장인 김왕곤 장로를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내내 감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꼭 40대가 될까말까 하게 보이는 홍 목사가 서울대 출신이라

“예! 당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신반포교회의 선교 회보지 『땅끝종인』에 실린 강한 도전의 문구처럼 요즈음 우리에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강한 인상으로 다가오는 교회가 바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교회이다.

싱가폴, 홍콩,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헝가리, 러시아, 영국, 볼리비아,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기네비싸우,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걸쳐 단독 혹은 협력으로 3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 지원하고, 중국어문선교회를 비롯한 대륙선교회, 총회선교훈련원, 총신대선교연구원, 총

든지, 말 끝에 알게 된 사실이  
지만 선교위원장인 김 장로가  
대학교수라는 사실 때문이 결  
코 아니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서 한 평범한 교회를 이렇게까  
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  
구나!’ 하는 가슴 설레는 새로  
운 발견 때문이었다.

세운 지 40년에 가까운 역  
사, 고령의 장로님들, 그야말  
로 역사와 전통의 테두리에 안  
주했던 한 교회가 어떤 극적  
계기가 있었길래 이렇듯 선교  
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문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신반포교회  
성도들의 성령님께 대한 순종  
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92년, 이 교회가 선임 목  
사의 사정으로 자리가 비게 되  
었을 때, 외부청빙 노력 등 우  
여곡절 끝에 그때까지 이 교회

의 부목사로 3년간 시무하던  
젊은 홍 목사를 담임 목사로  
과감히 세운 일은 실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김 장로의 여러 설명  
을 종합해 보면, 이 교회의 혁  
신은 이 일을 시발로 이루어졌  
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  
었다. 각부 책임목회라는 목회  
방침의 일신과 선교위원회장  
김 장로와의 협력사역은 아마  
도 신반포교회를 세계 선교라  
는 목표점으로 이끌어 가게 한  
주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의  
탈바꿈이 바로 신반포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비  
결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까지 850명 선  
에 머물렀던 출석교인의 수가,  
300여 명에 이르는 청년대학부  
를 포함해 1500명으로 늘어났  
다는 숫적 배가는 그 한 가지  
변화에 불과하다는 느낌은 결  
코 편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 하면 선교의 속 내용이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우리의 질문은 자연  
선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  
다.

“어떻게 선교하게 되었느  
냐?” 는 질문에 홍 목사는 거  
침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 이라고 잘라 말  
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신반포  
교회가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구체적으  
로 주도적 입장에서 잡아갔다  
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교권,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중국 등지의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들을 아주 세밀하신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 첫번째로 꼽았다. 그와 동시에 성도들 특히,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작년 2월부터 시작한 매주 토요일의 선교기도모임과 작년 여름의 중.고.대.청년의 연합수련회였다고 한다. 특히, 그때의 수련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교"라는 한 주제로 집중하였고, 하나님께서 잠시 귀국중이던 블리비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 집회를 마무리짓게 해 주심으로써 신반포교회의 선교비전에 불을 지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선교 이전에 선교기도회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선교위원장인 김 장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우선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문제로 교회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을때, 김 장로가 선교위원장에 취임하고 나니 스스로 선교에 대해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본인의 말을 빌리면 "자신은 선교에 관심도 비전도 없었고, 고작 돈 부쳐 주는 게 선교인가보다"라고 생각했던 처지였다고 한다.

또, 교회 재정도 최소한의 선교기금에 해당하는 4,000만원의 선교헌금도 기대할 수 없



었던 한심한 상태였다. 여기서 김 장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92년 2월, 12명 정도의 회원과 함께, 매주 토요일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과 연구모임을 시작하였다. 3월 중순에는 이미 주님의 응답을 받아 1억이 넘는 선교헌금이 들어왔고 선교는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또 쓸 일이 걱정이었던 것은, 그래서 그들은 선교를 위한 좋은 일꾼을 만나게 해 주실 것과 그 적절한 시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달에 1-2분씩 선교사를 보내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간중하게 하시는 일 등을 통해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선교의 비전을 심어 줄 수 있게 역사하셨다.

또한, 전교회적으로는 새벽기도회, 주일 1부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등 각종 모임을 활용해 선교사와 교회선교정책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가

병행됨으로써 신반포교회는 가히 “기도로 선교한다”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인상깊은 것은 『땅끝종인』이라는 교회 선교회보의 발간.

이 회보는 단순한 회지가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들의 기도와 재정의 후원을 하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맞닿는” 협력선교를 유도하기 위해, 선교사의 형식적인 보고를 강요하지 않는 대신, 이 회지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고 기도제목을 나누게 한 것을 그 특징으로 들었다. 적어도 이 회보를 읽고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선교사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친근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선교지의 순방을 통해 선교사를 격려하고 선교열정을 다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 목사는 조용하면서도 의욕에 넘치는 어조로, 이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선교열기를 유지시키고 선교헌신자의 발굴과 훈련을 위해 선교축제와 단기선교학교를 분기마다 개설하고 선교만을 위한 특별 기도팀을 구성할 의사를 비쳤다. 실지로 작년 5월의 단기선교학교는 청년대학생, 선교헌신자나 선교관심자나 각교회 선교위원장이나 목회자를 위한 수준 높은 특강과 선교의 구체적 과정 소개 등으로 짜여졌는데, 5일간 매일 100명에서 120명에 이

르는 수강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금 신반포교회는 구체적으로 100명의 선교사, 500명의 물질후원자, 1,000명의 기도와 후원자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인식과 외국노동자의 제자훈련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선교센터 건립을 놓고 기도중이라 했다. 신반포교회는 열려 있는 교회였다.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한족 및 조선족 노동자들을 위해 무언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중국어문선교회와 같은 전문선교단체에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 선교는 개교회만도 아니고 선교단체만도 아닌 협력선교의 길을 모색하고 싶다는 열린 태도는 결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러했기에 우리는 너무도 부끄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그것은 교회의 이런 적극적인 요구에 우리는 얼마큼 준비되었을까 하는 자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신반포교회와 같은 한국 교회가 있는 한,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중국어문선교회와 같은 선교기관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한, 주님께서서는 저 중국, 14억의 영혼을 반드시 그분의 품으로 돌리시리라는 믿음으로 더이상 우리의 연약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장시간에 걸친 대담을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비는 건히고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글: 한영혜)

## 中國思想의 理解

曹京鉉 박사  
(동양 철학)

### 1) 中國思想의 두 줄기로서의 儒家와 老莊思想

中國人은 그들의 哲學的 사유의 기반을 本體論的인 形而上學에 기초한 순수사변이나 理論知에 두기보다는, 人間이 살아가는 現世間에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둔 價値中心的이고 人間中心的인 倫理文化를 일찍이 꽃피웠다. 이러한 中國의 人文主義 精神에 입각한 文化전통은 周初에 형성되어, 춘추말에서 전국말까지의 諸子百家의 백가쟁명을 거쳐 이론의 심화를 거친 후, 漢以後 人文精神에 입각한 儒家思想이 中國文化의 正統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淸末까지 유지되었다. 물론 그 중간에 魏晉玄學이나 隋唐佛學이 일세를 풍미한 바도 있으나 그것이 正統의 위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中國文化의 심화에 기여하여 그후에 방대한 신유학의 이론체계를 남게 하였다.

따라서 中國文化는 희랍의 形而上學의 순수사변을 즐기는 전통과는 달리, 경험적이고 현세적인 功利的 倫理觀을 사유의 기본특징으로 하는 人文的 倫理文化를 주축으로 하여 발달하여 왔다. 이러한 人文精神에 입각한, 儒家를 대표로 하는 倫理文化는 나름대로의 現世中心的이고 價値中心的인 장점을 지닌 반면, 인류중심의 사고와 文化의 왜곡에서 오는 치명적 약

점을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儒家文化의 약점은 太平世가 아닌 난세나 혼란기에는 그 장점보다는 약점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기능의 작용을 하였다. 즉, 名分만이 이용될 뿐 모든 정치와 현실을 권력가나 득세가의 야심을 충족시키는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老莊思想은 이러한 儒家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인간사회를 본래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無爲 自然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老莊思想을 衰世의 사상으로만 보는 것은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老莊思想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대체로 오해되어 왔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상의 양대산맥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중국사상이 선진의 諸子學에서 한대의 經學으로, 그리고 위진의 玄學에서 수당의 佛學으로 발전해 가고, 그후에 송명의 理學과 청대의 實學으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도 사상의 핵심은 儒家와 老莊을 주류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老子和 동시대를 살았던 孔子는 춘추말의 사회변동을 老子和 같은 否定精神이 아닌 周禮의 회복을 통해 治世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孔子의 입장을 宋榮培 教授는 『中國社會思想史』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孔子는 周禮, 혹은 周의 사회질서를 강조하고 깨우치는 것을 그의 과제로 생각하였다. 동시에 그는 天命이 이 과제를 그에게 부여했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 …… 주 나라 사회질서가 뿌리에서부터 해체되기 시작했던 사회에서, 孔子는 이상적인 사회질서로서의 예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토대로 아직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습귀족인 君子와 사회적 변화를 통해 더욱 영향력을 획득한 지식층에게 유신된 사회를 세울 것을 말하고 동시에 이미 해체중에 있는 禮 즉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이들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위의 인용귀절에 나타난 孔子의 입장은, 老子의 문명비판적 否定精神과는 판이한 대조를 보여준다. 춘추시대의 宗法的 封建制의 와해현상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로서 등장하는 變法과 領土國家의 출현과 씨족공동체의 해체 및 신분질서의 동요는, 牛耕의 발명과 철기의 사용이 초래한 사회경제 기반의 변화가 표면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서, 孔子는 그것을 周禮의 붕괴과정으로 認識하였고, 老子는 그것을 人爲가 초래한 문명의 소산으로 보았다. 두 사람이 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나, 老子나 孔子나 그들이 결국 원하고 꿈꾸던 바는 天下의 안정과 평화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治世의 방법과 그를 실천하는 이념 및 이에 따를 哲學的 사유 체계는 상이한 양상을 띠고, 中國文化의 양대조류를 형성한 道家的 思惟와 儒家的 思惟의 두 종류의 다른 사고의 패러다임을 산출시켰다. 이 양대 사고의 패러다임이, 孔子로 대표되는 現實肯定的 人文精神과 老子를 그 대표로 하는 文明批判的 否定精神이다. 실로 이 양대 조류가 ‘自然의 문제’와 ‘人間의 문제’라는 中國的

사유의 원형을 형성시키고 상보작용을 하면서 中國文化를 유지해 온 兩代 哲學體系이다.

이러한 人文主義내지 儒家文化가 지닌 약점은 혼란기인 춘추전국시대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가의 주구(走狗)로 변질되어 나타났으며,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춘추전국시대에 혈연적 성읍국가에서 관료적 군현국가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각종 부조리와 사회모순 및 현실비판이 『莊子』의 곳곳에서 묘사되고 있다.

“세속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큰 도둑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 놓은 자가 아닌가? 소위 聖人이란 자는 큰 도둑을 위하여 이것을 지켜 주는 자가 아닌가? …… 田成子는 도둑의 이름을 지었으면서도 그 몸은 요순과 같이 편안히 살았다. 작은 나라가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큰 나라도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큰 나라도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여 12대 동안 齊國을 차지했으니 이는 그 제나라와 그 聖人の 지혜에서 나온 법을 아울러 도둑질하여 그 도둑의 몸을 보호한 것이 아닌가? …… 저 갈구리를 훔쳐간 자는 죽음을 당하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는 제후가 된다. 그리고 제후의 문에는 인의가 있으니 이는 仁義와 聖知를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sup>1)</sup>

“대저 물로 가는 데는 배를 이용함만 같지 못하다. 따라서 배는 물로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물으로 가게 하면 평생을 다해도 짊어 거리밖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 옛날과 지금은 물과 물과의 차이가 아닌가? 周와 魯는 배와 수레의 용도가 다르듯이 治世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다름과 같지 않은가?... 지금 원승이를 잡아다가 周公의 옷을 입힌다면 그 놈은 반드시 물어뜯고 찢어 버려 완전

히 벗어버린 뒤에야 흡족해 할 것이다.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볼 때 원숭이와 周公이 다른 것과 같다.”<sup>2)</sup>

2) 人間의 完成과 生命精神의 充一 「東洋 人性論의 서설」에서 金忠烈 教授가 언급한 바와 같이, 中國人은 우선 그들의 농경에서 영향을 주는 自然 현상의 질서와 작용을 터득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우리가 삶을 寄託하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있으며”(天道), “그러기에 우리는 그에 어떻게 이용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人道) 하는 구체적이고도 삶에 절실한 문제를 哲學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므로, 自然 경험적이고 功利的인 倫理觀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sup>3)</sup> 따라서 中國哲學은 天道에 해당하는 自然의 功能과, 그것이 人間에 內在되어 있는 바의 生命精神의 體得과 育成이 人間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유하는 주된 과제였다. 특히 人文精神에 입각한 儒家에 있어서는 人性論의 문제가 그들의 모든 가치와 행동원리 및 窮極의 이념을 산출하는 핵심과제였다. 人間中心의 현실긍정의 가치를 전제로 하여 人間과 삶에 目的性을 고취하고자 한 儒家에 있어서는, 이론의 기준이 人性論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논리 내지 당위론에 준거한 사유체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老佛을 비판하고 방대한 形而上學과 修養論의 체계를 세운 주자학도 결국은 人性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와 사회의 合目的性을 부여하고자 한 당위론에 근거한 요청논리의 사유체계 형태를 지닌다. 이러한 약점은 후에 清代實學에서 氣에 근거한 사실논리를 앞세우는 이론에 의해 비판을 받

게 된다. 人文精神에 입각한 가치추구를 지향해온 儒家와 이에 대한 상보역할로서 人間을 自然으로 환원시키고자 한 道家의 사유체계는 中國文化의 양대조류를 형성하였으며, ‘自然의 人間化’와 ‘人間의 自然化’를 통하여 中國의 文化와 思想을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었다. 사실 儒家의 이상인 聖人이나 眞儒와, 道家의 이상인 至人이나 眞人이 별개의 존재는 아닌 것이다. ‘自然의 人間化’를 주장한 儒家나, ‘人間의 自然化’를 주장한 道家나 어느 수준 이상의 단계에서는 만나지고 합치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만남의 접합점이 人間의 完成으로서의 生命精神의 充一에서 찾아진다고 생각한다.<sup>4)</sup>

따라서 莊子가 老子와 孔子의 思想에 영향을 받고 그들을 會通시키는 접합점도 人間의 문제에 있게 된다. 老子의 自然中心의 사고와, 孔子의 人間中心의 사고가, 莊子에 있어서 ‘精神’의 哲學的 原理를 통해 自然과 人間이 和諧 되어짐으로 해서 會通하게 된다.

“너는 마음을 담담한 境地에서 노닐게 하고, 네 기운을 막막한 境地에다 합치시켜, 順物自然할 뿐 사사로움을 용납치 말라. 그러면 天下는 다스려진다.”<sup>5)</sup>

위에 언급된 順物自然의 실천을 통해 生命精神이 充一하여, 人間이 完成되어 가는 수양의 단계가 「大宗師」에는 ‘外天下 → 外物 → 外生 → 朝徹 → 見獨 → 無古今 → 不死不生’으로 묘사되고 있다. 세상사에 초연해지는 外天下로 부터 시작해서, 不死不生の 大自然과 合一된 境地까지, 得道에 단계 즉 人間 完成의 境地

를 묘사하는 말이다. 여기서 말한 不死不生은 天地의 生成功能과 合一된 境界를 말하며, 生命精神이 온전하여 大自然과 일치되어 조화를 이룬 삶을 말한다고 본다.

이러한 境界를 「天下」에서는 “道の 마루와 분리되지 않은 자를 天人이라 하고, 道の 存在인 精에서 분리되지 않은 자를 神人이라 하고, 道の 진리에서 떠나지 않은 자를 至人이라 한다”<sup>6)</sup> 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결국 “天地與我並生, 萬物與我



爲一”의 境界로서, 人間完成의 窮極은 生命精神의 充一에 의한 天地精神의 合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사상에서 말한 逍遙精神의 주체자인 人間이 지향하는 실천의 원리요 목표는 生命精神의 充一에 있게 된다.

### 3) 宇宙生命의 和諧

中國哲學의 주요과제가 自然과 人間과 歷史의 문제라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天道와 人道 및 天人之際의 문제로 대체해서 理解할 수

있음을 언급했었다. ‘人間의 自然化’를 주장하는 道家와 ‘自然의 人間化’를 주장하는 儒家의 天道와 人道가 각기 다른 사유체계에 근거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儒家의 聖인과 道家의 眞인이 窮極적인 문제의 근거가 되는 ‘自然’과 ‘人間’에 대한 문제는 해석이나 觀點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의 哲學의 窮極的 의거처는 역시 自然이고, 이 自然 속에서 人間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유했던 이론체계들이다. 문제는 儒家와 道家가 自然과의 조화 및 人間의 完成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유체계를 지니면서도, 그들의 哲學이 窮極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기점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sup>7)</sup>

儒家나 道家나 自然에 근거한 哲學의 사유를 전개하고, 自然과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유사한 사유형태를 지니면서도, 自然 속에서의 人間의 위치와 가치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天人之際에 있어서 상이한 哲學을 낳게 되는 것이다.<sup>8)</sup>

『前漢書·董仲舒傳』에 나오는 “道之大原出於天, 天不變, 道亦不變”<sup>9)</sup>에서 보듯이, 天道는 天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는 儒家와 道家에 공통된 입장이라 생각된다. 다만 天을 人格天, 道德天, 自然天으로 나누어 보는 해석상의 차이는 있으나, 先秦에서 이성적 사유에 근거하는 전반적인 풍조 속에서 天의 개념의 차이는 墨子와 荀子の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부류에 속한다고 본다. 이는 方東美 教授가 말한 ‘萬物有生論’<sup>10)</sup>의 입장을 취하여, 中國人에게 있어 自然은 하나의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창조적 전진의 과

정이며, 모든 自然이 生命으로 충만한 유기체적 存在로 파악하는 견해를 전제로 한 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自然은 주격적인 것,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보고 그를 完滿具足한 가치의 總府로 삼는 自然의 뜻을 지닌 天을 가리킨다.<sup>11)</sup> 따라서 天道觀은 '生生之謂易'이 中國哲學의 기본 사유구조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天道의 유사성과는 달리 人道에 있어서는 相異한 해석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해석의 차이는 人性論에서 첨예화 된다.

先秦의 人性論은 性善說과 性惡說과 無善無惡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2)</sup> 孟子는 성선설을 대표하고, 荀子는 성악설을 대표하며, 老子·孔子·告子·莊子는 無善無惡說에 가까운 입장이다.<sup>13)</sup>

이러한 차이를 『中庸·第二十二章』과 「在宥」에 나온 구절을 통해 살펴보자.

“오직 天下의 지극한 誠만이 자기의 본성을 다 할 수 있으며, 자기의 본성을 잘 닦으므로 사람의 본성을 다할 수 있게 되며, 사람의 본성을 잘 드러나게 한 즉 사물의 본성도 다할 수 있게 되며, 사물의 본성을 잘 드러나게 한 즉 天地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며, 天地의 화육을 도울 수 있는즉 天地의 功能에 참여하여 (宇宙生命을) 창진시킬 수 있게 된다.”<sup>14)</sup>

“無窮의 문에 들어가서, 無極의 광야에서 노닐며, 나는 일월과 더불어 그 빛에 참여하는 바 되고, 天地와 더불어 영구불변하게 된다.”<sup>15)</sup>

儒家가 人性을 기점으로 하여, 下學而上達의 精神에 의하여 人性과 物性を 단계적으로 完成시켜 가고, 최후의 境地에 이르러서는 天地의 化育을 도우며, 天地

自然과 더불어 宇宙生命을 創進시켜 가는 大人君子를 지향하는 바를 『中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無窮의 境界에서 노닐며, 天地와 더불어 영구성을 共有하는 宇宙生命과의 共流가 바로 老莊哲學의 窮極目標임을 엿볼 수 있다.

위의 귀절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는 차이는, '人間의 自然化'나 '自然의 人間化'냐의 차이로 여겨지며, '克己'를 통한 歷史文化的 創進이나, '無己'를 통한 宇宙生命과의 和諧냐의 차이로 간주할 수 있다.

두 思想이 人間의 完成과 自然의 完成에 窮極의인 목표를 두면서도, 天人之際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人間의 主體성과 歷史文化的 創進에 의미와 가치 부여를 하느냐 않느냐에 기인한다.

莊子에게는 無古今과 無終始의 境界에서는, 價値가 存在와 一致되어 있기에 새롭게 當爲의 價値賦與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克己'에 의한 忠恕之道로 人間의 完成과 自然의 完成 및 歷史의 創進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儒家와 '無己'에 의한 坐忘과 物化로서 無窮의 境界에서 逍遙遊 하고자 하는 莊子哲學과의 사이에는 歷史에 目的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超目的의 無窮 和諧의 境界에서 逍遙하는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莊子의 逍遙精神이 宇宙生命의 創進이 아닌 宇宙生命과의 和合과 和諧를 지향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價値를 설정해 놓고 存在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價値를 存在의 세계로 환원시켜 버리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儒家가 人文情神에 입각하여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를 지향하는

것과, 莊子가 天地精神에 의거하여 “上與造物者遊，而下與外死生無終始者爲友”를 지향하는 것은 결국 天人之際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孔子와 老子가 ‘天人之際’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두 사상을 종합한 莊子理解에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이면서 이를 통해 莊子哲學의 특징을 잘 살펴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老儒의 차이의 문제에 대한 소결론은 金忠烈 教授의 다음 귀절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이 글의 말미로 장식코자 한다.

“道家가 天地의 純正과 古人의 大體로 돌아 가려는 자세에서 聖人을 음미한 데 반해서, 儒家는 그 聖人에 의해 표방된 사람의 도리와 생활방법, 그리고 公生공존의 事와 질서를 위한 제고, 즉 人文世界創進 면에서 聖人の 모습을 부각시키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sup>15)</sup>

註)

1) 「거협」 345-355 쪽.

“世俗之所謂知者，有不爲大盜積者乎？…… 田成子有乎盜賊之名，而身處堯舜之安。小國不敢非，大國不敢誅，十二世有齊國，則是不乃竊齊國，竝與其聖知之法，以守其盜賊之身乎？”

2) 「天運」 521-523 쪽.

“夫水行莫如用舟，而陸行莫如用車。以舟之可行於水也，而求推之於陸，則沒世不行壽常。古今非水陸乎？周魯非舟車乎？…… 今取猿狙，而衣以周公之服，彼心 齧挽裂，盡去而後慊。觀古今之異，猶猿狙之異

乎周公也。”

3) 金忠烈, 「東洋人性論의 序說」(『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연세대학교출판부, 1982) 169 쪽.

4) ‘精’은 道의 存在에 해당하고, ‘神’은 道의 작용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老子의 ‘自然’에 해당하는 개념이면서도, ‘精’과 ‘神’이 ‘精神’이 되어 人間에 內在하면서, ‘精神’이 道와 心의 개념을 겸비한 存在가 되어, 道와 人間을 和諧시켜 주는 개념이 된다. 人間의 完成으로서 ‘精神’이 生命精神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生命精神의 充一을 기하는 莊子哲學의 단면들이 養生이나 養神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과, 그러한 人間의 주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自然性을 가장 많이 겸비한 莊子の ‘精神’이 生命精神을 充一케 하는 哲學的 근거가 된다.

5) 「應帝王」 281-282 쪽.

“汝遊心於淡，合氣於漠，順物自然，而無容私焉。而天下治矣。”

6) 「天下」 “不離於宗，謂之天人，不離於精，謂之神人，不離於真，謂之至人。”

7) 論者는 이것의 해답은 바로 ‘天人之際’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天人之際’의 분기점은 결국은 人性論에 대한 哲學적 觀點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8) 中國의 양대 思想을 형성한 儒家와 道家의 哲學體系의 상이점은 ‘天人之際’를 어떻게 해석하고 理解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天人之際의 차이는 天道觀의 차이보다는 人道觀의 차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人道의 차이는 결국 人性論에 대한 觀點의 차이

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歷史文化를 理解하는 시각의 차이를 산출시켰다는 것이다.

9) 『前漢書·董仲舒傳』 五十六.

10) The View of Life, p.30.

11) 『中國哲學散稿(1)』 76쪽.

12) 姜國桂의 『中國歷史的人性論』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論語』의 「陽貨」에 나오는 “性相近, 習相遠也”에서 보듯이 ‘性相近’의 입장에 서면 孟子의 성선설로 발전하게 되고, ‘習相遠’의 입장에 서게 되면 荀子の 성악설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孔子는 性이 선악의 맹아를 함축한 性無善惡의 입장에서 理解했다. 告子는 ‘生之謂性’에 입각한 性無善惡論으로, 人性은 후천적으로 사회환경과 교육에 의해 선악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老子는 ‘天道自然無爲’의 입장에서 人性의 自然說을 주장하고; 莊周는 人性의 본성은 純朴自然하다 하여 無善無惡하다 하고, 正욕을 性으로 본 荀子の 성악설도 반대하고, 心善의 善端의 확충을 주장한 孟子의 성선설도 반대한다. 莊子는 「知北遊」에 나오는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와 「至樂」에 나오는 “雜乎芒之間,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에 의거하여, 人性을 氣의 산물로 보고, 萬物과 人間이 모두 氣의 소산이므로 齊一하다고 생각하여, 氣의 본성을 自然과 동일시 한다. 즉, ‘氣’는 人間을 구성하

는 素質이며, 天신을 주유하면서, 天地의 氣와 상통하고; ‘形’은 人間의 形骸를 구성하고; ‘神’을 人間의 精神으로 보고; ‘精’을 心의 動으로 보며; ‘欲’은 탐욕으로 理解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一氣의 소산이고, 精은 氣之精이요, 神은 氣之動이므로, 精神이 一氣의 純氣가 된다. 따라서 莊子에 있어서는 人性도 天地의 一氣가 변화과정중에 형성한 存在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儒家와 같이 人間의 存在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宇宙간에 특별한 위치와 사명을 부여하는 價值中心의 人間觀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13) 姜國桂, 『中國歷史上的人性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3-38 쪽.

14) 『中庸』(『四書讀本』) 33 쪽.

“唯天下之誠, 爲能盡己性; 能盡己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之化育; 可以贊天之化育, 則可而與天地參矣.”

15) 「在宥」 392 쪽. “入無窮之門, 以遊無極之野; 吾與日月參光, 吾與天地爲常.”

16) 金忠烈, 「中國哲學史序說」(『中國哲學散稿(1)』) 67 쪽.

편집자 주: 이 글은 6월 28일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주최한 중국선교 세미나의 강의 내용임.





## 최근 중국의 교육문제 및 새로운 추세

김성광

(중국어문선교회 파송선교사)

최근 중국은 개방과 개혁을 통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 자신감과 자만심에 충만해 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많은 문제점과 중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머물거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이고 심각한 것이 바로 교육 문제이다.

아마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뿐 아니라 문맹 인구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중국인구의 22%인 2억이 훨씬 넘는 사람이 문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문맹 인구의 1/4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데 1988년을 기준해서 2억의 학생이 있고 이는 전체인구의 1/5이 넘는 수이다. 이 2억 학생 중 국민학생이 1억 2,500만 명, 중학생이 약 4,000만 명, 고등학생이 약 1,300만 명이 있고, 대학생은 1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수는 국민학교가 약 30만 개소, 중고등학교가 약 11만 개소, 대학이 1988년 기준하여 1,075개소가 있다. 전국 교사의 총인원은 1,000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중 국민학교 교사 550만 명, 중학교교사 240만 명, 고등학교 교사가 110만 명, 대학 강사가 39만이 된다. 이와 같이 엄청난 교육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과 허실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

최근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2억 5천만 명의 청소년(15-24세) 중에서 현재 각종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겨우 3,874만 명뿐으로 적령 인구의 15.7%밖에 되지 않는다. 12세 나이 중 공부하는 학생은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고, 20세 나이 중 학생수는 더욱 적은 11%밖에 되지 않는다. 150만 명의 대학생 수는 인도의 인구비례 대학생의 1/4밖에 안되는 아주 적은 숫자이다. 그리고 요즘 중국의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한 중학생들의 퇴학률도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만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퇴학한 학생이 5.7%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국 정부의 교육투자가 아주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최대 목표는 빠른 경제 발전이다. 그래서 교육투자는 도외시하여

세계에서 교육투자가 가장 적은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교육경비는 국민 총생산의 2.5%로 전세계의 평균 교육경비(국민 총생산의 3.6%)에 아주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다. 중국의 교육투자는 미국의 3%밖에 안되고 국가 예산의 10% 미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물가상승, 학생수의 증가 등을 감안 한다면 중국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어 낙후된 많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교육 재정의 문제로 지방 자체적으로 농업세 등을 징수하여 교사 월급 등을 주곤 하는데, 세금 납입이 잘 안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재정이 충당되지 않아, 작년에는 사천성 이릉현의 7천 명의 교사들이 7개월 동안 월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백 개가 넘는 국민학교 교장들이 상급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유실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현의 89년에 입학한 2,500명의 국민학생 중에서 작년 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은 1,20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교육 재정의 빈곤으로 인해 교사들의 월급은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데 작년 중국의 교사 평균 월급이 중국의 12개 업종 가운데 10번째로 적다고 한다.

두번째의 중국 교육 문제의 원인은 물질 중심적인 사회 풍조의 현상 때문이다. 즉 '讀書無用' '知識不值錢'의 사회 풍조가 만연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중단하고 교사직을 버리거나 겸직을 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89년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이 이제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또 북경대학이나 칭화대학의 명문 대학 학생들도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암담한 현상 가운데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의 사립화 현상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교육의 엄격한 국가 통제의 의식형태 교조주의를 고수하던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교육도 시장경제체제의 변혁 아래 교육 사영화 추세가 부활되고 있다. 광둥성 광주시의 경우 새로 민간이 운영하는 학교가 360개소가 넘는데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15만 명이 넘고, 학교 종류도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있으며 대학 수준의 학교만도 전체의 15%가 된다. 이런 학교를 경영하는 주체는 사회단체, 민주당파, 집체기업, 사영기업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전체의 1/3이나 된다. 그 밖에 북경, 천진 등 전국 대도시에도 많이 출현하고 있다. 북경의 사영학교도 1천2백 개소가 넘는다.

그리고 그 중 어떤 학교들은 외국합작으로 세운 학교들도 많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북경과 대련에 한국학교, 일본학교를 설립하여 나중에는 현지 중국인 학생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립학교의 급속적인 발전과 기현상도 볼 수 있는데 이른바 "귀족 국민학교"의 출현이다. 사천성 성도시 부근에 고급 사립 국민학교가 설립됐는데 미국인 교사를 초청하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모든 교실마다 비디오, TV, 컴퓨터, 피아노가 설치되어 교육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고급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학비는 연 US\$ 8,000라고 한다. 월수입이 2-300원(인민폐) 정도 되는 보통 사람으로는 기절할 만큼 비싼 학비이다. 그런데도 정원이 넘어 많은 부모들이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로비를 하며 애쓴다고 한다. 연 50원 정도의 인민폐가 없어 학교를 중단해야 하는 가난한 농촌 학생들을 생각하면 최근 중국 교육 현상의 극과 극을 보는 셈이다.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빈부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가속화 되리라고 본다.

# 흑룡강성 종교활동장소관리 조치

## 序 言

흑룡강성 제7회 인민상위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된 <흑룡강성 종교활동장소관리조치>(이하 줄여서 관리조치라 부름)는 우리 성에서 시행되는 종교법규이다. 이의 반포는, 우리 성의 종교활동장소관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市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대도시로서, 종교인구가 일정비율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절이나 교회, 기타 일련의 고정장소는 종교교직원과 신도들이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장소로서, 각 종교가 자기들의 활동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또한 그에 따른 합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며 종교활동 정상화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당의 11회三中全會 이래, 우리 시의 종교정책은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종교활동장소의 개방을 허가받아 종교활동의 기본적인 것들이 정상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하에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 종교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헌법, 법률 그리고 정책범위를 초월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유도와 교육 그리고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각급 종교조직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계의 많은 신도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관리조치>는 관리의 법률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 법규를 관철시키는 것은 사회안정을 유지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많은 신도들이 단결하여 함께 우리 도시의 경제 건설에 진력하게 함에 그 중요 의의가 있다.

<관리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전교육의 일을 확실히 해야 하며, 각종 형식을 거쳐 광범위하면서도 깊이있게 선전하여 사회 각계 사람들이 모두 이 <관리조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법 준수와 법 집행의 의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 다음으로 확실한 이해와 시행관철의 토대 위에 더욱 힘써, 한편으로는 법에 의해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잘 보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조치>의 테두리를 벗어난 종교활동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데, 정상과 비정상적인 것,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활동의 한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종교활동중에 나타나는 위법문제를 처리할 때는 안정과 유지라는 대국적 측면에서 출발해야 하며 서로 다른 성질의 모순을 엄격히 구분하고 정확한 처리를 해야 한다. 인민 내부의 문제에 관해 처리할 때는 단결과 교육의 방식이 주가 되어야 한다.

<관리조치>는 법의 테두리에 속한다. 또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 법에 의거해 등기를 허락받은 종교활동장소에서 정상적 종교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국가 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 모두가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못한다. 세번째로, 각급 당위와 정부의 영도 아래 각각의 관련부문은 공동으로 <관리조치> 관철에 협조한다. <관리조치>의 선전과 시행관철을 위해서는 단지 정부종교사업 부문만 의지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의 관련부문과 상호 조정하여 공동대처함이 필

요하다. 넷째로, 종교애국조직과 종교계인사들이 정부를 도와 <관리조치>를 열심히 선전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종교활동장소 스스로의 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관리조치>의 선전을 관철시키는 것은 우리 市 法制 사업의 주요한 구성 부분의 일부이다. 이로써 사회각계와 대중들의 <관리조치>의 기본정신을 잘 이해하고 파악케 하기 위한 것이며, 법의 준수, 법 이행의 자각성과 책임감을 높여 <관리조치>가 잘 관철 실시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우리 부서는 특별히 이 소책자를 인쇄하며 모두가 학습하고, 선전하며, 집행토록 하였다.

하얼빈시 민족종교사무국  
1993년 2월 4일

## 종교활동관리 조치 조문

(1992년 10월 26일 흑룡강성 7회  
人大常委會 제29차 회의 통과)

**제1조:**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시키고, 정상적 종교활동을 보장하며 종교활동의 관리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치에서 종교활동장소라 칭하는 것은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이 거행하는 종교활동의 사찰, 도교 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 그리고 기타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제3조:** 종교활동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반드시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주권과 통일을 유지하고 민족단결을 유지하고, 정상적 일의 질서, 생산질서, 생활질서와 사회질서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민 신체건강에 손해가 없게 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독립, 자주, 자력의 교회 원칙을 견지하여 외세의 지배

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법에 의거해 설립된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 종교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법률로써 보호를 받으므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못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종교사무부문은 종교활동의 행정주관부문으로서, 본 조치의 실시를 책임지는 조직이다.

**제6조:** 종교활동장소의 설립은, 縣급 이상(縣급을 포함, 이하 같다)은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同급 종교사무부문에서 등기수속을 처리하며, 또한 상급종교사무부문에 등록을 보고해야 한다. 등기의 구체적 방법은 省종교사무부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7조:**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아래와 같다.

- (一). 고정적 장소와 명칭이 있어야 한다.
- (二). 종교를 믿는 공민이 조직한 관리조직이 있어야 한다.
- (三).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종교 교직자 혹은 종교를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있어야 하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추천하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 (四). 항상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신도가 있어야 한다.
- (五). 관리 규칙이 있어야 한다.
- (六). 합법적 경비 출처가 있어야 한다.

**제8조:** 종교활동장소의 마감, 합병, 주소나 명칭 변경은 반드시 그 장소의 관리조직을 거쳐 원래 등기한 기관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마땅히 관리제도를 세워 민주관리를 실행해야 하는데, 그 직무는 아래와 같다.

- (一). 신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며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 하도록 교육한다.

- (二). 본 장소에서의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안배한다.
- (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조직을 改選한다.
- (四). 신도가 자원해서 주는 보시(布施), 보조금, 봉헌, 선물은 받아들인다.
- (五). 국가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자양(自養)의 목적인 봉사성 기업과 사회 공익사업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 (六). 본 장소의 재물을 지배, 관리하여 안전하게 경비되도록 한다.
- (七). 법에 의거하여 본 장소의 文物, 건축, 시설, 조경을 보호한다.
- (八). 국가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본 장소 내에서 종교용품과 합법적으로 인쇄 발행된 종교 간행물을 위탁 판매할 수 있다.
- (九). 본 장소의 기타 합법적 권익을 유지한다.

**제10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은 종교활동장소를 침범할 수 없으며, 법에 의거하여 사용하는 토지, 가옥, 기타 재산을 침범할 수 없다.

**제11조:** 종교활동장소 내에 상업서비스망을 설립하거나, 진열과 전람 등의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과 그 지역 종교사무부문의 동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제12조:** 시(地區) 이상의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훈련반을 만들 때는 반드시 동급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종교활동장소의 조직이 그 장소의 종교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종교활동장소의 상주인원은 정  
원관리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상주인원과  
임시인원은 마땅히 그 지역 공간기관 호적  
관리방식에 의거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제15조:** 지역 외의 종교단체와 신도는  
本省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종교활동장  
소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해당지역 공민 중에서 교도를 늘일 수 없으  
며, 종교 교직자로 위임할 수 없고, 종교  
모임을 조직할 수 없으며 종교선전품을 뿌  
릴 수 없고, 기타 전교활동을 할 수 없다.  
지역 외의 종교 교직자가 본성에 와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주관하려면 반드시省급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종교활동장소에서는 규정에 의  
거하여 지역 외 인사의, 조건을 붙이지 않  
은 기증(기부)과 자원해서 주는 보시, 보  
조금, 봉헌, 선물은 받을 수 있다.

**제17조:** 본 조치 제 6조를 위반하고 설  
립된 종교활동장소는 縣급 이상은 인민정  
부종교사무부문이 책임지고 그 활동을 정지  
시키며, 법에 의거해 등기수속을 밟도록  
한다. 그 중 본 조치 제 3조를 위반한 행  
위에 대해서는 縣급 이상은 인민정부가 단  
속, 금지한다.

**제18조:** 본 조치규정 위반에 있어,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縣급 이상은  
인민정부종교사무부문이 책임지고 그 위법  
활동을 정지시키며, 또한 경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기취소, 위법물품과 불법적  
수입의 몰수로 각각 처리한다.

- (一). 신도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기부  
금 따위를 부담시키는 것.
- (二). 종교단체의 인준을 거치지 않았  
거나, 종교 교직원이나 전도인으  
로 가장한 사람이 종교활동을 주  
관하거나 주관에 간여하는 것을 용  
인 접대하는 것.
- (三). 불법으로 인쇄된 종교선전품과  
종교 용품인 것.

(四). 불법인쇄, 불법입국된 종교서간,  
音像제품과 기타 종교선전품을 중  
계 운송 하거나 팔거나, 퍼뜨리거  
나 유포 시키는 것.

(五). 지역 외의 종교조직이나 종교인  
사에게 재물을 강요하거나, 이들  
이 제공한 보조금, 전도경비를 받  
는 것.

(六). 본 조치를 위반하는 기타행위의  
것. 등기 말소의 처벌에 처해질  
때는, 반드시 동급인민정부의 비  
준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본 조치규정을 위반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것  
은, 縣급 이상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  
에서 동급인민정부에 제청하여 책임지고 그  
침범활동을 정지시키며, 조성된 경비손실  
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국가 배상 손실 규  
정에 따라 책임지도록 한다.

**제20조:** 본 조치의 위반이나, 치안관리  
를 위반한 행위가 구성되면, 공간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 조례> 규정에 따  
라 처벌하며, 범죄로 구성이 되면 사법기  
관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당사자가 행정처벌규정에 따르  
지 않으면, 국가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 復讞(부의: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한  
번 토론한다)을 신청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

**제22조:** 본 조치의 구체적 응용문제에  
있어서는 省인민정부종교사무부문에서 책  
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본 조치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  
한다.

## 흑룡강성 종교국의 〈흑룡강성 종교활동장소 관리법〉 에 관한 약간의 조문 해석

〈흑룡강성 종교활동 장소 관리법〉이  
〈관리법〉으로 약칭 제22조의 규정에 근거,  
관리법 및 조문은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一. 〈관리법〉의 입법 주지에 관해

〈관리법〉 제1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을 지었다.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며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에 유익하도록 한다.” 이는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법에 의해 보호하려 함을 뜻하며 또한 헌법, 법률과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유도, 교육 및 처리토록 함이다. 이는 한 가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으로, 그것들(종교활동)을 나누거나 심지어 대립시켜서는 안된다. 법에 의거하여 통과된 종교활동장소의 관리는 강화되어야 하며 종교활동 정상화를 촉진시켜 우리 성의 사회안정과 경제건설을 위함이 본법을 제정한 근본목적이다.

### 二. 관리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관리법〉 제2조는 이에 대해 규정지었다. 그 함의는:

1. 본성의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곳은 사찰, 도교사원, 회교사원, 교회가 있다. 현재 이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원래의 사찰·교회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성의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이 종교활동을 하는 기타 고정장소가 있다. 간단히 이를 염불당, 경당, 清真沐浴室(회교 목욕소), 공소, 공공 예배장소 및 기독교의 가정집회소가 있다. 여기의 “가정 집회소”는 정부 허가를 거쳐 임시등기증을 받은 가정집회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가정 집회소는 과도기적 종교활동장소이며, 본법 10조, 11조, 12조, 14조 규정은 가정집회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 三.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 종교활동과 합법 권익의 유지 문제에 대해

〈관리법〉 제4조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해 놓았다. 신도의 종교신앙은 일종의 종교활동을 거쳐 표현해야 한다.

당과 정부관련정책규정에 의해, 신도들은 각교의 교의, 教觀과 습관에 따라 종교활동장소 및 자기 집에서 하는 拜佛(불상에 절하는 것) 경읽기, 향 피우는 것, 예배, 기도, 강경(경을 말하는 것), 설교, 미사, 세례, 수계, 封齋(회교도가 9월 한 달 동안 대낮에 단식하고 재계하는 것) 終傳, 추도, 종교기념일을 지내는 것, 그리고 종교적 감정에서 스스로 원해 종교활동장소에 내는 보시, 보조금, 봉헌, 선물과 각교가 전통습관에 따라 새로운 신도 등을 받아들이는 것 모두 정상적 종교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 권익은 주로 본장소의 건물과 부속건축, 토지, 숲 등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가리키며, 종교용품, 종교수입, 건물수입, 생산활동 중의 고정 자산과 수입 및 기타합법적 수입의 민주관리권과 지배권이며, 〈관리법〉 제9조에서 열거한 기타 합법권익 등등이 있다.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 종교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이 간섭과 침범과 손해를 줄 수 없다. 특히 정부부문과 국가공무원

은 더욱 모범적으로 법률과 당의 종교정책을 집행해서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여 정상적 종교활동에 간여하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직접 혹은 다른 형태로 종교활동장소의 권익을 침범할 수 없다. 기타 기업단위도 강제적 수단으로 종교활동장소의 편익을 침범할 수 없다.

#### 四. 종교활동장소의 등기방법에 대해

〈관리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성의 종교활동장소의 등기 및 관련사무는 아래 순서나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

1. 종교활동장소 설립의 신청은 본 장소의 관리조직 특히 소재지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와 향, 진(街道사무소: 도시 현 아래 작은 행정단위)사무처의 심사의견을 서명한 〈종교활동 장소설립신청소〉, 〈관리법〉 제7조 규정 요구의 관련서면 자료를 현(區), 시의 주관종교사무부문에 등기신청을 제출한다.

2. 주관종교사무부문을 등기신청을 받은 후 60일 내에 〈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심사해서 현(區), 시 인민정부 심사 비준 후에, 등기를 허가하거나, 등기를 허가하지 않거나, 등기를 잠시 미루는 등의 서면 응답을 해준다.

3. 등기 허가를 받은 종교활동장소는 그 재산권이 종교단체에 귀속된 것은 〈종교활동장소등기증서〉를 주며, 재산권이 개인에게 속하는 것은 〈임시등기증서〉를 준다.

4. 신청자가 주관종교사무부문의 응답에 불복할 때는 서면응답을 받은 후 30일 내에, 바로 위의 상급 주관종교사무부문에 재심(復議)을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위의 상급 주관종교사무부문을 재심 신청을 받은 후 반드시 60일 내에 재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5.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종교활동 등기증서를 고쳐쓰거나,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고, 만약 등기증서가 유실되었다면

주관종교사무부문에 추가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종교활동 장소의 정지, 합병 혹은 주소, 명칭, 장정(조목별로 정한 규정) 관리조직과 책임자의 변경은 반드시 주관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하여 허가받는다.

7. 종교활동장소 등기신청서와 등기증서는省政府종교사무국에서 통일하여 제정발행 한다.

#### 五. 종교활동장소의 명칭, 관리조직과 관리 규칙에 관해

〈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5)항은 이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종교활동장소의 명칭은 각 종교의 전통과 습관에 따라 이름붙일 수 있다. 과거 각 종교교파의 난립과 상호 대립상황을 타개하고, 우리 나라 각 종교 중의 각 민족, 각 교파가 애국주의 깃발 아래 대단결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활동장소를 명명할 때는 교파, 민족의 명칭으로 할 수는 없다. 명명 후에는 가정집회 외의 장소에서는 표기하거나 간판을 걸 수 있다.

현재 우리 省의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은 종교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관(寺觀), 교회의 민주관리위원회(혹은 당무위원회), 집사회(執事會), “三自” 애국조직 등 여러 종류의 조직형식이 있다. 성원은 종교교직원 혹은 종교단체를 거친 자, 종교활동장소가 추천한 자 그리고 신도 대표가 민주적 선거로 뽑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각교 종교활동장소의 省급애국조직에서 제정한 관리장정을 근거로 해서 규범화하여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각급 종교사무부문을 본 지역 종교활동장소의 건전한 종교활동장소 관리, 재무관리, 교무관리 등 각항의 규정체도를 세우는 데 지도와 협조를 해야 하며 〈관리법〉 제9조 규정의 직책을 이행한다. 각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은 모두 바로 위 애국종교조직에

예속되며, 점차 위로부터 아래로의 지도체계와 아래로부터 위로의 관리체제를 형성시킨다.

#### 六. 합법적으로 인쇄 발간된 종교 간행물 문제에 관해

〈관리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이슬람교, 불교, 도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전국애국조직에서 통일 편집 인쇄하여 출판된 종교경서, 출판물 및 省정부 종교사무국의 허가를 거쳐 정식 출판부문으로 번호 매겨서 출판된 종교보조 도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종교출판물은 종교계 내에서 발행될 수 있으며 縣급 이상 주관종교사무부문의 허가를 거치면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팔아, 신도의 정상적 종교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어떤 부서(단위)나 개인, 종교조직에 이르기까지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종교 간행물의 불법인쇄, 출판, 판매를 할 수 없다.

#### 七. 종교활동장소 내에서의 법에 의거한 토지, 건물 사용문제에 관해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은 이미 정부토지, 부동산 주관부문의 등기 허가를 거친 종교활동장소가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가리킨다.

#### 八.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실시되는 종교 훈련반 문제에 관해

〈관리법〉 제12조는 이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현재 우리 省縣급과 그 이하 애국종교 조직의 불건전, 종교교직원의 부족, 역량부족을 감안하여 종교훈련반의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법〉의 규정은 종교활동장소에서 실시되는 종교훈련반은 省직할시(혹은 地區) 이상의 종교단체로 제한한다. 동급 종교사무부문은 허가를 요구

하는 훈련반 운영 계획에 대해 반드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연구하여 조건이 구비되고 확실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으며 협조해 준다.

#### 九. 장소를 이탈하는 종교활동문제에 관해

〈관리법〉 제13조는 이에 관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정상적인 일의 질서, 생산질서, 생활질서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종교활동장소의 종교활동은 〈관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장소의 관리조직이 스스로 조절하고 주관하며 원칙상 장소를 이탈하는 조직의 종교활동은 할 수 없다. 종교교직원이 없는 작은 종교활동장소에 대해서는 인근 혹은 부속의 종교조직에서 나온 종교교직원이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종교의식과 종교활동을 주관해 나간다. 종교기념일을 지낸다든가, 중대한 종교경축활동을 거행하기 위해 조직이 장소를 이탈하는 종교활동이 필요할 시에는 마땅히 먼저 그 지역 주관종교사무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지역”은 현급 이상을 가리킨다.

#### 十. 종교활동장소에서 실시되는 정원관리 문제에 대해

〈관리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주 무상재물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부가되지 않는 기증에 대해서는,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나온 새로운 규정 이전에, 그 허가권은 여전히 1982년 宗發字 216호 문건정신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다. 즉, 지방조직에 1차성 중여가 만 원 이하일 때는 省, 市, 자치구 종교사무부문에서 심사해서 허가하며, 만 원 이상의 것은 省, 市, 자치구 인민정부에서 허가하며, 이십만 원 이상의 것을 받을 때는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국무원에 통보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만약 외국의 물자를 중여받을

때는 그 가치에 따라 윗글에서 상술한 규정에 비추어 이행해야 한다.

“보조금”은 지역 외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우리 종교교직원과 신도에게 제공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주요한 것은 그 위임받은 선교 대리인 혹은 전도인으로 가장한 개인의 보조비이다. “경비”는 지역 밖에서 우리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 혹은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것으로 전도용에 사용된다. “보조금”과 “경비”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해 보상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침투 목적의 것으로 부가조건을 가진 기증이다. 그래서 <관리법> 제 18조 제(5)항 규정은 종교조직과 개인을 포함한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보조금과 종교활동 경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

### 十三. <관리법>의 처벌원칙과 중점문제에 관해

본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합법과 위법, 범죄와 범죄가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법률로써 기준을 삼아 사실을 바탕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고 처벌해야 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 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며 처벌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한다.

처벌의 주요 대상은 종교활동과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하여 반혁명 파괴활동을 진행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중을 미혹하게 하거나, 인명에 해가 되게 하는 것,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재물을 사취하는 등의 위법 범죄활동 및 지역 밖의 적대세력의 침투활동이다.

### 十四. <관리법>의 처벌과 관련문제에 대해

<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

조는 처벌에 대해 규정에 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마땅히 각기 다른 상황을 살피고, 관련 정도에 따라 현급이상 주관종교사무부문과 동급인민정부, 공안기관, 사법기관에서 교육적, 행정적, 법률적의 수단으로서 처리해야 한다.

(一). 현급 이상 주관종교사무부문과 동급인민정부는 본법의 규정을 위반했으나, 그 위반이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지 않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본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초범일 경우, 내용이 경미한 것은 그 지역 종교사무부문에서 당사자에 대해 정책과 법적교육을 시켜 잘못을 고쳐줄 책임이 있다. 교육을 받은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교육을 거쳐 고쳐지지 않으면 그 위법활동을 정지시킬 책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서약서를 제출케 한다. 손실 혹은 상해를 조성했을 때는 직접 책임자가 배상, 혹은 의료비용을 부담한다.

3. 본법 제3조, 제1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내용이 비교적 중한 것은 경고로 처벌하며 내용이 엄중하거나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등기를 취소하고 금지시킨다.

4. 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내용이 비교적 중한 것은 단순처리 혹은 일괄 경고를 하며, 위법 물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내용이 엄중하거나 과오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등기를 취소한다. 행정책임에 관련된 사람은 동시에 추궁한다.

5. 본법 제4조, 제10조, 제 11조 규정을 위반한 것은 본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등기 취소처벌에 처해질 때는 반드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다.

본 조치의 처벌을 집행할 때는 몰수된 재산은 일괄적으로 동급재정에 상납된다. 압수된 금지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모든 경고 위법활동정지, 위법 물품과 불법소득 몰수와 등기 취소처벌조치는 일괄적으로 <종교활동장소 등기증서>에 실어 후일의 조사에 대비하여 보존한다.

(二). 공안기간은 본 조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치안관리 위반행위는 성립되었으나 범죄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당사자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三). 사법기관은 본 조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규명하여 형사처벌로써 한다.

#### 十五. 당사자 行政復議(행정부의 제심) 신청에 대해

<관리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가 현급 이상 종교사무주관부문과 동급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받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부의 조례> 규정의 순서에 따라 바로 위인민정부 혹은 관련주관부문에 행정부의를 신청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 十六. 본 해석은 <관리법> 1992년 11월 2일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번역: 나현경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편집자 주: 이 글은 黑龍江省宗教活動場所管理辦法宣傳手冊(하얼빈시 민족종교사무국編印)을 번역한 것임.

## 민화로 본 오늘의 중국



(이 그림은 홍콩신문에 실렸던 것으로 달라진 중국인의 인삿말을 통해 변화된 중국사회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종교 자유와 규제의 이원화

최근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최근 중국교회 요청에 의한 첫 공식 선교사로 서울 연회동 혜명교회 김종구 전도사를 파송키로 결정했다(국민일보 93.5.1).

김 전도사는 6월초(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22일 출국) 부인 김미선 씨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1년 간 연수를 받은 후 중국 기독교협회 산하 애덕기금회(愛德基金會, Amity Foundation)에서 선교 동역자로 사역하게 된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드디어 중국에 종교의 문이 열렸다고 들뜬 가슴으로 얘기를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

김 전도사가 사역하게 될 애덕기금회는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우리는 한번 이 회에 대하여 냉철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애덕기금회는 1984년,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丁光訓 주교가 주석으로 선임되었다. 애덕기금회의 목적은 중국 내의 사회 복지와 교육사업을 위해 해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해외 교회와 선교 단체의 지원과 협력은 현실적으로 이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변함이 없으며 전술적인 측면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외에도 애덕기금회는 삼자회의 후원하에 중국 내에서 일할 외국인 교사들을 모집한다. 이 단체를 창설할 때 삼자회와 중국 기독교협회는 이 단체는 서양인들이 이전처럼 중국에 들어와서 전도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님을 이미 명백히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이 단체는 중국당국에 대해 전폭적으로 순응하여 그들의 통제를 흔쾌히 받아들인 기구로서, 서구의 원조에 관한 연결 통로라 할 수 있다.

이 단체의 창설 이래로 많은 서구인들이 그들 중 대부분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배경을 가진 자들인데 심지어는 로마카톨릭의 수녀도 포함되어 있다. 난징과 그 외 다른 중국의 도시로 들어가 교사로서 중국을 도왔다. 또한 중국의 다양한 보건 및 복지기금을 위한 돈이 이 기금회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다.

애덕기금회가 실행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업계획 중 하나는 성경 찬송 출판에 관한 것으로, 연합성서공회가 기증한 현대식 고속인쇄기의 도움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그리고 수재 기금 등에 대한 구제 사업을 해외교회의 도움으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기독교협의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협의를 통한 한국측의 중국선교사 파송은 중국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외국인에 의한 선교의 금기를 깨뜨린 것이며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국당국의 이런 조치의 이면

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첫째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삼자 원칙을 고수해온 중국교회가 합법적인 중국선교사를 허용했다는 것은 서방에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 숨어 있는 선교사를 색출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도 이처럼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 루트가 있으니 이와 같이 정식통로를 거쳐 들어오면서, 그 외의 중국내의 외국인에 의한 각종 선교사역에 대해 그것이 불법적인 일임을 국내외적으로 입증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결국 그들은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할 또 하나의 꼬투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최혜국 대우를 유지하고, 2000년의 올림픽의 유치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원활히 외국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변함이 없으며 전술적인 측면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중국의 통치자들이 교회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했던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중국 안에서 종교인을 핍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한국 문화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를 통해 중국선교에 대한 자제 요청 공문서를 여섯 차례나 보냈다. 중국정부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조선족 집중 선교 및 기독교화를 서구문화의 침투 내지 한국 정부의 배후 조정이라고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92년에 발표한 내부분서에서도 종교세력의 침투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다.

홍콩 CCRC(중국교회연구중심)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莫忘神州의 93년 1월호에 의하면 安徽省 남부 渦陽縣의 가정집회소를 공



안국이 폐쇄하고 백여 명의 신도를 감금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 신도들에게 벌금 400-500원(농민들의 반 년수입)을 내면 풀어 주겠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신도들이 벌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신도들의 집에 가서 신도가 기르던 가축, 동물 그리고 기타 돈이 될만한 물품을 가져다가 벌금을 대신했다고 전하고 있다.

莫忘神州的 5월호에 의하면 陝西省 구양현의 한 교회가 공안국의 습격을 받아 3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심한 구타와 고문 그리고 8일간 감금을 당했다고 한다. 공안원은 심지어 형제들의 옷을 벗겨서 하체를 노출시키기도 했으며 그 중 22세의 한 형제는 심한 구타로 내장이 파열되어 끝내 사망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안국은 90명의 신도를 감금했는데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가슴아픈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중국에 동북신학원을 조선인 목회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보도 역시 보는이로 하여금 중국에 종교의 문이 완전히 열린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외국 선교사를 환영한다면서 한편으론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신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규제하는 중국 당국의 종교정책의 양면성 즉 자유와 규제라는 이원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

여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중국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알아야 한다. 먼저 중국을 알고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정식통로이든 아니면 전문인으로 가서 조용히 전문인 선교를 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삼자를 통한 선교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먼저 알아야, 어느날 그들의 태도가 돌변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주님께서 열어 주신 문이 그 어떤 형태의 문이든지, 그것이 정식적이든 비정식적인 것이든 우리는 순종하며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다.

아무든지 우리는 분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명령을 좇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 특별히 이방인에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종교의 자유와 규제가 공존하는 중국을 알고 철저히 준비해서 선교에 임한다면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 올바른 분별법과 지혜가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을 알고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자.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 大馬站 가정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

懷 雅

---

편집자 주: 임헌고 목사와 그가 지도하는 大馬站 교회는 세계의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알려진' 가정교회이다. 三自교회로 등록하라는 당국의 끈질긴 핍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79년 이래 중국 기독교계의 정신적 지주로 버티고 있는 임헌고 목사와 그의 지도 아래 있는 大馬站 교회는 곳곳에 현 중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방향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임 목사의 개인의 간증은 본지 통권 12호, 대륙성도 간증란을 참고하시길 권한다.

---

## - 맛있는 음식과 버스 -

환전한 중국 화폐가 홍콩 달러 가치보다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함께 간 사람들이 처음 방문한 탓인지 몰라도, 나 스스로 안내하는 것에 자신있다고 여겼는데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차를 마실 때 디저트의 가격과 胃의 용량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부지불식중에 허비한 시간과 먹어 치운 음식이 홍콩에서 보다 이상하게 많았다.

아무튼 이번 여행단이 호텔의 유리문

을 젖히고 나와 줄지어 앉아 환전해 주는 아주머니들이 있는 거리 입구까지 걸어 오는 동안 사람들은 흥미진진해 하면서 호기심에 넘쳐 매우 기뻐하는 듯 했다. 상반신을 차창 밖으로 내민 버스 차장이 쉰 듯한 목소리로 “北京路·天河!”라고 고함칠 때, 우리들은 무리를 따라 버스 위로 떠밀려 올라갔다. 버스는 流花湖공원을 따라 가다가 東風西路 쪽으로 돌아섰는데, 東風西路에 들어서자 東風을 만나기는 커녕 때지은 차들 속에서 꿈쩍할 수도 없었다. 운 좋게도 우리 차의 기사는 특별히 재간을 부려 다른 차들을 제치고 吉祥路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吉祥路에서 廣衛路까지 가는 도중 버스는 계속해서 다른 버스나 택시 오토바이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기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냈으면 했지만, 기사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담배 연기만 깊이 들이키고 있었다. 廣衛路에서 기다시피 30여 분 간 후에야 비로소 北京路로 우회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난 속으로 기뻐했는데 대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즐거웠던 기색은 사라지고, 온 얼굴에 인상만 쓰고 있

었다. 이때 나는 “北京路에 내려요!”라고 소리쳤지만 버스차장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마치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여기 이렇게 승객이 좌석을 다 메웠고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서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 태우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北京路의 남쪽 방면에 우리 대원들이 차에서 내렸을 때는 비록 차내에서 50분 간 견디느라 기운을 상실한 감도 있었지만 모두다 北京路를 밟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 매우 큰 해방감을 느꼈고 기쁨도 더해 갔다.

### - 中山五路 35호 -

늘상 나는 中山五路를 통해 大馬站에 갔는데 오늘은 北京路의 남쪽방면에서 내렸기에 西湖路를 통해 大馬站 골목으로 들어가야 했다. 大馬站에 들어서자 좌측엔 부서진 낡은 집들이 넓게 차지하고 있었고, 우측의 낡고 작은 집들은 이상스럽게도 옛스러움을 드러내는 듯 했다. 나는 대원들에게 계단 오를 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함으로써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中山五路 35호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대신했다. 매번 광주에 왔을 때, 방문으로 혹은 지나칠 때, 아니면 여행시에 적지 않게 大馬站 가정교회를 갔었는데 이번 「광주 3일 여행」의 일정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행한 대원들 역시 해외에서 大馬站 가정교회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기에, 여행중에 직접 방문해 보기를 희망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자 大馬站 가정교회의 대표인 林獻羔 형제가 마침 서서 청년들과 사역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불청객인 우리들이 그들의 회의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내가 방문한 목적을 말하자 대원들은 곧 나무의자에 둘러 앉았고 林 형제가 그 개인의 신앙간증과 大馬站 교회의 역사를 진술할 때 내가 대원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 그들은 눈도 깜짝하

지 않고 귀기우려 경청하고 있었다. 한편 나는 이 시간이 林 형제의 점심식사 시간임을 알게 되었는데, 방금 2층을 올라올 때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났었고 林 형제와 우리들이 대화할 때 옆에서 기록하는 두 자매도 아랫층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방문시간을 잘못 택했음을 죄송스러워하면서, 무례히도 그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목사님, 먼저 식사하셔야 되잖아요?”라고 했다. 그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지내요”라고 한 뒤 아무렇지도 않는 듯 79년, 4명이 모여 집회할 때부터 얘기를 시작했다.

### - 놀랍게 이겨낸 핍박 -

최근의 교회 상황을 묻자 林 형제는 교회의 형제자매 및 동역자들이 4차례 당한 일을 얘기했다. 첫번째는 작년 10월 9일, 공안원이 한 동역자의 집을 수색하여 일만오천 권의 성경과 신앙서적을 몰수해 갔고, 그 동역자 역시 공안국에서 구류당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두번째 세번째, 당한 고통은 작년 12월 중순에 발생했는데, 몇십 명이 모인 집회를 인도하던 동역자 한 명에게 종교국 사람들이 「林獻羔에게 중독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문서까지 제시하여 경고했지만 그 동역자들의 태도는 완강하여 구속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자, 이를 지켜본 간부가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일을 마무리 지었다. 또 하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자매들이 大馬站교회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종교국이 그들의 숙소를 수색하여 세례받는 사진과 성경, 신분증을 가져갔다. 그 중 세 사람은 끌려가 신문을 받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석방됐다. 당시 왜 大馬站교회 집회에 가느냐고 물을 때, 한 자매는 “나는 大馬站교회에 나가서 생명의 변화를 받았다”고 대답하자 “넌 그것이 불법이란 것

## - 고난과 축복 -

담화중에 임 형제는 갑자기 나무상자 속에서 개인간증이 수록된 자료들을 꺼내어 대원들에게 사진과 녹음 테이프와 함께 주었는데, 우리 대원들을 감격케 했다. 임 형제는 사진첩에서 한 장의 흑백사진을 내게 주면서 “금년 2월 13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아크론 침례회 신학원 (Akron Baptist Bible College)에서 내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주어 참으로 황송하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다. 임 목사와 대원들이 大馬站교회 신도들의 관리와 세례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한 자매가 3층에 올라와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내실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걸렸다. 이미 너무 긴 시간 임 목사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았고 또 그의 식사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서 일어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저 무정하게도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대원들에게 마무리짓도록 알려야 할지 몰라, 대화의 구두점을 찾아 종결지으려 하자 임 목사는 강력하게 “기독교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인내로 고난을 참아야 하고, 더욱이 고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환영해야 한다. 고난 후에는 축복이 있다. 고난은 비록 두렵지만 지나고 나면 복이다. 고난을 받으면서 한편 기뻐하고 찬미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특별히 핍박을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화내용을 기록하는 두 자매가 식사를 마치고 3층에 올라 왔을 때 난 부득불 가이드 신분이었으므로, 조심스레 대원들에게 이제 그만 떠날 것을 권하고 임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청했다. 한 열성적인 대원은 필기도구와 종이를 정리하면서 얼굴엔 만족감이 가득했고, 다른 질문하길 좋아하는 대원은 계속해서 대답할 수 없음을 심히 유감스러워하는 모

을 아느냐!”라고 했고 그 자매는 구속될 굳은 각오로 “난 오늘밤 집에 돌아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 하나는 역시 작년 말 (林 형제가 며칠인지 잘 기억 못함) 발생한 것으로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 한 동역자가 있는데, 그 단체의 간부가 그녀가 大馬站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곧 그녀를 위협했다. 그리고 그녀의 하는 일을 강등시켜, 그녀에게 청량음료 등을 팔라고 시키면서 태도 역시 매우 포악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임 형제는 교회의 동역자 및 신도들이 표출해 낸 굳건한 신앙심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면서 말하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은 매우 강건하여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내가 만약 핍박이 더욱 많아지면 어떡하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문제 없고, 나 역시 제3차 구속 (1차, 2차는 55년과 58년에 구속된 것을 구분한 것임)당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55년 구속당하기 전 우리들은 3백 명 정도가 집회에 모였지만, 79년 다시 시작할 무렵엔 단지 4명뿐이었다. 하지만 90년 수색당하기 전에는 900명, 수색당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1,200명으로 증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결코 사람이 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겁을 주면 줄수록 신자는 더욱 늘어난다.”라고 했다. 우리 대원들은 사역자들이 참으로 놀랍게 이겨 낸 핍박의 얘기와 임 형제의 간증과 굳은 신념을 들으면서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숨이었지만 아무튼 모두다 헛된 걸음이 아니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임 형제가 굳이 1층 문앞까지 배웅하려 해서 나 역시 그를 막지 못했다. 우리가 大馬站 교회를 나와서 秀書院을 지나 작은 골목을 빠져나와 北京路의 군중 속으로 걸어갔다. 대원들은 본래 北京路에서 물건을 사려했으나 시간관계로 인해 곧 바로 烈士陵園으로 갔다. 30분 동안 시간에 쫓겨 대충 능원을 둘러보고, 葉劍英 기념비도 '알현'했다. 나는 심천으로 가는 5시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능원에서 택시를 탔다. 시계를 보니 아침 4시여서, 내심 기차역에서 대원들에게 "盲流"(직장을 찾아 도시로 무작정 모여드는 사람들:역자주)를 관찰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 - 교통난이 심각한 광주 -

기사가 烈士陵園의 中山三路를 출발한 뒤 30초도 되지 않아서 또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고, 조금 후 길이 뚫려 기사는 越秀北路를 지나 東風中路에 들어서려 했다. 난 기사에게 東風中路로는

가지 말자고 했으나, 그는 오히려 자신 만만하게 東風中路가 비교적 차가 덜 밀린다고 하면서 부득부득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과 마찬가지로 東風中路는 심각하게 차가 밀렸고, 기다시피 30분을 간 후 기사는 중산 기념관 옆의 吉祥路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난 반복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고 외쳤다. 마음엔 조급함이 불과 같이 일어났다. 기사는 우리가 5시 기차를 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오히려 길에서 만난 기사들에게 담소하는 여유까지 부렸다. 한 대원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당황스러워했고 다른 대원들은 기도했는데, 한 자매는 무슨 강심제를 맞았는지 시종일관 운명에 맡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가 탄 택시가 아직 應元路에 있고, 나의 조급했던 마음도 식었을 즈음 막 5분이 되어가던 손목의 시계바늘은 어느새 5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 수색당한 후 3년째(大馬站 교회의 핍박일지)

1992년, 우리는 더욱 많은 시련을 받

았다. 우리들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크고 넓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니 그의 이름이 찬양받아 마땅하다!

### 1. 끊이지 않는 시련

시련이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시련이 임할 때가 바로 우리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지나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 (1) 다섯번의 신문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근 한 달간 불려가 신문 받은 것이 모두 다섯 번인데,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한 달로 이처럼 철저하게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① 제1차 신문: 1992년 3월 17일, 오후 종교사무국에 불려내 신문했다. 내용은 「등록」과 「삼자」 등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는 우리들은 세금을 내고 구제하고 보안비를 내는 등에 관한 한, 정부입장에 따르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불신파들과 혼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광동성 44호 문서를 꺼내 우리더러 「등록」하라고 했지만 나는 「1991년 11월 4일 중국인민 백서와 헌법 모두가정교회가 등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고, 비록 백서에서 가정교회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신앙을 지닌 공민은 모두 종교활동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이는 가정교회 역시 합법적임을 설명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 근본으로 삼는데 만약... 우리들은 차라리 순교할 것이다. 정광훈은 일찍이 1990년에 「三自會」를 취소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은 「당신은 정광훈의 최근 발표내용을 본 적이 있소 없소?」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그의 주장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은 우리더러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다”라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거절하지 않았고 바울도 가말리엘 문하 출신이다”라고 했다(이것은 그 중 한 목사의 얘기다) 나는 “바리새파란 한 교파로서 모든 바리새인이 다 위선적인 것은 아니며, 예수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움을 책망하시고 바울 역시 본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했다. 그들이 또 말하길 “아브라함도 롯을 거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롯을 구했다”하자, 내가 “롯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만 욕신에 속한 자였을뿐이다”라고 했다.

② 제2차 신문: 1992년 3월 24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공안원이 나를 파출소로 불러 신문했는데, 마지막에 그들은 23일 밤 4명의 외국인이 가져 온 10꾸러미의 신앙서적에 관한 것을 물었고 곧바로 그들은 와서 모두 다(약 500근) 가져갔다.

③ 제3차 신문: 1992년 3월 28일 종교사무국에서 불려냈는데 역시 등록에 관한 일이었다.

그들은 “금년이나 내년에 종교대법이 나올텐데, 그때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또 “헌법과 백서에는 등록에 관해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가정집회는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하자. 그들은 “가정집회란 한 가정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전세계의 가정집회가 모두 한 가정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집회 역시 한 가정이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집회했는데 거기에 한 가정뿐이었던가? 나는 순교할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들은 “삼자회는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다. 나는 “우리는 이미 우리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이나 외부의 어떤 사

람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다. 난 어느 목사는 말하길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라고 했다.

그들은 “당신이 들은 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또 “우리가 기록들을 조사해 보니” 당신이 우파분자라고 하지 않았던데, 그것은 ‘南方日報’에서 실수한 것 같다”라고 했다.

나는 “내가 우파분자로 불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반혁명분자로 구속 되었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은 아마도 문혁시대에 잘못된 것이지” 하면서 그들은 또 “당신이 정책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제국주의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으로 제국주의가 초기에는 종교를 빌려 중국에 침투 되었다.”라고 했다.

나는 “우리는 제국주의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으니, 이제 우리 그만 제국주의가 이전에 종교를 이용한 것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 그것은 과거의 일로서, 문혁의 착오를 오늘의 일로 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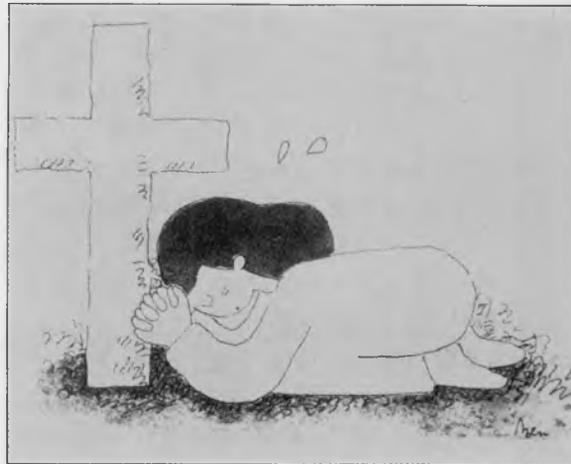
④ 제4차 신문: 1992년 4월 3일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종교사무처에서 7명과 담화했는데 등록하여 삼자의 지휘에 맡길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니 처리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길 “50년대에 너희들은 등록했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나는 “그 당시 우리는 교회로 등록한 것이 삼자에 참가하진 않았다.” 라고 말했고, 그들은 “해외에서 몰래 성경을 운송한다던데...”라고 했다.

나는 “성경은 세금이 필요없는 것인데 어째서 밀수가 되는가? 기타 과학기술서적은 금하지 않으면서 단지 전도용 서적만 금지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더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라

고 하자 그들은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지 마라 당신 역시 왜 헌법과 백서를 들어 얘기하지 않는가? 그것은 大法으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문서화한 것이며, 각성에도 제정이 있지 않은가?” 라고 했다.

나는 “성경은 최고의 표준으로 등록하는 것과 등록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헌법과 백서엔 이에 관한 내용이 조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장승원 그림

⑤ 제5차 신문: 1992년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종교 사무국에 불러내어 등록에 관한 일을 다시 신문했다. 그들은 中央문서를 내게 읽어주었다.

나는 “정광훈도 돌아다니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자 그들은 “아니다”라고 했고, 나는 “어느 집회에 사람을 보내 간섭했다는데 그것은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니 그들은 “그것은 다만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나는 “어느 예배당이 50원을 원조 받는것도 간부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더라.”라고 하자

그들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제시한 지금 이 문제는 매우 훌륭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또 말할길 “台城 교회에서 가족 계획을 설교했다던데”라고 하자 그들은 “그것은 아마 설교중의 비유였을 것이다.”라고 했고, 나는 “그것은 설교 주제였고 회중들이 떠들썩했다”라고 했다.

그들은 “당신이 삼자에 참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록만 해라, 삼자가 지도하는 것은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나는 “우리는 이미 우리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2) 4월 10일 후 다시는 불려가 신문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각 신도들을 불러 大馬站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3) 1992년 10월 19일, 동역자의 집이 수색당하고 1만5천여 권의 성경과 신앙서적을 압수당했다.

(4) 1992년 12월 6일, 오후 3시, 어느 공장의 많은 직공들이 수색당했다. 그녀들이 늘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인데 세례받는 사진과 신분증까지 모두 압수해 갔다. 그 중 세 명은 불려가 신문 받았는데 그들더러 大馬站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자, 한 자매는 “나는 집회에 가서 생명이 변화 받았다.”라고 하자 그들은 “넌 그것이 불법인 것을 아느냐?”라고 했고 그녀는 “난 오늘밤 집에 돌아가지 않을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했다.

## 2. 각국 많은 이들의 방문

수색 당한 후 3년(36개월) 동안 미국 침례회 잡지 기자 Rev. Martha Cruz Griffith를 필두로, 1993년 2월 13일 미국 Woody Hoskins가 아크론 침례회 성경학원의 명예신학박사로 학위를 임목사에게 수여하기 위해 방문하기까지 36명의 기자가 방문했고 적지 않은 국내

외 목사, 신도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우릴 위해 기도해 주었다.

## 3. 기타

### (1) 우리 집회의 상황

\* 92년 5월 29일 제53차 세례집회 모두 54명

\* 7월 24일 제54차 세례집회 모두 47명

\* 8월 28일 제55차 세례집회 모두 48명

\* 9월 25일 제56차 세례집회 모두 70명

\* 10월 29일 제57차 세례집회 모두 54명을 한 해 동안 5차례의 세례집회로 모두 273명이 세례받음

\* 12월 17일 복음전도 집회. 약 400여명 참석. 많은 사람이 믿기로 결심함.

이전엔 매년 집회 때마다 3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으나 1992년 6월 10일부터 뒷채의 2층 대부분을 빌려쓰게 되어, 집회 때 350명에서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大馬站 35호는 앞채와 뒷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채의 아랫층과 뒷채는 문혁기간 동안 점령당했던 곳으로 오늘날까지 회수할 수 있는 수속절차가 해결되지 않았다. 大馬站 서쪽은 1988년 5월부터 철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양옆까지 철거되었고 현재는 잠시 철거를 멈추고 있다. 하지만 뒷채의 집주인이 이사갔기에 방이 비어있어 우리는 본래 세를 얻어 쓰려고 했는데 당국에서 우리에게 빌려쓰도록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욱 많은 장소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 (2) 최근 나의 건강 상태

1991년 12월 25일 뇌동맥 경화증을 앓은 후 부터 매일 아침 정신이 맑지 못하고 자꾸 자고만 싶더니 1992년 3월 초부터는 매일 머리가 심히 아프다. 하지만 설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7월 29일



장승원 그림

등의 오른편 상반부 뼈가 아프다. 물건을 들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통증이 매우 심하다. 12월 1일 화요일 아침 집회 때 나는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목소리까지 변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10분 간 쉬었다가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전혀 어지럽지 않았던 것 같았다. 주께 감사한다. 사도요한은 강대상에서 쓰러져 별세하지 않았던가! 12월 14일 오후 내내 머리 통증. 1993년 1월 12일 화요일 아침 집회 전 두통, 복통, 목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많이 나왔으나 설교는 괜찮았고, 오후에 다시 가슴이 답답해 왔다. 1월 13일 목이 몹시 아파 병원에 갔다가 가슴촬영 후 심장이 동맥경화여서 뇌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 비록 목에 염증은 있지만 성대는 정상이었다. 의사는 나 혼자선 절대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월 14일 극도의 피로, 조금의 기력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1달 동안 머리가 매우 맑고 각 방면 모두 별로 아프진 않았다.

### (3) 두 차례의 화재 위험

1992년 5월 7일 두꺼비집의 전선이 불에 탔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화재가 발생할 뻔 했다. 8월 5일 35호 뒷채의 2층 나무계단에 붙이났다. (우리는 뒷채의 2층을 빌려쓰고 있고 3층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음) 재빨리 응급구조를 했기에 우리는 화재를 면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오묘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 4. 시간을 내어 집필한 신앙에 관한 소책자

1992년 5월 29일 '蒙頭問題' 집필

8월 25일 '方舟와 洪水' 집필

12월 6일 '神愛世人' 집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께 감사한다.

다윗은 말하길 “고난을 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라고 했다. 1955년 매주일 집회 때 400명을 넘지 못했는데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온 후 4명으로 출발해서, 900여 명이 되었고(3부 예배로 나눔), 1992년 수색당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1,100여 명을 넘었다(4부 예배로 나눔). 그리고 청년들이 수색당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인내로 참아내야 하고, 더욱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릴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林獻羔

1993년 2월 22일

(『中國與教會』 95기 중에서)

번역 / 서말봉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교육기

陳崇桂(1884~1964) 호북성(湖北省) 형주현(荊州縣)

번역: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陳崇桂(1884~1964) 목사는 청말민초(清末民初)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한 신학교육가였다. 민초시기 이래로 40여 년 간을 계속하여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성경학교와 신학원을 주관하였고, 수많은 교회성직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신학교육에 전심하는 것 이외에도 전도와 창작에 재능이 있었다. 그가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임으로 그는 기독교계에서 선배이자 지도자로 공인되어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년에 그는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대하여 잘못 알고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도적의 배에 잘못 타서 이용당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고 환경이 나쁘고 열세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공산정권이 종교와 신앙을 모욕하였다고 비난하다가 고소를 당해 축출되어 결국에는 중경(重慶)에서 늙어 죽게 되었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시기는 사도 베드로의 유평(遺風)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다할 수 없는 애석함과 경외감을 갖게 해준다.

陳崇桂는 별도로 서방 교회 인사들에게 불리워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陳馬可(Marcus Cheng)이다. 광서 10년(1884)에 그는 호북성(湖北省) 형주현(荊州縣)에서 태어나 6살 때(1890)에 계몽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회에서 주관하는 학교에 들어가 공부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40년 후에 쓴 그의 영문자전(英文自傳)에 의하면 당시에는 삼자경(三字經: 글을 처음 배우는 아동에게 글자를 깨우치기 위해 사용했던 세글자로 된 단어를 모아 엮은 책 宋나라 王應麟이 지었다 함)과 四書인 詩經, 書經, 易經을 배우는 것 외에도 신약의 4복음서와 구약의 잠언, 시편을 배웠고 선교사 선생님 지도하에 영어, 수학, 지리, 서양사를 배웠다. 이러한 지식들을 배우는 것 이외에도 매일 학교의 예배에 참가하였으니, 성경 속에 담겨진 말씀이 일찍부터 그의 어린 마음밭에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광서 26년(1900), 그가 16세 되던 해 정식으로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고 20세 되던 해에는 武昌博文書院(Wesley College and

High School)을 졸업하였다. 이 학교는 박문서원계의 基督教英國循道會(Wesleyan Methodist Missionary Society)의 선교사 W.A.T. Barber 목사에 의하여 광서 11년(1885)에 창립된 것으로 당시 무창에서 영어 인재의 훈련으로 유명하던 학교였다. 그곳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연구하는가 태반이 외국인과 관계가 있는 기관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우체국, 해관(海關), 양행(洋行) 등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 좋은 출세길이었다. 陳崇桂는 교회의 생활보조금 후원을 받아 입학하여 공부했다.

陳崇桂가 博文書院에서 공부하던 2학년 때 교회의 목사가 그의 동의도 얻지 않고 교회회의에서 표결을 제의하여 그를 성경학교에 전학시켜 공부하도록 하여 나중에 전도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준비시키려고 하였다. 사전에 동의도 얻지 않고 바로 결정한 것은 그의 강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러한 처분을 받아들일기를 거부하고 뜻을 세워 계속 博文書院에서 공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도 마음 속으로 장래에 우체국이나 해관, 양행 등에 직업을 가지기 보다는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교회에서는 陳이 그들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본래 가난하여 생활보조금을 낼 형편이 아닌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하여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陳은 본성이 고집이 세어서 이러한 이유로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학업을 마쳤다. 졸업한 후에 그는 우체국이나 양행 등의 월급 많은 직업을 버리고 성경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직업을 택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 번 그의 고집 센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서양인들의 정신적인 압력 혹은 금전적인 힘에 의하여 억지로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陳崇桂는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가 시간에는 자주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회고하며 말하기를 “그 당시의

전도는 엉망이었다. 이곳저곳에서 끌어다 붙인, 老子, 莊子, 飲水室文集, 東萊博議 등의 자료에서 강론할 자료들을 끌어오기도 했고, 英文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는데 오로지 그 목적은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강론하는 내용은 언제나 그 겉모습은 金, 玉처럼 빛나고 아름다웠지만 그 내용은 형크러진 실습옷 같아서 청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나서 사람을 크게 감동시키는 힘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

광서 32년(1906) 10월 무창(武昌)교회는 李叔靑이라는 의사에게 와서 3일 동안 설교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했다. 陳은 성경학교 선생님인 까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의를 귀기울여 들었다. 李 의사는 소주(蘇州)사람으로 표준어(國語)를 할 줄 몰랐다. 억양은 호북(湖北)사람들에게서나 들어본 것으로 마치 이제 막 1,2년 표준어를 배운 외국인이 말하는 어투 같았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아주 어려웠다. 하지만 李 의사가 설교한 내용은 3일 동안 늘 반복하여 하나의 사실만을 전한 것으로서, 즉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에 있어 그로 하여금 주가 되고 왕이 되게 하라”는 주제를 떠나지 않았다. 도리는 조금도 신기한 점이 없어서 학생들 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적었다. 그러나, 陳崇桂는 李 의사가 그에게 없던 평정, 안온(安隱) 그리고 기쁨이 있다고 느끼고 3일 간의 모임이 끝나고 난 후에 특별히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李의사는 그에게 신약의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권면하였다. 陳崇桂는 돌아간 후에 스스로 신기한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맛보았다. 이로부터 그의 일생의 길이 바뀌게 된 것이다.

陳崇桂는 회개하고 거듭난 신앙의 체험을 겪은 후부터, 설교에 능력이 있다고 느꼈고 성경을 읽는 것에도 아주 흥미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英文을 가르치는 직업을 버리고 오로지 전도목사의 일을 하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집안 부모님의 반대를 받았다. 당시 그의 가정경제는 여전히 곤란하였고, 더욱이 자신에게 있는 빛도 아직 갹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지고 있는 가계는 무거웠다.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한 끝에 다음 해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광서 33년(1907)의 겨울 방학 때 계속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전도 목사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결정하려는 순간에도 그는 시종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그 형제가 漢口에서 사온 '믿음의 위인' 죠지 뮐러 (George Mujler)라는 전기를 읽고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가 전심으로 전도의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Sweden Mission의 선교회 책임자로 중국에 온 Dr. p. Waldenstrom을 환영하는 모임에서 그가 치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淸나라 말엽에 교회 선배인 席勝魔 목사의 영문으로 된 傳記 중에서 한 폭의 그림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그 그림은 하나의 검은 색깔로 된 중국지도로서 지도 위에는 가로 세로가 모두 1평방 센티미터씩 선이 그어져 있었다. 지도 전체 중에서 단지 조그마한 면적 만이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기독교 신도의 숫자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면적은 중국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색을 비교해 볼 때 검은 색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어울리지 않았고 대신 일종의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고 했다. 陳崇桂는 맺음 말을 할 때 "들의 곡식은 이미 익었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속히 신학원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야기 중에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말미암아 참석한 교회 인사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중 Dr. P. Waldenstrom 목사는 더욱 감동하여 陳이 계속해서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신학원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2년 후(1909)에 行道會는 정식으로 湖北 荊州에 신학원을 설립하였다. 陳崇桂는 그곳에서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신혼의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가겠다고 기뻐 말했다. 처음에 그는 그 신학원에서 약 16년 동안 英才들을 기르는 일을 했다.

陳崇桂 목사는 湖北 荊州 神學院 開校 공로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시기를 그의 자서전을 근거로 말하기를 " 해가 뜨기 전에는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고, 날이 다 밝았을 때는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불러 아침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 모든 학생들이 휴식하고 난 후에는 순찰하러 학교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와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익혔다. 매주 약 30-40시간의 수업과정이 있었다. 그 밖에 학생들의 식사도 관리해야 하였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해야 했다. ... "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학교의 교무 행정 두 가지는 아주 수고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陳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가르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여기려 하였다. 그는 과거의 세월 중에서 지식을 배울 시기를 많이 놓쳤던 것을 거울로 삼았다. 그는 이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방식으로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여 다듬고, 이로온 것은 얻고, 천박한 것은 버렸다. 그가 신학 방면에서 아주 심오하고 조예가 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荊州神學院에서의 기간(1909-1924)중에 약 2년(1920-1922) 동안 陳崇桂 목사는 잠시 학교를 떠나 멀리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휘튼 대학(Wheaton College)에서 연수하며 학문의 깊은 경지를 성취하였다. 2년 간 계

속하여 그는 성경, 신학, 어문학 등의 여러  
방면에서 지식을 쌓았고, 이것은 그가 귀국  
후에 교육방면에서 더욱 전문적인 신학  
교육가가 되게 하였다.

민국 14년(1925), 陳崇桂는 湖北 荊州  
神學院을 떠나 당시에 '基督將軍'이라 불리  
던 빙옥상(憑玉祥)의 요청에 응하여 북쪽의  
張家口로 가서 빙 선생 계열의 군대에서 軍  
牧의 직무를 맡았다. 빙옥상은 진승계와 언  
제든지 토론을 주고 받으며 서로 깊고 얇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러  
한 것은 陳崇桂의 저서 「四十年來」의 영문  
자서전 중에 언급되어 있다. "빙 선생의 군  
대 중에는 오로지 기독교의 복음 사역을만  
하는 조직이 있었다. 나는 이 조직의 총간  
사의 일을 맡았는데 그 때 나에게서 이 복  
음 사역을 할 50명의 동료부하들이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었다." 陳崇桂가 군대의 선교사업  
을 이끌고 있을 때에는 매주 일요일이 되면 陳  
崇桂 목사가 가서 관리와 병사들에게 기독  
교의 교의를 널리 말하였다. 또한 輪旋講  
演會를 조직하여 사병들에게도 전도를 하였  
다. 더구나 군대 내에 「基督青年會」를 만  
들어 종교생활을 하도록 제창했다. 그리하여  
빙옥상 계열의 군대 중에는 종교를 믿고 세  
례를 받는 사람이 날로날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박애, 회생, 단결, 봉사 등의 여러  
가지 종교정신의 효력이 점점 전군대에 보  
편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전국의 군  
대 중에서 '모범군대'라는 명예를 널리 받  
게 되었다. 그리고 빙옥상의 군대의 심령과  
생활을 깨끗게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陳崇桂 등이 2년 여 동안 전개했던 그  
러한 사업들이 아주 성과가 있었고 공헌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겠다.

불행히도 민국 14년(1925) 말에 태(泰),  
직(直) 두 계열과 빙옥상 계열 사이에 전쟁  
이 터졌고, 그 다음해(1926)에 이르러서는  
빙옥상의 군대가 점차 패하여 퇴각했고 빙  
옥상은 러시아로 떠나갔다. 陳崇桂도 빙옥  
상의 부대를 떠나 내몽고(內蒙古)의 조그마

한 진(鎭)으로 도망하여 그 진에서 약 100  
일 정도 숨어 지냈다.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문득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우연히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있으면 종이  
에 기록하였다. 이것은 후에 정리보충하여  
「靈修日新」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많  
은 신도들의 칭찬을 받아 일찍이 여러 번  
재판되었다. 그때 경우는 어렵고 곤란할 때  
에 우연히 생각난 글을 썼던 것인데 이것을

**또한 輪旋講演會를 조직하여 사병들에게도  
전도를 하였다. 더구나 군대 내에 「基督青  
年會」를 만들어 종교생활을 하도록 제창했  
다.**

통하여 그는 자신이 문장을 잘쓰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에 그는 이러한 방면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  
여 글쓰는 일과 번역하는 일, 편집하는 일  
등에 종사하였다. 그는 모두 약 40여 종에  
달하는 저작들을 출판하여 많은 교회 신도  
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다. 그 중 아  
주 저명한 것은 위에서 말한 「靈修日新」 밖  
에도 「基督與我」, 「各樣的安慰」, 「惟獨耶  
穌」, 「神的應許」, 「個人佈道的研究」 등과  
영문 저작인 「四十年來」(After forty  
Years), 「熾烈之燈」(Lamp Aflame) 등과  
같은 책들이 있다. 그 밖에 그는 또한 「佈  
道雜誌」(月刊)를 주관하여 펴냈다. 이 잡지  
는 민국 16년(1927) 출간된 이래로 민국  
28년(1939) 전쟁으로 인해 정간(停刊)될 때  
까지 모두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판되었  
고, 국내외로 판매하면서 많은 독자를 확보  
하였다. 이것은 당시 교계의 얼마 안되는  
특출한 잡지 중의 하나였다.

그는 빙옥상의 군부대를 떠난 후에 우여  
곡절 끝에 상해로 와서 行道會의 순회 전도  
목사의 신분으로 중국내의 전도와 문서 사  
역에 종사하였다. 민국 18년(1929), 陳  
崇桂는 여전히 行道會의 순회 전도 목사

의 신분으로 전중국 교계의 대표로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선교회의 (World Missionary Conference Jerusalem 1929)에 참석하도록 선출되었다. 그는 먼저 성지(聖地)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에 두번째로 그는 Sweden Mission의 母會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을 갔다가 귀국했다.

**이 학교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중국인과 서양 선교사들이 친밀하고도 강한 믿음으로 협력사역을 했음을 나타내 주는 신학교였다. 개교한 이래로 陳崇桂의 주도하에 무수한 목사인재들을 배출해 내어 대후방의 교회에 공급하는 데, 불후의 공헌을 하였다.**

민국 18년 (1929), 귀국한 후에 그는 곧 상해에서 湖南의 長沙로 가서 湖南聖經神學院(Hunan Bible Institute)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그 신학원에서 모두 9년 (1929-1937) 동안 가르쳤다. 가르치는 기간에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지방의 요청에 응하여 각지로 가서 전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전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고 또한 전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전쟁에 항거하고 군이 일어났던 때(1937)에 곳곳이 불길에 치솟았으며 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다. 陳崇桂는 마침내 贛, 鄂, 湘 3성 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하여 전도와 부흥사역을 하여 피로운 전쟁에서 신도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해(1938) 內地會(Chinese Inland Mission)의 華福蘭 주교 (Bishop Houghton)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을 이끌고 四川으로 왔다. 사천 동쪽에 가정을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나서 그는 다시 大後方의 西南지역 各省(四川, 雲南, 貴州)으로 가서 전도, 부흥 사역을 하였다.

민국 30년 (1941), 陳崇桂는 다시 싱가포르 교회의 요청에 응하여 그쪽으로 전도하러 갔다. 그가 싱가포르로 출발한 지 4일 후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여

전면적인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신속히 말레이시아 반도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자 陳崇桂는 귀국할 방법이 없어서 싱가포르에서 약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 체류하는 시간은 비록 힘들었지만 거의 휴식기간이나 다름없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많은 서적을 저술했으니, 이것은 그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에 구애되지 않고 부지런히 분발하고 충성하는 목사임을 충분히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민국 32년 (1943), 陳崇桂 목사는 태국 등을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貴陽에 있을 때 華福蘭 주교의 요청으로 친히 나가 신학원을 건립하도록 부탁받았다. 重慶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陳崇桂는 그 일을 받아들였다. 그는 內地會와 합작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 해 9월에 重慶에 重慶神學院(Chungking Theological Seminary)을 열었다. 이 신학원의 주요 목적은 서북, 서남 지역의 전도 목사를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그 두 교회의 필요에 의해 9월에 개원한 이래 17개 省으로부터 50명의 학생들이 왔고 약 10명의 중국인과 서양의 교사들이 있었다. 이 학교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중국인과 서양 선교사들이 친밀하고도 강한 믿음으로 협력사역을 했음을 나타내 주는 신학교였다. 개교한 이래로 陳崇桂의 주도하에 무수한 목사인재들을 배출해 내어 대후방의 교회에 공급하는 데, 불후의 공헌을 하였다.

민국 38년 (1949), 대륙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는 부인과 같이 구미를 방문하고 그 해 가을에 돌아왔다. 이 때는 정국이 어지러웠고 중국의 공산당은 이미 점점 대륙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홍콩에 갔을 때 홍콩에서 전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제자들과 옛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를 기독교에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잠시 홍콩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러나 陳崇桂는 이 때 이미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에 대해 여러 가

지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확실히 알지도 못했었다. 그는 趙君影 목사에게 말하기를 “공산당은 애국분자입니다. 그들이 타도하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이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 그들이 이러한 목적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은 자연히 반종교의 구호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당은 중국인을 제일로 하고 이데올로기는 그 다음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얼마 되지 않아 陳崇桂는 그를 방문하러 온 기자에게, 시국과 중국 내 교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그가 공산주의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걱정스럽게도 잘못 알고 있으며 공산주의의 병폐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재차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분명 도태(淘汰)된 것이고 단지 앉아서 온을 달구고 있는 때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앞의 경제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꺾어야 할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교회의 앞날이 “힘난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고난과 꺾박이 있을 것이며 … 그러나 다만 농사나 지으면서 전진한다면 절대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인정했다.

홍콩에 있던 제자들과 옛친구들은 그가 대륙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陳崇桂 목사 부부는 이렇게 스스로 그물에 뛰어들어 重慶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그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최후에는 비록 큰 꿈에서 깨어났지만 이미 후회해도 늦어버렸던 것이다.

陳崇桂가 대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중국 공산당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통일전선 음모를 전개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손에 넣었다. 1949년 9월에 소위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기독교 대표들 중의 많은 이들이 요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吳耀宗, 鄧裕志, 劉良模, 趙紫宸, 陸志韋, 吳胎芳, 沈體蘭 등이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소위 ‘共同綱領’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강령 중에는 소위 ‘종교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있었으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조약문 배후에 있을 그림자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담화를 발표하여 더욱 찬양하였던 것이다. 스스로 西南地區 교회의 지도자가 된 陳崇桂도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초청되어 회의에 출석해야 하지만 자신이 해외에 있어서 요청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귀국한 후에 그는 정식으로 ‘政協’의 대표로서 이름이 올랐고 그 후 회의 때마다 출석하였던 것이다.

1950년이 되자, 상해지구와 북경지구의 교회대표 21인은 북경에 모여 중공당국과 아직 처리하지 못한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바가 있어 周恩來를 만나러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재차 이용을 당하였다. 대표들은 ‘정치 밖의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지 않고 제국주의를 숙청해야 한다.’고 원했다. 또한 ‘종교를 믿는 것과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은 공동강령하에서 장기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표들은 다시 起草會를 준비하여 결과의 문건을 상의하고 수정을 거친 후에 뜻을 같이하는 40명의 사람을 모아 선언의 발기인이 되었다. 1950년 9월 23일 이러한 소위 ‘중국기독교계선언(中國基督教界宣言)’에서 중국의 기독교는 신중국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정식으로 대형신문에 발표하였다. 陳崇桂는 이 40명의 발기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10월, 상해에서는 중화기독교협진회(中華基督教協進會) 제14차 연례회의를 열었다. 이 협진회는 전국 기독교 각 종파를 망라한 최고 연합조직이었다. 연례회의 중에서 친공산당의 新派는 정치 외의 문제에 초연하려 하는 舊派와 격렬한 논쟁을 벌여 결국 공산당의 압력하에 선언을 통과시키고 협진회의 인사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陳崇桂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집행위원으로 뽑혔고 수령에 한발 더 깊이 빠져 들어갔다.

뒤에 중공 당국은 교회에게 압력을 가하여 ‘항미원조운동(抗美援朝運動)’과 ‘미국

의 보조를 받은 기독교 단체를 처리하는 회의'를 받기하도록 사주했다. 후자는 1951년 4월 중순에 거행되었고 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기독교의 새로운 지도기구인 중국기독교항미원조삼자혁신운동위원회주비위원회(基督教抗美援朝三自革新運動委員會籌備委員會)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전국 기독교를 하나로 지도하고 '애국운동'과 '혁신운동'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1952년에 이르러서는 중공당국의 의도하에 주위원회(籌委員會)의 주석으로 吳耀宗이, 陳崇桂 등의 4명은 부주석이 되었다. 그 외에도 20명의 위원이 있었다. 2년 후(1954) 7월 하순에는 '삼자운동주위원회(三自運動籌委員會)'를 북경에서 열어 각 교회 대표 232명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吳耀宗 등 35인을 주석단(主席團)으로 선출하였는데, 陳崇桂도 그 주석단 명단에 있었다. 그리고 회의는 중국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장차 이 '삼자위원회(三自委員會)'가 정식으로 각 교회를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정식 '삼자위원회(三自委員會)'는 139명의 출임위원(出任委員)을 뽑고, 그 가운데서 다시 42명의 상무위원(常務委員)과 6명의 부주석, 1명의 주석을 뽑았다. 陳崇桂는 6명 부주석 중 한 사람으로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중공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陳崇桂는 대륙으로 돌아온 후 계속 중공의 이용을 당하였지만 자신은 몰랐다.

중공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했고, 또 중공에 대해 환상을 지녔던 진승계는 대륙에 돌아온 이후, 줄곧 중공에 의해 이용당했으나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빠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다년간에 걸쳐 발표한 공산사상과 타협한 그의 글들은 이미 상당 수에 달했다. 52년 1월 19일 간행된 「天風」지에 게

재된 「나의 정치사상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라는 글은 그의 대표작이랄 만한 글로,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오직 마르크스 레닌 및 혁명적 과학만이 인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도구라고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열렬히 공산주의를 사랑하며, 공산주의의 교훈을 받아들이노라고 마음으로부터 말하고자 한다.”

비록 진승계가 공산당에 경도됨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도 역시 중국에는 깨닫게 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보아온 중국당국의 교회에 대한 박해와 교회의 오염된 상황은 마침내 그의 본래의 밝은 이성을 드러내게 해주었다.

그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그가 과거에 줄곧 환상을 지녀왔던 공산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957년 3월 19일, 북경에서 열린 제8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어떤 철교낙성식에서 한 고위관리가 연설하면서 ‘이 철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소위 하나님의 숨씨가 아니다.’라고 한 후 곧이어 말하기를 ‘너희 기독교인들, 너희 하나님을 거름더미에나 빨리 던져버려라’라고 했다. 이렇듯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안목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보다 더욱 두려운 일이다. 이것은 비평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모욕이다.”

진승계의 이 말은 자연 그의 지위를 위협하여, 그 해 말 비판받고 고소당한 끝에 축출되었다. 얼마 후 그는 중경으로 돌아와 몇 년을 살다 중경에서 죽었다. 이 때가 향년 80세였다. 그의 일생은 종합한다면 일개 목사라기보다는 전도자, 문서선교사역자, 신학교육자를 합친 인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 문장표현도 아주 탁월하였다. 비록 그가 만년에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제때에 회개하여 중국교회의 베드로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기독교인물사전-상권」, 中에서)

## 크리스천이 되기까지

무 명

### 부모님이 단죄되다.

나의 간증은 부모님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아버지가 국민당에서 일하였으므로, 공산당은 그를 탄광에서의 거칠은 노동으로 내몰았다. 죽도록 일했지만 오히려 먹을 것조차 없었다. 굶주림과 억울함으로 몸은 나날이 쇠약해갔다. 사실 아버지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공산당은 그가 국민당에서 일했다는 사실로 아버지에게 '반혁명분자'나 '우파분자'나 하는 두 개의 모자를 씌웠던 것이다. 1966년 부친은 세상을 떠났다.

내 어머니 또한 지식인이었고, 성실한 지도자였다. 공산화되던 그해에 아버지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부모님은 어떠한 것도 향유해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반혁명, 우파분자로 낙인 찍히고 난 뒤 공산당은 계속 어머니를 핍박하여 아버지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

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았었고, 어머니는 도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지라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점 때문에 공산당은 계속적으로 어머니를 핍박하였고, 문화대혁명시기에는 그녀에게도 '반혁명분자'라는 모자가 씌워졌다.

### 어린시절

내가 세 살이었고 오빠가 일곱 살이었던 그 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 혼자 힘으로 우리 두 남매를 맡아 길러야만 했다. 1966년 문화대혁명 때 정부는 어머니의 공직을 박탈했고 동시에 농촌으로 보내어 노동개조를 받게 했다. 그 당시 나는 나이가 어렸고, 국민학교 초급과정을 공부한 정도여서 상급반이나 중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농업에 종사하게끔 배치되었다.

나와 오빠는 어려서부터

압박과 배척 멸시받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놀 때도 그들은 나를 속이고, 걸핏하면 반혁명분자 가족으로 내몰았다. 오빠가 국민학교 초급과정을 마친 후 학교에서는 상급반(5,6학년 과정) 진학을 허용치 않았다. 학교측은 우리 집안의 내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黑仔子'라는 욕을 들었고, 어린 시절의 생활은 어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 일종의 반항과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 생활의 변화

1969년 나는 열세 살이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농촌으로 가서 10년 동안 노동하였고 공부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기간 중 개혁이 일어나 정부는 부모님의 명예회복을 시켜 주었다. 아버지가 명예회복되고 반혁명분자라는

모자는 벗겨졌지만,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명예회복 후 공직에 복직하여 경제적으로도 얼마간의 수입이 있게 되었다. 우리들도 농촌에서 노동할 때 급여가 없었으므로 노동의 산물에만 의존하였고 실로 배부르게 먹어보질 못하였다. 더구나 우리들은 큰 노동력이 되지 못하였고 어머니 역시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데다가 몸도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다. 폐결핵을 앓아 한번은 객혈하여 쓰러져 장기간 생사의 선을 넘나들었다.

그때는 사나흘을 넘기지 못할 것만 같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를 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때 우리는 돈도 없었고, 약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물도 없었다. 또 다른 사람의 돌봄도 없었던 터였다. 생활의 짐은 그렇게 무거웠고 우리의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였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깨어났는데 지금 어머니의 건강도 13년 전에 비해 훨씬 좋다.

어머니가 명예회복되어 공직에 복직한 때는 내 나이가 이미 이십을 넘어서였고 아직 중학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 때 나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머니의 복직 후 나는 어머니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반년 후 시험에 응시하여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이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다.

이십여 세에 나는 심리적 으로 이미 굳어져, 생활에 어떤 전기가 있어도 어려서 부터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특히 인성의 나쁜 방면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사람들의 잔인한 대우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충동과 거리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과 사립에 있어서도 늘 방어적인 태세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비나 사랑이니 하는 것은 없었다. 내 자신의 개성이 강했고 환경은 호전되었지만, 마음 속은 여전히 번뇌와 공허로 가득찼다. 종일 머리 속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능멸하였던가 하는 생각이 떠

나지 않았다.

중학교 졸업 후, 모교에 남아 가르쳤고 후에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일종의 강렬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인생은 공허한 것이라 여겼다.

이 시기, 나는 오로지 힘을 다해 분투하였고 공부하였다.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 원한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마침 이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으로 사랑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어슴프레 초자연적인 역량을 지닌 주재자가 있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나는 중국의 고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天을 알고 있었으며 天命을 중요시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만약 공평하다면 왜 나로 고통을 겪게 했으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후, 환경에 변화가 생기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과, 사람은 고진감래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악하는 자는 비록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마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 가는 것 같지만, 뒤에는 결국

보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므로 의인이 잠시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지라도 역사는 결국 그의 선과 의를 인정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문과의 선생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마음 속으로 확신해 오던 것과 완전히 일치했으므로 아무런 거부감없이 주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어슴푸레 믿고 있었고 어떠한 체계적인 양육도 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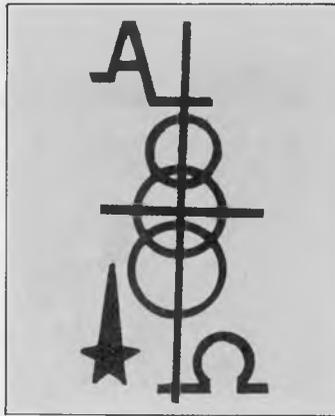
### 영적성장

一. 은혜의 하나님을 알다 -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이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은 평안과 화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은 악하고 인간 역시 악하며 항상 나를 해친다고 알고 있었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몰랐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을 뿐 인간 본성의 죄악성을 말하지 않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는 곧장 아무런 저항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내가 무엇이나

다 이해하고 있는 줄로 여기고, 계속적으로 와서 이야기 해 주는 일은 없었다.

나는 서른이 되었을 때,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벌써 다섯 살이 되었다. 당시 나의 몸은 장기간의 고생과 농촌생활 등으로 몹시 쇠약해져 있었고 심각한 정도의 위장병을 앓아 장기간 입원을 해야만 했다. 체구는 허약한데다가



고령의 임신이라 출산이 순조롭지 못할까 몹시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매일 같이 기도를 하였는데, 출산일이 되어 정말로 순조롭게 분만하였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 출산 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나의 직장 동료 두 사람의 경우,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렸고 몸도 나

에 비해 건강하였다. 이처럼 보자면 그들이 출산 때에 순산할 것 같았으나, 의외로 그들은 모진 산고를 겪었고, 산후에 수술을 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렸다.

그때부터 나의 몸은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며, 많게 먹든 적게 먹든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어떤 병이 나더라도 곧 기도하게 되고, 또 주께서는 나를 고쳐주었다. 아기가 밤에 열이 날 때, 차도 없고 의사나 약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면 과연 열이 내렸다. 나의 어머니의 경우도, 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고 몹시 고통스러웠는데 기도로써 좋아졌던 것이다. 한번은 어머니가 자전거에 깔려 심하게 다쳤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약을 발라 주었고 어머니는 기도를 하였다. 내가 걱정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기도 후에 통증이 사라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슴 깊이 느꼈다. 우리 온 가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

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심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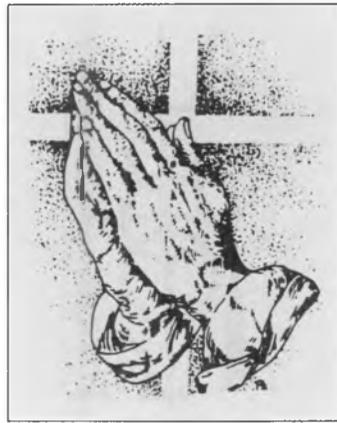
## 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을 돌보실 뿐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는, 영적인 성장을 더욱 기뻐하신다.

내가 비록 어렴풋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에 하나님이며,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한번은 욕심으로 복권을 사서는 당첨되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만약 당첨된다면 얼마만큼은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또한 나의 기도도 들어 주시줄 확실히 믿었다. 발표일 나는 자세하게 일등상에서 마지막 당첨번호까지 번호를 맞추어 보았지만 내가 가진 번호는 없었고 희망은 헛된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 때 내 마음 속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조금도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이 옳지 않

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성령의 움직임이었다. 그 때 나는 이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보다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은 항상 가지려고 해서만은 안되며,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회개의 기도



를 드렸다. 주님을 믿은 후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내 자신이 주를 믿은 지도 오래 되었는데도 왜 복권이 당첨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나를 깨우쳐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셨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폭풍 속에서 비명에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의연하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한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내가 살던 곳은 제방이 있고 그 옆으로 들판이 있어 늘 강도, 강간사건이 발생하였다.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제방을 지나야만 했으나 한 번도 뜻밖의 경우를 당하지 않고 평안히 다닐 수 있었던 일에서 하나님께서 흉악한 일을 벗어나게 하셨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싫어했고 다른 이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했다. 마음 속에는 늘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가령 농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집 채소나 닭을 훔쳐 먹게 되면, 나는 곧 농민들은 나쁘다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이전에 나는 자신은 나쁜 인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비록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때때로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여겼다. 내 자신은 언제나 도리와 예의를 따지고 소위 썩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도덕을 갖춘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신은 늘 범죄하고 있으며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금까지 제대로 회개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섰다.

### 三. 성결한 삶을 추구하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기간 중 나의 생활은 늘 시험과 연단이었다.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은 내가 늘 깨끗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한번은 길에서 사기꾼이 고의적으로 많은 돈을 떨어뜨려 놓았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 돈을 주었고, 나와 같이 나누고자 했다. 그때 나는 두려웠고,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뒤 나는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나는 죄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멍청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사기꾼임을 알고서는 짐으로 돌아와 철저히 회개하였다. 「하나님! 제가 탐욕을 갖지 않도록 하소서. 탐욕은 도적질과 똑같은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자신의 내적 생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집을 떠나 北京에서 연수를 받을 때 나는 자주 시험을 당했다. 세 차례나 돈지갑을 주웠는데, 그때마다 조금도 주저함없이 주인에게 돌려 주었다. 학교에서 지갑을 습득했으면 학교의 관련부서에다 돌려주었고, 길에서 습득했으면 공고장을 붙여 주인에게 돌려 주었다. 이렇게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돈을 습득한 적이 없었는데, 욕심을 버리고 난 지금 돈을 자주 습득한 이 일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 여겼고, 마음은 괴로웠다. 돈

을 습득할 때마다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을 생각해 야만 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돈지갑을 줌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감사하게도 그 후로는 돈지갑이 눈에 띄지 않았다. 정말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졌다. 사람이란 먹을 밥이 있게 되면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법이다. 때로는 재물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도록 하신다. 거듭난 후, 깨끗한 생활을 추구하는 동안, 때로 범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 죄를 자백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점차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죄악을 멀리 하게 되었다.

### 四. 주를 위해 봉사하다.

1989년 북경에 있을 때 주님께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곳에서 나는 나이 많은 신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소박하고 진실되어, 마치 집에라도 와 있는 듯 편하게 대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다. 그때 나는 적잖은 시간을 들여 영적인 책을 읽고, 집회에 열심으로 참여하여 고무되어 있었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다. 먼저 나는 내

명의 동료를 인도하여 주님을 믿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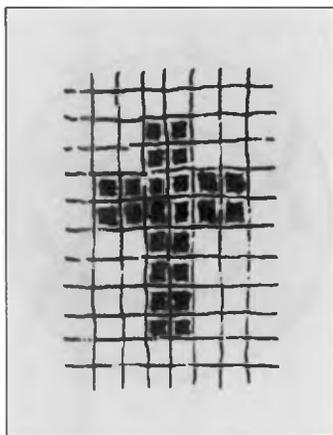
그곳에 나이 많은 한 자매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인내심이 많았고 사랑을 대할 때 늘 온화하고 사랑으로 하였다. 그 분은 나의 모범이 되었고 나를 깨우쳐 주었다. 89년 북경 연수에서 돌아온 후 교회 모임에 나가면서 주를 섬겼다.

내가 섬기는 곳은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많아, 연단과 성취 또한 많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워 주시고, 많은 은사도 주셨다. 또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능력을 주셨기에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어떤 때는 공안요원들이 나에게 압력을 가할 때도 있었다.

한번은 우리들이 모여 열심으로 뜨겁게 돌아가며 강독하고 설교하였다. 사실로 말하자면 내 자신은 설교할 줄 몰랐으나,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영적인 서적과 다른 사람의 간증을 참고하여 일어서서 설교하였다. 집회에 모인 사람은 많았으며, 앉을 자리가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영적인 힘이 연약해져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마귀가 내 귓가에다 「주를 위해 일하지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많은 힘을 들이지

만 어떤 성과도 없지 않느냐,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고작 이것이야,」하고 말하면, 비관적으로 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게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마귀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귀가 이렇게 나를 덮쳐올 때 나는 곧 주님은 참되시며 또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한다. 비록 나는 이렇게 참되고 살아계신 주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몸소 이끌어 주셨음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 五. 압박 속에서 연약한 이를 받아 들이게 되다.

본래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크리스천은 30여 명이었는데 그후 공안요원의 핍박으로 우리들은 위축되었다. 사실 나의 학력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낮지 않았고, 근무 연한도 짧지 않았으나, 공개

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정하였기에 나의 월급은 깎여 다른 사람보다 한 급 낮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이것을 압력으로 느꼈다.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자아』가 있으므로 경험한 것에 대해 깨달음을 갖게 될 뿐이다. 비록 주께 의지하여 해결되지만 어쨌든 연약하여 지게 마련이다. 이 세상의 일이란 이와 같은 압력을 받게 되면 연약해지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을 더욱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이런 경험이 없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몰랐던 것이다.

(〈中國與教會〉94기 중에서)



## 宛平縣 河北村 採訪記

北京 西直門에서 기차를 타고 약 네 시간을 가면 '色樹墳'이라는 시골 마을 정거장에 도착하게 된다. 거기에서 강을 건너면 '河北村'이라는 촌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을은 호수가 십여 가구밖에 안되는 작은 촌락이다. 이 마을은 필자가 일찍이 민속 풍물을 연구하기 위하여 들렀던 곳이다.

이른 아침 北京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향하였다. 北京의 그 높고 큰 성벽이 보이지 않게 되자, 누런 평야 가운데 높다랗게 솟아 있는 십삼 층의 석탑이 눈 앞에 찬연하게 나타났다. 이 탑은 명나라 신종이 팔리장에 새운 만수탑이라고 한다. 필자는 기차에서 한 오십여 세 되는 노인과 함께 담배를 나눠 피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이 노인은 '田紹沈'이라 했고, 宛平縣 大谷村 사람이었다. 지금 北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오래지 않아 기차는 제철 공장으로 유명한 石景山 역에 도착하였다. 여기서부터 기차는 갈수록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田노인은 石景山을 가리키면서 일일이 나에게 아래의 내용을 소개해 주었다.

### 1. 石景山의 '海眼'

石景山の 정상에는 절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 탑이 하나 높이 솟아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탑 밑에는 바닷속으로 통하는 海眼(해안은 밑으로 바닷속으로 통할 수 있는 특수한 우물이나 연못 등을 말한다:역자주)이 있다고 한다. 명나라 환관인 劉瑾이 이곳에 海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산을 파서 이 海眼으로부터 바닷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전 北京을 물에 잠기게 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산을 파기 시작하여 파내려 갈수록 돌이 더욱 많아져서 海眼까지 파내려 갈 수가 없었으며, 劉瑾의 이 음모가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체포되고 北京의 菜市 입구에서 참수당하였다고 한다.

### 2. 神木

石景山 부근에는 한 그루의 커다란 잣나무가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神이 이 나무에 살았기 때문에 나무 부근에 만일 맘대로 오물을 버리고 방자하게 행하면 신의 책벌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戒台寺의 雙塔

石景山을 지나 다시 서남쪽으로 약 7리를 가면 개태사를 볼 수 있다. 이 절

에는 쌍탑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계태사에는 주발 하나가 있었는데, 이 주발은 매일 아침 일찍 北京의 궁궐로 날아가서는 탁발을 하고는 주발 안에 돈이 가득 찬 후에야 돌아온다는 것이다. 어느날, 주발은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궁전 안으로 날아가는데, 공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탁발을 할 수가 없었다. 주발은 불쾌하였으나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주발이 공주의 꿈에 현몽하여서는 공주가 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꾸짖었다.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그제서야 이 주발이 계태사에서 온 것임을 알고는 즉각 사람을 보내어 계태사에 쌍탑을 축조하여 속죄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 4. 黑龍潭

北京 서쪽 교외 20리 지점에 黑龍潭이라는 못이 있다. 이곳은 옛날 황제가 기우제를 행하던 곳이다. 옛날 청조의 건륭황제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었다. 흑룡담 중에서 갑자기 한 마리 작은 뱀이 나타났다. 그러자 황제는 무심코 “이렇게 작은 뱀이 어떻게 비를 내릴 능력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였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흑룡담으로부터 갑자기 커다란 용의 발톱이 나타났다. 함께 있던 문무백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모두 꿇어 엎드려서 ‘용왕 대인이시여! 우리 황제께서 놀라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빌었다. 그러자 용의 발톱이 못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상의 네 이야기는 모두 전소침 노인이 제공한 것이다.)

‘色樹墳’ 역에서 기차를 내린 사람은 우리 일행 세 사람뿐이었다. 이곳은 보아하니 오십 호가 채 안되는 것 같았다. 집들은 모두 기차역 앞에 고립되어 있는

작은 마을에 모여 있었다. 역의 북편으로 좀 경사진 곳을 죽 따라 내려가면 永定河에 이르게 되는데, 이 永定河의 맞은편 강둑에 한 작은 부락이 있었다. 이 부락의 후면에는 낮고 너른 구렁이 있었고, 이 구렁 위에는 몇 그루의 잣나무가 서 있었다. 곁에서 보기에 이 부락은 제법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이 안내자가 되었다. 우리는 永定河가 결빙된 것을 이용하여 맞은편 언덕으로 갈 수 있었다. 척박한 계단식으로 된 발을 지나자 네다섯 명의 어린아이들이 골목길에서 튀어나와서는 적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었다. 이곳에는 다섯 집은 劉家요, 여섯 집은 孫家이다. 겨우 11가구가 모여 있는 작은 촌락인 것이다. ‘河北村’이라 불리는 곳이다. 뒤에 이곳 촌민들은 우리가 아무런 악의가 없음을 알고는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다음은 劉氏 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 5. 貴族의 도망

앞서 보았던 작은 구렁은 ‘鐵梅嶽’이라고 부르는 旗人(청조 귀족)의 묘지이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매장되었을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鐵梅嶽은 원래 지위가 대단히 높은 기인이었다고 한다. 강희제가 아직 즉위하지 않았을 때, 이 鐵梅嶽은 항상 강희제와 함께 공부를 하였다. 한번은 두 사람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강희제가 얻어 맞았다. 그러자 강희제는 화를 내며 큰소리로 “장차 내가 황제가 되면 널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였다. 후에 그는 과연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러자 鐵梅嶽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이곳으로 도망오게 되었던 것이다. 황제는 곧 그가 돌아올 것을 명령하였다. 鐵梅嶽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좋은 묘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 자살하였다. 이 묘지가 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은 구릉이다. 鐵梅嶽이 죽은 후 강희황제는 부관 참시하였는데, 후에 다시 뉘우치고는 鐵梅嶽에게 복록장군(福祿將軍)으로 봉하였다. 그러나 鐵梅嶽의 자손들은 장군의 봉록(俸祿)을 거절하였다.

## 6. 河北村의 기원

鐵梅嶽이 도망하여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이곳은 인가 하나 없는 곳이었다. 鐵梅嶽이 이곳에 자신의 묘지를 미리 정하고는 劉氏와 孫氏 성의 두 사람을 고용하여 묘지를 삼았다. 이로 인하여 이곳 하북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 두 집만이 있었던 것이다. 후에 그들 두 집안이 분가를 하여 지금의 하북촌은 다섯 가구의 유씨 집안과 여섯 가구의 손씨 집안이 있게 되었다.

## 7. 九佛娘娘

‘色樹墳’ 서북에 ‘安家莊’이라는 마을이 있다. 촌락 부근의 九仙山의 고갯마루에 ‘九佛娘娘’이라고 부르는 사당이 있다. 촌민들에 의하면 이 사당은 九仙山에 있기 때문에 구불낭낭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 대단히 큰 사당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宛平縣의 열세 마을의 촌민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묘회는 매년 시월 십팔일에 거행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낭낭묘는 대단히 영험해서 병을 낫게 하고 아들을 점지해주는 것 외에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게 해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娘娘은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와 같은 뜻이다. ; 역자주)

## 8. 安家莊의 風水

‘色樹墳’의 서남쪽에는 ‘王平村’이라는 한 촌락이 있다. 옛날 왕평촌의 사람

들은 여자 아이만을 낳았다. 그런데 반대로 부근의 안가장의 사람들은 아들만을 낳았다. 그래서 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 통혼하였다. 어떤 사람이 안가장 사람들이 아들만을 낳은 것은 그곳 풍수가 좋아서라고 했다. 그러자 왕평촌 사람들이 질투심이 일어나서 안가장의 풍수를 파괴하고자 하여 탐을 하나 세웠다. 그때부터 안가장에서 낳은 아이들은 모두 몸이 허약한 아이들로 변화하였다. 후에 안가장 사람들도 사당을 하나 세워서 왕평촌과 맞서려고 하였으나,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이 이러한 것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러한 생각을 버렸다고 한다.

## 9. 金牛

하북촌 동남쪽의 黃岩片拉村이 있다. 이전에 두 마리의 금소가 있었다. 馬各村의 楊氏 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날 저녁에 이 두 마리의 금소를 만났다. 그러나 소들은 똥을 싸고는 곧 도망쳐 버렸다. 이 사람은 손으로 소 똥을 가지고는 아무런 특별한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그는 무심코 자신의 손에 묻어 있는 금가루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본 것이 금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훗날 남쪽 오랑캐가 금소를 잡기 위해서 두세 차례 왔으나, 금소가 거쳐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서 잡을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한 쌍의 금소는 아직도 살아 있어서, 재수가 좋은 사람은 볼 수가 있다고 한다.

## 10. 꼬리가 없는 老張의 이야기

永定河를 끼고 있는 色樹墳 동쪽에는 ‘三家店’이라는 촌락이 있고, 그 촌락 중에는 용왕묘가 있는데, 그 사당 안에는 황룡을 모시고 있다. 부근의 주민들

은 이 황룡을 '꼬리가 없는 老張'이라고 부른다. 노장은 바로 永定河의 水神이다. 어느해 초봄 永定河에 얼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무렵에 노장은 꼬리로 얼음을 청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얼음이 너무나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노장의 꼬리 앞부분이 끊어지게 되었다. 노장은 천진부터 삼가점에 이르는 永定河를 관리하는 수신이다. 구월 십칠일은 이 용왕묘의 묘회가 열리는 날이다. 촌민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청하여 와서는 연회를 하여 노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때 누런 뱀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老張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

### 11. 孟姜女의 이야기

인근의 房山縣에 孟氏 집안이 있었다. 이 집에서 심은 葫蘆의 덩굴이 이웃 姜氏네 집에까지 뻗어가서는 그 집 정원 중에서 큰 호로를 뚫었다. 이 호로 때문에 두 집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마침내 관자까지 가게 되었다. 현관은 두 집안이 공평히 이 호로를 나누라고 판정을 하였다. 그들이 호로를 나누려고 중간을 자르자 호로 속에서 예쁜 어린 여자 아이가 나왔다. 두 집은 이 어린아이를 같이 기르기로 하고는 두 집안의 성을 따서는 '孟姜女'라 불렀다. 이 맹강녀는 중국 민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孟姜女 哭城' 고사의 주인공이다. (이 고사의 내용인즉 맹강녀의 남편이 성을 쌓는 데 끌려가 일하다가 죽어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되자, 맹강녀가 그곳 성으로 가서는 성밑에서 방성대곡을 하였다. 그러자 성이 무너지면서 남편의 시신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 역자주)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맹강녀의 남편은 바로 房山縣 사람이라고 한다.

### 12. 板橋北巷溝의 娘娘廟

色樹墳 서쪽의 판교북항구에 낭낭묘 하나가 있다. 이 사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세가구가 이 일대의 토지를 개간하려고 그곳에 있는 오래된 작은 낭낭묘에서 서원을 하였다. "만일 새로 개간한 땅이 내년엔 풍년을 맞게 된다면 이 사당을 증건하겠습니다." 다음해가 되어 과연 풍년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낭낭묘가 복을 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사당을 증건하지 않았다. 어느날 한 노인이 이곳에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당을 증건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앞으로 증건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에게 이 사당을 증건할 것인지의 여부만 말하면 된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들은 반드시 이 사당을 증건하여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말이 끝나자 노인은 곧 떠났다. 다음날 아침 새벽에 사람들은 그 작고 볼품없던 낭낭묘가 이미 크고 우람한 사당으로 증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魯班翁(목수들이 모시는 신)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13. 永定河의 물귀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어느날 황혼에 어떤 사람이 色樹墳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永定河 부근을 지나는데, '빨리 오너라! 빨리 오너라!'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이 나룻터에 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발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손에 들고 있던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의 발을 잡고 있던 물귀신

개항, 개항의  
 메일과 함께  
 옛 구 전역에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  
 (貴陽市の 어느  
 음식점에 차려  
 놓은 미신상)



변역 / 김성곤(중국어문선교회 운영위원)

(『中國民俗學』 중에서)

것들이었다.  
 수확한 곡물들은 온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는 밭을 썼다. 후에 이 밭에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돈으로 石棚  
 골짜기나왔다. 이 사람은 이토 인하여 큰  
 元寶(화폐의 인종)가 골짜기나왔다. 그  
 하였다. 그러자 아궁이로부터 열 개의  
 각 아내를 시켜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라고 말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뒤 즉  
 를 깨워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해라."  
 냈다. 그 노인이 그러라 "빨리 내 아내  
 밭에 이 사람은 꿈 속에서 한 노인을 만

14. 懷來縣城의 山城廟  
 옛날 宛平縣 서북의 화래현성에 張氏  
 성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매일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 생활을 하였다. 그는 매월 초하룻  
 날과 십오일이면 반드시 산신묘에 가서  
 는 향을 사르며 기원을 하였다. 삼 년이  
 된 어느년에 그는 어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 산신묘로 가서는 제사를 하면서 말했  
 다. "내가 삼 년 동안 한결같이 이곳에 나  
 서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  
 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이 그를 좇아 주었다. 이러한 물귀신을  
 '生鬼'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아마도  
 도적들이 피살된 후에 변해서 된 유령인  
 것이라고 말한다.

# 乞丐與耶穌

約九1至十21; 路十25

司和法利賽人想用石頭打死耶穌，但他避過了。在安息日，他和門徒在聖殿門口，遇見一個瞎眼人求乞。耶穌用唾沫和泥抹在瞎子的眼睛上。

# 걸인과 예수님



(요 9:1-21, 눅 10:25)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둘로 예수를 쳐 죽이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그(예수)는 피하였다. 안식일에 그와 제자들이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님 한 사람을 만났다. 예수는 침과 흙으로 장님의 눈 위에 발랐다.

他照耶穌的話去作，一個生來瞎眼的人，第一次能見物！他太興奮了，半跑地趕回家，鄰居都來看他。

그가 가서 예수의 말처럼 하자, 장님으로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매우 흥분하여 뛰다시피 하여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이웃사람 모두에게 그들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성문밖에서 구걸하던 그 장님이 아니나?”

“불가능한 일이야 그를 매우 닮은 것에 불과할 뿐이야!”

但我就是那個瞎子。耶穌醫好了我。"그러나 내가 그 장님이야. 예수가 나를 완치시켰다."



鄰居很担心，因為這個人是在安息日給治好的。他們立刻帶他去見法利賽人，因為法利賽人是安息日的法規的解釋者。

이웃사람은 매우 걱정했다. 왜냐 하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시 그를(장님)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에게 보였는데, 바리새인은 안식일의 법을 해석하기기 때문이었다.

你跟他說話的耶穌是罪人。他不遵守安息日的律法。



"너와 그가 말하는 예수는 罪人이다. 그는 안식일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我不曉得他不是罪人；但我知道，我以前是瞎眼的，而現在看見了。



"저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전에는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法利賽人要這個人反對耶穌，但沒有成功，因此把他趕出了禮拜堂。耶穌知道這件事後，去找這個人；找到他後，法利賽人很快的圍着他們。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예수를 반대하길 원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예배당에서 쫓아냈다. 예수가 이 일을 알고 이 사람을 찾아갔다; 그들 찾은 후 바리새인이 재빠르게 그들을 에워쌌다.

你相信上帝的兒子嗎？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你要我相信的人是誰？ "당신이 내가 믿기를 바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跟你說話的就是他。 "너와 말하는 사람이 곧 그다."



主啊，我信！ "주여, 내가 믿습니다.!"

# 중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 중국이 재미있다

## 중국 리포트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중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 이병길 지음 개혁주의신행협회 (4,200원)

이 책은 대만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이병길 목사가 쓴 것으로 1987년에 초판, 1993년에 2판이 출판되었다. 저자는 대만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문헌과 자료를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일찍이 토인비는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앞으로 중국은 태평양시대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세계선교에 있어서도 중국은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세계인구의 4/1을 차지하는 좋은 추수밭이다.

중국인은 오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중국선교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결코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다. 중국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허용과 통제에 이중적인 종교정책을 취하는 중국 상황을 깊이 연구하는 것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책은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마카오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것부터 삼자원칙을 고수하면서 삼자에 가입된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오늘의 중국교회까지 서술해주고 있어 중국교회의 선교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책은 시사성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과거 중국선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조선일보 북경 특파원인 박승준 기자가 쓴 책으로, 저자는 1988년 10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4년 사이에 모두 스무세 차례 중국을 여행했고, 1992년 12월부터는 북경에서 생활하면서 놀랍게 변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인상만을 나열한 대표적인 책”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가 현지에 살면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것을 쓴 것이기에 이 책이야말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우리가 중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는 중국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서로를 아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 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서로를 전혀 모르면서 서로가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상태에서 엉뚱한 선입견을 갖고 접근할 때 많은 오해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인을 잘 모른 채 물질적인 수치만으로 그들을 재려 하고, 중국 여행에서 돌아와 그들을 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국인 역시 한국인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비웃기까지 한단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이 왜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중국선교 관련자와 그 관심자들이 이런 책들을 통해 중국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알고 선교한다면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책은 전문 사회복지기관인 “사랑의 전화” 회장 심철호씨가 지난 84년 민간인으로선 최초로 국교도 없었던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조선족 교포들에게 고국의 사랑을 심어주고 중국통의 일인자로 민간 외교가의 역할을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엮은 것이다.

개방화 물결에 휩싸인 중국 대륙의 변화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저자는, 1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면서 보았던 상해 뒷골목 풍경에서부터 북경, 심양, 용정, 연길, 천진 등에서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현지 동포들의 삶 구석구석을 사랑에 넘치는 시선으로 포착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백두산 속의 어느 집에서 만난 동포 할머니가 끓여준 시래기국 맛, 천지 기상대를 지키고 있던 우리 동포 청년의 이야기,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본 이야기들을 실고 있다.

또한 25개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운남성을 방문하여 중국소수민족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서 느꼈던 점들과 그 감동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저자는 또 부록으로 한중수교 이후 많은 한국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잦아질 것을 예상하고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여행정보, 간단한 일상회화, 꼭 가보아야 할 중국의 주요도시 등을 소개해 놓았다.

이 책은 중국과 조선족 교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여행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어로 찬양을!

# 感謝耶穌 감사해요

0 3 5 | Em 2 - 2 - | A7 2 7 7 2 3 | D - - -

感謝耶穌 — 因祢愛極深

D6 3 - 3 5 | Em 2 - 2 - | A7 2 7 7 1 2

感謝耶穌 祢恩典廣

D 1 - - - | D7 1 3 C/D 4 D7 5 G 6 6 4

大 — 揚聲歌頌主祢聖

A7 2 - - - | D 5 5 3 5 5 6 Bm 1 - 6 6

名讚美又讚美不停祢是

Em7 6 5 6 5 5 - | A7 0 7 1 2 | D - - - | 1 - 1

我的一切 祢是我主 —

우리말 기사: 감사해요 -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 나의 주님

## 여행과 건강

광대한 중국에서는 이너의 산만 넘으면 풍토와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중국 여행에서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은 감기와 설사이다. 사람들의 물결, 먼지투성의 공기, 기기다기 지동차나 버스에서 나오는 배기기스, 굴뚝에서 나는 검은 매연과 만원 일치를 장시간 여행하는 데서 오는 수면부족, 그리고 대륙성 기후 특유의 이집, 낮, 밤의 기온 변화, 건조함 등 병이 날만한 원인이 산재해 있다.

모처럼 찾아온 중국 대륙이라고 광대한 지역에 쫓겨 그만 무리한 계획을 짜게 되기 쉽다. 정신을 지라도 중국풍토의 특수성 때문에 지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려 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 병에 걸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

감기나 설사 정도라면 준비해 가지고 간 아스피린이나 지사제를 먹고 2,3일 천천히 안정하고 있으면 낫는다. 도중에 낫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만 앓으면 완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나 설사를 쫓 앓게 된다. 다행히 중국의 호텔은 어디나 대체로 편안하므로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숙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높은 열이 계속되거나, 설사약을 먹어도 5분 이상 견딜 수 없는 사태에 이르면 더 망설이지 말고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의료사정은 약간 딸린다고 하지만, 동양 의학의 원조인 중국 의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편이 좋다. 많이 아프면 호텔의 종업원에게 연락을 하자. 대도시의 주요한 호텔에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으며, 그런 사람이 없을 때도 CITS의 직원이 와서 돌보아준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손짓 발짓이라도 좋다. 병이 들어서 괴롭다는 표시를 하면,

종업원이 모든 것을 처리해 준다. 택시에 실려서 옮겨지면 우선 증세를 정확하게 알려야만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소하자. 필담은 거의 필요없다. 크레졸 냄새가 폭폭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해 줄 것이다.

단,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내복약'에 관한 것. 병만 나오면 된다는 마음에서 독한 약을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열은 내리지만 약의 부작용이 나는 일이 있다.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부작용이 없는 한방약을 먹어보는 것도 좋다.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력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자기의 체력이 보강되기를 기다리자.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은 약값일 것이다. 감기에 걸려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과 트로키를 받으면, 대개 5-15원. 택시를 이용했다면 그만큼 돈이 더 든다. 호텔로 돌아오면 조용히 휴식을 취하자. 식사도 기쁨이 없는 것을 요구하고 종업원에게 과일을 부탁해 보자. 친절하게 가져다 준다.

### ■ 병에 걸리기 않기 위해

한국을 떠날 때부터 감기약, 설사약, 상처 소독약을 준비하고, 지병이 있는 사람은 출발 전에 여행 일정을 주치의에게 이야기하고 간단한 처방을 받아둔다. 여행중에는 호텔에 돌아오면 양치질과 손씻기를 부지런히 한다. 이것은 건조한 기후와 먼지, 황사가 심한 환경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설사 원인은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기름이 많은 요리와 과식이다. 무리한 폭음이나 과식은 절대 금해야 한다. 실크로드 방면으로 가는 사람으로 마스크와 안약을 가지고 가면 좋다. 안약은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 눈병 예방도 되지만, 피로한 눈에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 ◆ 유행성 간염(A형 간염)에 주의.

거리에서 걷고 있으면 때때로 이러한 간판이 보게 된다. '간염 예방을 위해 음식물을 불에 굽거나 삶고 찌거나 기름에 볶은 것을 먹자'라는 것이다. 음식물은 되도록 뜨거울 때 먹자. 만약 전신평로, 무력감, 식욕부진, 구토, 관절통, 붉은 갈색 오줌이 나오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그리고, 과일도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먹는다. 잘라서 파는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병은 누구라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 병이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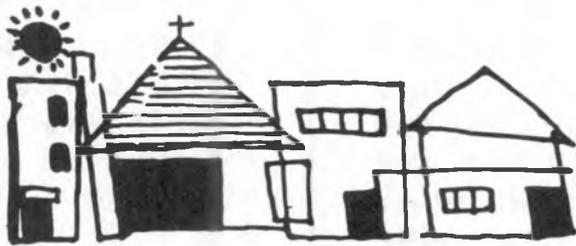
렸을 때는, 중국의 병원을 구경하겠다는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갖자. 그리고 이때 잠시 차분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하여, 편안한 침대에서 생각해 보자. 잘 자고, 잘 먹어야 다음날에는 또 거리로 달려 나갈 수 있다.

### ◆ 중국의 침술을 체험해 보자.

대개의 대도시 호텔에는 외국인에 대한 침술 서비스가 있다. 침대에 누워 침을 맞고 싶은 곳을 말하면, 흰 옷을 입은 할머니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가락과 눈으로 부위를 짐작하여 5Cm 정도의 가느다란 침을 가볍게 놓아 준다. 30분 정도 소요에 10元 전후.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여행의 피로를 푸는 데 때때로 좋을 것이다.

거리를 걷고 있으면, 길가나 또는 병원 앞에 흔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 혈압계와 체중계, 신장계를 놓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흥미있는 표정으로 맥을 짚어 주기도 하고, 혈압을 측정해 주기도 한다. 자기도 모르게 실험대에 오르는 셈인데, 동 뒤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몰려든 군중이 가득해질 것이다.

(세계를 간다/『중국』중에서)



## 장애물을 기회로

박성남  
(중국선교훈련원 강사)

새벽 5시.

남편 출근만 시키다가, 이제 나도 첫째 시간 강의에 늦지 않으려고 남편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선다. 야간반 강의가 있는 날이면, 배고픔도 잊고 늦은 시간까지 큰소리에 온 몸이 녹초가 되어 함께 늦은 시간에 별식을 먹던 이런저런 일들에 언제부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비록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랜 친구처럼 정답게만 느껴지는 훈련원 간사님들과 학생들. 78세 되신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새로운 만남들은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막연히 예비 선교사님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나도 보내는 선교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훌륭한 강사진들을 볼 때 내가 그분들의 동역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랑스러웠고, 가슴이 뿌듯하였으며 하나님께 이곳에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렸다.

또한 좋은 교재들은 나로 하여금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그마가 내 속에 끓어 오르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나도 학생들과 같은 열정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대학 다닐 때,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하루 왕복 3시

간이 걸렸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시간도 아까워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멀지?’ 하고 속으로 불평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장애물을 기회로 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매일 버스 속에서 중국어 단어, 四字成語들을 외었다. 지금은 그것이 나의 큰 밑천이 되었다. 또 중국화교교회를 알게 되어 중국어도 더 잘 배우게 되었고, 순수한 대학 1학년 때부터 알게 되는 축복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훈련생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고 이번에 대만 선교지 방문을 통해 느낀 것은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꼭 언어 훈련을 철저히 받고 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百問不如一見!”

비록, 늦은 시간에 기다리다 혼자 잠든 남편 모습을 보면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먼저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또 내일을 기다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훈련생들이여 不怕慢, 只怕站! (느린 것은 두렵지 않지만, 멈추는 것이 두렵다) 꼭 기억하시길...

# 님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朴在春

(중국선교훈련원 2기생)

나는 66歳の 恩退牧師로서 靑年들과 함께 宣敎中國語를 學習하는 訓練生이다. 지난 五月에 牧會使役을 마치고 '무엇을 하든지 나의 餘生을 主님께 有用하게 쓰임 받으리라' 다짐하는 祈禱를 드렸다. "求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6:7)" 이 말씀이 實感나게 作用했다. 마침내 주님은 나를 中國語文宣敎會로 인도하셨다. 20주간 訓練課程中 後半期 10주간 學習할 機會를 열어 合流했다. 이미 前半期를 마친 學友들은 基礎, 初級 中國語를 마치고 中級課程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前에 放送通信大學 敎育學科를 卒業한 바 있다. 그 後 E.B.S 放送媒체를 通해서 獨學으로 中國語의 基礎, 初級, 中級을 學習하는 課程이 있기에 그들과 같은 水準인 것을 感知했다.

이곳에 와서 훌륭한 敎授 指導下에 直接 四聲發音을 바르게 校正받으며 文法體系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는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은둔의 나라 中國事情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宣敎師의 使命感이 實感나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지금은 平凡한 文章을 읽고 해석하며 日常的인 用法를 對話를 할 수 있는 基礎訓練을 받고 있다. 당장 中國人을 만나 말을 걸고 싶은 憧憬이 생긴다. 참

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本 訓練院의 特徵을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紹介하려고 한다.

學生數보다 指導敎授가 더 많다는 事實, 더욱이 아주 수준 높은 敎수를 초빙했다는 事實이다. 養育하고 있다는 自負心이 충분하다. 敎材가 多樣하며 아주 쉽게 꾸며져 초보자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 全般的 敎育課程이 잘 짜여져 있으며 視聽覺施設이 完備되어 있어 敎수와 학생의 敎感이 容易하여 이해가 쉽고 거의 完全學習에 가깝다. 그러나 學生의 立場에 섰을 때 강한 훈련과정을 通過해야 한다는 사실, 각고의 노력없이 무슨 일을 하라!



## 중국선교훈련원 소식

# 훈련을 받으면서..

주기철 목사  
(중국선교훈련원 제2기생)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지가 벌써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총신대학신학원에 입학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국 선교 모임에 참석했다. 기도모임, Vision Trip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선교 훈련은 대한장로교 예수교 M.T.I에서 3회 받으면서 어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선교의 일반적인 지식 및 영어훈련이 주가 되어 있었다. 훈련을 받으면서 선배 선교사님들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느끼게 되었다. 훈련을 받는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중국어훈련을 해야 하는데, 막막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해야 짧은 시간에 초급과정을 마치고 현지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보내시려고 훈련하신다면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렸다. 마음 속에서는 국제신학원에서 1년 더 공부해서 Th.M 코스를 수료해 미국에 유학가서 신학 석사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옳을까? 갈등 속에서 중국어문선교회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곳에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총회 M.T.I(장로교 예장합동)에서 선택 과목 중에 중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너무 어

려움을 느끼고 중국에 나간다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생겼다. 외국어를 배웠다고,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도 유창하게 못하는 데, 언제 배우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배움을 시작했다. 배우는데, 많이 힘이 들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용기와 힘을 주었다.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 중국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다. 너무 감사했다. 기초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자세한 지도와 Tape, V.T.R까지 준비되어 효과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들의 열정, 대만인, 조선족 중국인, 유학 다녀오신 선생님 등 다양한 강사진이 있어 더욱 많은 도전을 받았고 언어의 차이점을 더욱 느끼게 했다. 발음에서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었지만 더욱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간체자와 정자체를 다 배우게 되어 힘은 들었지만, 더욱 확실하게 언어를 익히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과목은 초급중국어 1,2, 신앙독본, 성경, 중국어 찬양, 선교중국어 회화, 예수님의 좋은 소식 등 및 매주 토요일마다 중국에 대한 특강(철학, 문화, 지리, 교회사)이 있어 더욱 중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게 되었다. 일반회화보다 선교에 대한 언어를 익히는 것이

더욱 좋았다.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중국에 가야지 하는 것이, 서서히 피부에 와서 닿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매주마다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내는 필독서가 있는데 중국에 대한 문화, 선교이야기, 중국교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필독서를 통해서 예전보다 중국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지면을 읽으시면서 중국에 대해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국어문선교회로 끌리게 하신다면 더 실질적인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 물론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 중국의 언어가 더욱 새로워지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힘들었던 점 몇 가지를 적어보면 아침 일찍 시작되어 새벽같이 일어났던 것과(오전 8시 시작) 암송할 것, 숙제, 시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차차 익숙하게 되었다. 이제 7월이면 5개월로 접어드는데, 기초회화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하나님께서 8월에 있는 현지 답사를 통해서 더욱 중국을 자세히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다. 어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북경에 가서 돈 많이 들고 어학 연수도 좋지만 고민하기 전 기초를 닦는 데는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자신있게 추천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 당신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당신이 중국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 ◆ 선교도서 안내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3,000원  
(전문인협력기구)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3,500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500원
5. 중국어성경번역소사 1,500원
6. 神愛世人 1,500원
7. 만 남 2,000원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1,500원

## ◆ 교재 안내 ◆

1. 中國語 聖經 7,000원  
(신약+시편+잠언:주음부호)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1,500원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1,000원
3. 經文背誦 1,500원  
經文背誦 Tape 1,000원
4. 初級中國語1 3,500원  
初級中國語1 Tape(10개) 6,000원
5. 初級中國語2 3,500원  
初級中國語2 Tape(10개) 7,000원
6.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我的第一本聖經 Tape 1,000원
7.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10,000원
8. 信仰讀本 5,000원  
信仰讀本 Tape 1,600원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533-5497)

## ● 아브라함이 먹는 겁니까? ●

관악산 상공을 넘나드는 은빛 날개를 보면서 중국에 두고온 가족들이 그리워 먼 산을 바라보는 자매의 가슴은 하루속히 성경학습을 마치고 돌아가고픈 눈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소식을 하루속히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도 있겠지요. 요즘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다리가 아프시다고 성경학습보다는 말없이 나가셔서 안수받는 장소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계속해서 투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할머니들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고, 놀림도 받기도 해서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성경공부를 안하고 돌아만 다니시니까, 학습시간에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으로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먹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길 이름입니까?”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은 배꼽을 잡고 웃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이름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또 한 번 할아버지의 질문은 똑같은 상황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먹는 겁니까?”

이번에는 할머니 자매들로부터 구박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땀을 빼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랑의 집’에서 학습시키시는 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집’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데 영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8명의 교포들이 뜨거운 여름날에 성경학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식을 마치며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눌까 합니다.

### <기도제목>

1.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충만함을 주시도록.
2. 교포들이 변화되어 성령으로 새 힘을 얻고 훌륭한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3. ‘사랑의 집’ 식구들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공급받도록.
4. 학습을 받아야 되는 교포들이 꼭 ‘사랑의 집’에 올 수 있도록.
5. 중국 현지로 사역하시러 가실 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책  
근  
중  
국  
동  
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제공)

종 교

\* 중국교회협 텡 주교  
해외교회에 선교 자  
치 존중 촉구

중국교회협의회(CCC) 회  
장 텡 주교는 최근 중국신학  
생들에 대한 외국교회의 유  
학체제가 CCC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져 CCC의 선교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  
고 외국교회들에게 CCC의 선  
교자치원칙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외국유학생 선정에  
관한 성명서'는 한국 내 교  
단들의 성급한 중국선교가  
중국 안에서 물의를 빚고 있  
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선교사들의 중국입  
국을 억제해 달라는 협조공  
문을 보낸 상황에서 발표돼,  
국내교단들이 중국선교 정  
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게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텡  
주교는 성명서에서 "최근 해  
외교회들의 중국신학생들에  
대한 개인적 초청이 잦아지  
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활동이 중국교  
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지원  
과 세계교회의 교류증진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이루어  
지고 있으나 오히려 중국교  
회의 선교활동에 장애를 초  
래하고 있다"며 외국교회들  
의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교회협의회는 스스로  
교회를 세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교회의 신  
장을 위해 자질있는 신학생  
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해외교회들이 CCC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중국신학생들을  
해외에서 교육시키려는 것은  
"선교자치의 원칙"을 침해하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신학생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중국 안에서 그들  
이 추구하는 가치의 소중함  
을 가장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교회들  
에게 이 사실을 기억해 달라  
고 당부했다.  
(크리스찬신문 93.5.15)

\* 중국에 신학원 세운  
다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중국  
에 신학원을 건축한다. 지난  
6월 30일 한국기독교 교회협  
의회는 한국교회가 중국교회  
의 배려로 중국 내에 거주하  
고 있는 2백만 조선족이 한  
글로 신학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북  
기독교 신학원을 새로 건축  
해 조선인 목회자를 양성하  
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3.7.2)

\* 종교부서의 간부가  
교회업무를 간섭함

천풍 1월호의 보도에 따르  
면 중국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발전중에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곤란이 있  
다고 한다. 그 중에 어떤 지  
방의 교회와 정부의 비정상  
적 관계는 비교적 어려운 문  
제이다. 예를 들어

1. 종교간부가 교회의 인  
사문제를 관장한다. 어떤 지

역의 종교간부는 삼자에국조직의 책임자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조직의 책임자를 지정하기까지 한다. 어떤 신학졸업생은 종교부서 간부의 경제문제를 들먹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이 년 간 이 지역의 교회업무를 볼 수 없게 되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었다.

2. 간부가 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로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례를 베풀려면 반드시 먼저 종교부서에 비준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 번 신청한 후에도 답변을 받지 못하여 임의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으로 「자유전도」라는 죄를 덮어썼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의 교회업무 토론회를 종교부서의 간부가 주관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간부는 교회 자양기업의 인사나 경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있다. 모 지역의 간부는, 그들은 기업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자양기업에 자녀들을 끼어넣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자양기업의 소득은 교회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종교간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天風>1993. 1)

\* 아모이 종교계 인사가 일제히 돈벌이에 뛰어들다.

개혁개방의 풍조하에서 아모이의 관원과 종교계의 인

사들도 손을 맞잡고 돈벌이에 나서게 되었다. 아모이의 종교사무국원 黃振輝(譯音)는 아모이의 만삼천 명의 신도 중 1/3이 해외와 관계가 있다고 토로하였다. 작년에 각 종교조직은 이런 해외관계로 인하여 인민폐 2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하문에서 가장 큰 사원인 보타사는 벌써부터 齋菜館(식물을 소재로 한 음식점)을 개장하여 작년에는 인민폐로 14만 원을 벌었다. 교회도 이에 뒤질세라, 정부가 돌려준 교회 재산이 이미 공장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현지 교회는 이를 개조해 1천㎡ 상가로 쓸 계산을 하는 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黃씨는 또 종교국은 줄곧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을 격려하고 도와왔으며 아울러 종교인사가 아모이의 경제특구에 물질적, 정신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3. 2. 18)

### \* 교회의 신문발행 신청이 거절됨

<爭鳴>지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 1월중에 서안과 천진기독교교회는 따로따로 현지정부에 비정치적 성격의 주간과 격일간의 신문을 내겠다고 신청을 하였다. 2월초에 통지된 것에 의하면 잠시 작

업을 미루고 상부의 통지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천진시의 정부의 답변에 의하면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하며, 아마 제8차全人代의 후의 정책하달 때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서는 또 설기간에 중공선전부장 丁關根이 종교단체 좌담회를 열었는데 그는 신문이나 잡지는 개혁이 되어야 하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인민이 좋아하는 것, 개혁개방과 당의 중심업무에 유리한 것이라야만 창간과 복간신청이 가능하며, 종교는 그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더욱 관용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냥 말해 보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 (<爭鳴>1993. 3)



## 한중관계

### \* 中國, 한국역사 왜곡 여전

중국의 중학교과서 등 역사서적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을 美軍政이 꾸며낸 「추태극」으로 설명하고 한국 전쟁은 미제국주의와 남한이 결탁해 일으킨 「北侵」으로 기술하는 등 한국역사를 크게 왜곡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각종 역사서적에 친편 일률적으로 등장하는 이같은 대한역사왜곡은 지난해 정식 수교를 통해 선린우호의 새 시대를 연 한중양국관계의 장래는 물론 중국의 올바른 후세역사교육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일보 93.6.16)

### \* 서울~天津~吉林市 항공노선 최근 개통

서울~天津~吉林市를 잇는 국제항공노선이 최근 개통되어, 중국 국제항공공사

가 이 노선에 보잉 737-300 기를 취항시켜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가 전했다. 吉林市는 吉林省 내에서 省都인 長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18만 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 있으며 약 85%가 한국에 친척을 두고 있다.

(동아일보 93.6.15)

### \* 韓-中 환경협력 협정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산성비 피해를 막기 위해 韓-中 환경협력협정체결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이 협정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체계를 구축, 대기오염에 관한 정보 및 자료교환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공동계획수립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93.6.25)

### \* 中國, 한국에 經協 차관 요청

中國이 최근 對개도국지원 장기저리차관인 경제협력 기금(EDCF) 3억 2천여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30일 외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中國이 우리 나라에 EDCF지원을 요청해 온 것은 이번의 처음이며 8일경 中國측 관계자가 訪韓, 정부관계자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이 요청한 프로젝트는 < 山東省지역 광케이블 공사 < 자동차부품생산공장 < 도로 및 항만공사 < 吉林省 비행장공사 < 威海 조선소 단독설치 < 吉林省 제약공장 생산시설 등 모두 20개에 달한다.

(동아일보 93.7.1)

## 정 치

### \* 1997년 반환 앞두고 현지 政·財界 실력자들 「연줄맺기」 일환

「太子黨」이라 불리는 中國고위관리 자녀들이 홍콩경제계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5월말 최고실력자 鄧小平의 2男인 鄧質方

은 스스로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부동산 회사 上海市房地產實業有限公司가 상해에 건설한 호화주택 63채를 홍콩부자들에게 팔기 위해 홍콩에 모습을 나타냈다. 한 채에 약 15억 원이나 하는 이 초호화판 집들은 큰 인기

를 모으며 중국에 연고지를 마련하려는 홍콩부자들에게 팔렸다고 한다. 이처럼 홍콩에 진출한 태자당의 공통점은 홍콩의 政·財界 실력자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중국의 실력자들과 미리

연계를 맺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자당이 홍콩경제계 진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일보 93.6.17)

### \* 인민일보 개혁심화 강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당내 일부 간부들이 계획경제 방식의 낡은 사상과 노선으로 복귀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개혁의 심화를 강조함으로써 경제개혁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홍콩의 <밍바오>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2일자 사설에서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처리방식을 다시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경제성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개혁을 심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밍바오>는 <인민일보>의 이런 사설은 중국이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과열을 억제하거나 중앙통제 방식에 의해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은 다시 쓰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겨레신문 93.6.4)

### \* 中國 대규모 농민 폭동

中國 四川省 仁壽縣에서 1만5천 명 이상이 가담한 대규모 농민폭동이 발생, 당국의 대처에 따라서는 제2의 天安門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홍콩의 信報를 인용, 보도했다. 信壽費縣에서는 지난 1월 당국이 水利費·도보보수비 명목으로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자 화가 난 농민들이 마을사무소를 에워싸고 소동을 일으켰다. 그 후 중앙정부가 지난 5월 27일 人民日報를 통해 34개 항목에 걸친 분담금의 취소를 발표하게 되자 농민들은 이미 지불했던 금액을 반환해 주도록 요구하며 다시 소동을 벌였다. (국민일보 93.6.11)

### \* 티베트 示威 계속

티베트 수도 라사에서 중국의 통치 및 불가양등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24일에 발생한 데 이어 25일에도 소규모의 시위가 계속됐다고 현지 관광객들이 전했다. 관광객들은 이날 점심때쯤 수십명의 티베트인들이 라사시내 조강寺 인근에 몰려들어 항의구호를 외쳤으며, 곧이어 출동한 경찰들은 질 지붕 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 시위군중들을 해산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하루 전 이곳에서 티베트인 약 1천5백-2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짐에 따라 이날 市전역에 경찰 및 군인을 배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시내 곳곳에서 삼엄한 순찰활동을 벌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24일 발생한 시위가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했으나 이날 오후 들어 승려, 어린이 등이 시위대에 가세해 군중들이 크게 불어나면서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93.5.28)

### \* 江澤民, 鄧후계자 굳혀

중국국가주석겸 공산당 총서기 江澤民은 「中國特色的 社會主義」에 관한 黨최고 이론가의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최고지도자 鄧小平의 후계자 지위를 굳히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紙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통한 北京소식통을 인용, 黨中央軍事委 주석으로 軍통수권도 갖고 있는 江澤民은 수하에 30여 명의 저명 사회과학자들과 일류 이론가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근 中國特色的 시장경제개혁의 성격과 방향 및 모순점 해결 등에 관한 논문을 저술토록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3.6.29)

※ 江擇民 “黨결속 실패면 혼란”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당이 당원들의 결속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혼돈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江 주석은 5일 北京에서 열린 한 모

입에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 이론을 갖지 못하고 그같은 이론에 바탕을 둔 강력한 정신적 중심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黨과 나라 인민 모두가 어떻게 될지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의 이같은 돌연한 경고는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날로 약화되고 경제적 무질서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93.7.7)

## 경 제

※ 對中 「최혜국」 1년 연장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 지위를 1년 간 연장기로 결정했다고 행정부 관리들이 24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은 그러나 이 기간 이후 MFN갱신 여부는 중국의 인권개선, 무역장벽해소 및 과거 정권들에 대한 무기 판매중단 등 그간의 미국측 요구에 부응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93.5.26)

※ “中國 세계 3위 경제大國”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로 마련한 국가별 평가 체계로 산정한 결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강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그동안 국가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해 온 국내총생산(GDP)의 산정시 각국의 공식환율을 적용, 달러화로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각국의 통화를 국내시장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 이를 기준으로 GDP를 산정했다. 이같은 GDP 산정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중국의 지난해 GDP는 과거 산정방식을 적용한 4천3백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1조 6천6백억 달러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백70 달러에서 1천4백50 달러로 증가, 세계 10위권에서 美國과 일본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고 IMF 대변인은 밝혔다. (한국, 국민일보 93.5.21)

※ 중국 人民幣 폭등세

중국 국무원 常務부총리 겸 中國人民銀行 朱鎔基가 5일 全國金融公作會議에서 금융 질서 회복과 경제과열 치유

를 위한 강경한 금융통화정책을 하달한 가운데 지난 6월초부터 급락세를 지속해 온 人民幣(元貨)가 이날 中國전국의 외환조절센터에서 급등,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홍콩 신문들이 6일 보도했다.

大公報와 文匯報 등은 朱鎔基가 인민은행장을 겸직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난 2일 나왔을때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인민폐는 5일 北京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외환조절 시장과 암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으며 北京의 경우 2일의 폐장시세가 달러당 10.520원에서 10.30元으로 약 5%나 올랐으며 上海의 경우는 2일의 달러당 10.344元에서 무려 7%나 오른 9.557元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3.7.7)

## 사 회

### \* 中國 어린이 不法 行爲 激增

개방바람과 더불어 私경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요즘 중국사회는 개혁의 부작용을 앓고 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돈을 벌고자 학교를 뛰쳐나와 工廠門을 두드리고 있다. 미성년자 고용은 물론 불법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대열에 公기업들도 끼여 있어 정부가 이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적은 보수에 불만을 가져 직장을 그만두는 中장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93. 5. 3)

### \* 中, 가뭄-홍수 두달째 17개省 극심 한 피해

중국대륙의 중심부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淮河의 이북에는 심각한 가뭄이, 淮河的 이남 지방에는 홍수가 7일 현재로 2개월째 계속돼 대륙

전역 17개省에서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관영 英字紙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淮河이북을 강타하고 있는 가뭄과 淮河的 이남을 휩쓸고 있는 홍수는 7일 현재까지 모두 1백 37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淮河이북에서는 모두 1천만 명의 가뭄 이재민이 발생했고, 淮河的 이남의 홍수로 모두 31만 9천 ha의 농경지가 유실됐다.  
(조선일보 93. 6. 8)

### \* 낮은봉급 등 불만 중 國 軍 저항반발

中國의 시장 개혁이 본격화 되면서 公산당에 대한 충성심 약화와 함께 軍의 정치적 저항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관영 언론들은 軍 지도자들은 온나라를 휩쓸고 있는 황금만능풍조를 저지하는데 자신들이 무기력함을 호소하면서 당의 정치학습

강화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軍의 사기는 낮은 봉급수준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3. 7. 7)

### \* 中國 收賂 은행간부 死刑

대대적인 부패척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中國에서 뇌물을 받은 한 은행 고위간부와 채무관료 등 8명이 재판에 회부돼 은행간부는 사형, 다른 7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신문들이 1일 보도했다. 北京고등법원은 왕키셴 중국 인민건설은행 북경지점장에 대해 2년간 집행이 유예된 사형을 선고하고 북경 용안 채권회사 대표 주렌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현지 신문들이 전했다.  
(동아일보 93. 7. 2)

최신 첨단과  
낙후가 공존  
하고 있는  
최근 중국의  
거리 - 고급  
승용차와  
우마차가 같이  
거리를 달린다.



# 중국 을 위한 중보기도

1. 최근 중국 섬서성에서는 구양현의 한 교회가 공안원의 습격을 받아 3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심한 구타와 고문 그리고 감금을 당한 끝에, 그 중 22세의 형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안국은 90여 명의 신도를 감금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교회 핍박의 생생한 증거로서, 중국 밖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 되고 있다.

\* 주님께서 섬서성을 비롯한 전중국에서 일고 있는 교회핍박 상황을 돌아보아 주셔서, 교회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정금같이 단련되어 성장하게 해 주시고, 또 중공당국의 종교법과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해 주셔서 중국에 신앙의 완전한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도록.

3.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빈부의 양극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의 중산층은 초호화 주택과 차를 다루어 구입하고, 자녀들을 서민들이 상상도 못할 비싼 교육비를 물어가며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가 하면, 농촌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 도시로 도시로 무작정 몰려들어 유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님께서 급속히 변화하는 중국사회가 빈부의 양극 현상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도록.

2. 작년 6월에 있었던 운남소수민족 신학원의 교수구타 사건으로 인해 이 신학원이 문을 닫고 있어 그나마 목자가 부족한 운남성 성도와 교회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 주님께서 운남성 소수민족 신학원이 분열을 떨쳐버리고 화합하여 다시 새롭게 개원할 수 있게 도와시고, 이 일로 운남지역의 복음화와 성장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시길.

4. 중국에는 최근 부패척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만큼 공공연한 부패와 뇌물수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 주님께서 중국인의 마음 속에 돈만 사랑하는 맘몬의 신이 자리잡기 전에 복음이 중국사회에 능력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길을 열어 주시도록.

5. 한국 내에는 지금도 많은 한족과 조선족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 주님께서 「사랑의 집」을 비롯한 중국선교단체와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이들에게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특히 이 일에 헌신한 사역자들이 속속 생겨나기를.

6. 중국선교에 있어 한국교회와 국내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교회와의 협력은 너무도 절실한 실정이다.

\*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게 주셔서, 서로 섬기면서 중국선교에 동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8. 중국 선교에 헌신코자 하는 많은 일꾼들이 속속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한다.

\* 주님께서 이들 헌신자들이 구체적 인 준비 과정을 잘 밟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주신 은사대로 중국선교를 위한 국내외 사역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10. 중국어문선교회의 『중국선교훈련원』등과 같은 중국선교 훈련 기관이 국내에 여러 곳 개설되어 일꾼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주님께서 각 선교 훈련원이 내실있게 운영 되게 하시고, 강의와 훈련 내용이 선교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도록 도우시길.

7. 중국어문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 대륙선교회, 호프 등을 비롯한 여러 중국전문 선교단체들의 역할은 각기 그 특수성 따라 그 사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주님께서 그 세우신 뜻대로 각 선교단체들이 충성되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숨어 말없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그리고 건강과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도록.

9.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대학생들의 헌신은 너무나도 귀한 선교자산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방송대, 서울대, 인하대, 이화여대, 선교신학원 등에 중국어성경반이 개설되어 꾸준한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 주님께서 각 대학에 계속적으로 중국어성경반이 창립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의 지속적인 동력을 얻도록 도우시길.



#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대상

- 교회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 단기선교사
- 중국선교에 부름 받은 예비선교사
- 중국선교 관심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평신도

##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능력이 배양됩니다.
-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 훈련기간

- 1993.9.4~1994.1.29 (5개월)
-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93.9.4(토) 오후 3시

\* 제 4기 훈련은 94년 3월에 개강합니다.

접수마감: 93년 8월 20일 (참가인원이 제한되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장 소: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 선교중국어 집중코스(총20주)

- 목 표: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전문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하도록 합니다.
- 교육내용: 전반(10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 중국어찬양  
후반(10주) 중국어성경, 耶○的好消息, 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信仰讀本, 我的第一本聖經
- 일 시 : 매주 월, 화, 목, 금, 토(토요일은 “중국선교전문강좌”) 월(오후1~5시20분) 화, 목, 금(오전8시~12시20분) 토(오후3시~6시20분)
- 본과정의 훈련생은 “중국선교전문강좌”를 동시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선교현지답사 실시(94년 2월중)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2주간 실시합니다.
- ▶ 계속훈련코스  
“선교중국어 집중코스” 수료자를 위하여 중급이상 수준의 과정으로 개설합니다.
  - 교육 내용 : 전반(10주)/후반(10주) 중국어성경강독, 회화, 중국어설교
  - 일 시 : 매주 화, 금 오후2시~5시

## 중국선교전문강좌(총16주)

- 목 표: 중국선교상황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지적응능력을 배양합니다.
- 일 시: 매주 토 오후3시~6시20분
- 강의주제 및 강사

중국문화개관 (이홍자, 전전북대 교수)      중국고대사상 (김학주, 서울대 교수)  
 중국역사 (허인, 서원대 교수)              동양사상의 이해 (조경현, 철학박사)  
 중국공산주의 연구 (이영순, 선교신학교 교수)  
 중국의 소수민족 이해 (의건미, 중국문화 전문가)  
 중국교회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김바울, 총신대 교수)  
 중국선교사례연구 (김형석, 총신대 교수)  
 중국소수민족선교의 실제 (이해돈, 예수전도단 간사 )  
 중국기독교사 (우심화, ACTS 교수)  
 타종교이해 (권형기, ACTS 교수)  
 최근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주지호, 극동방송 중국어담당)  
 해외에서의 중국선교 (노봉린, ACTS 교수)  
 중국교회토착화와 지도자 연구 (유전명, 중국복음선교회 대표)  
 전문인선교 (민요셉, HOPE 총무)  
 세계선교상황 (문상철, KRIM 연구실장)  
 세계화교와 중국선교 (미정)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방지일,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타문화권의 생활과 적응 (미정)  
 국내에서의 중국선교 (이요한, 중국어문선교회 총무)  
 중국조선족선교의 사례 (박애린, 중국어문선교회 선교사)

### ▶ 중국어 기초과정

“중국선교전문강좌” 수강자 중에서 희망자를 위해 별도로 개설합니다.

- 교육내용: 전반(10주)/후반(10주) 초급중국어, 기초회화
- 일 시: 매주 화, 토 오후7시~9시30분

## 등 록

- 방 법: 등록접수비(3만원)를 온라인이나 지로로 납부하고 소정서류를 제출함.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서 면접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84-01-0283-625 (수취인: 중국을 주께로)  
 \* 지로 계좌: 7602362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훈련원 소정양식) 1통, 이력서 1통, 출석교회 당회장 혹은 선교단체 대표의 추천서 1통, 신앙간증서(200자 원고지 5~6매) 1부
- 참 가 비: 선교중국어 집중코스 전·후반 각 32만원(중국선교전문강좌 포함)  
 중국선교전문강좌      총16주 10만원  
 계속훈련코스          전·후반 각 12만원  
 중국어 기초과정      전·후반 각 8만원  
 \* 대학생, 신학생 및 중국어문선교회 회원은 10% 할인  
 \* 선교현지답사 경비는 별도

### •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3호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장희락 총무)  
 TEL: 533-5497, FAX: 599-2786

## 일 령

### ▶ 정기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8월 30일(월) 오후 7시, 방배동 본부에서, 영등포중화교회의 유소충 목사를 모시고 <중국선교의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 594-8038

### ▶ 이슬람선교세미나

HOPE(전문인협력기구)는 <이슬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Frontiers 선교사 patrick Lai 외 3명의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93. 8. 5(목) - 8. 7(토)까지이며, 장소는 사랑의교회 소망관 4층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 02)533-6057, 593-4881

### ▶ 훈련생 모집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의 제3기 훈련생을 8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국내외의 중국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선교중국어에 중점을 두고 중국선교의 집중적 이해와 현장탐사 및 실습이 곁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 533-5497

### ▶ 수료 예비

지난 7월 24일(토),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에서는 제2기 졸업식을 거행, 8명의 중국선교의 정병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5개월의 고된 집중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 앞으로 국내외 중국선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 철야기도회

93. 8. 17(화) 오후 10:30 - 02:00 까지 중국어문선교회의 정기철야기도회가 방배동 본부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중국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 594-8038

### ▶ 국내외 중국선교

이제까지 중국어문선교회는 방한중국교포를 위한 <사랑의 집>과 인천에 입항하는 중국배의 선원선교를 위해 <인천지부>를 설치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을 향한 선교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요즈음은 각 공단지역마다 중국인 노무자들이 소리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관심을 돌리는 교회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중국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거니와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 중국인에게 선교하는 일 또한 너무도 귀중하고 효과적인 중국선교라 믿습니다. 비록 언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선교단체가 잘 협력할 수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관심있는 분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 594-8038, 533-5497

### ▶ 후원자 모집

모퉁이돌선교회는 <희망의 소리 - The Voice of Hope> 방송사를 설립. 성경을 갖지 못한 중국남방, 만주, 몽골, 북한, 사할린 지역 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 아래 기도하며 후원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헌금과 기도 및 자원봉사로 후원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 796-8846, Fax. 792-7567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보시려면,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본회(594-8038)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 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대금은 1부당 2,000원 이며(1년 구독은 10,000원), 보내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송금 후원 안내

지로번호 : 7602362

### 편집후기

\* 지루한 장마도 이제 끝물.  
벌써부터 뉘푸른 가을 하늘을 꿈꾼다면 너무 성급한 생각일까?  
결실의 가을을 위하여 자, 모두 힘을 냅시다! -(혜)

\* 이번호에는 중국 흑룡강성의 종교 관련법을 입수해 실었다. 좀 딱딱하더라도 중국 선교에 실제적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정독을 권하면서. -(석)

## 중국을 주께로

발행·편집인: 박성주  
편집장: 한영혜  
편집주간: 석은혜  
편집디자인: 정광숙  
컴퓨터: 민하은

중국을 주께로

1993. 7·8월호 통권23호

발행일: 1993년 7월 20일

발행처: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402호)

TEL. 594-8038, 533-5497

FAX.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성광교회세계

선교센터308호)

TEL.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TEL. 873-2570

##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사업:** 선교지망자들을 위한 중국어학훈련,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연구사업:**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 개최, 선교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립 및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번역 및 출판사업:** 각종 선교책자 번역, 회지 발간 및 각종 관계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 **방한중국교포사업:**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분은

1.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러 손과 발로 펼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 섬기는 사람들

고문/방지일 목사. 대표/박성주 장로

총무/이요한. 행정실/장희락

사무. 재정간사/임화명. 기획간사/전하리

교육부간사/김성곤, 김성순. 교육부협력간사/안거안

연구부간사/석은혜. 연구부협력간사/배다니엘

출판부간사/한영혜. 훈련원간사/장희락, 김바울

선교부간사/정선영, 김만섭. 선교부협력간사/이모세

인천지부간사/주미애. 인천지부협력간사/김성수

사랑의 집 간사/이순덕, 서세은.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 윤승일.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 예보람(해외)

정선영(본부), 강성광(홍콩)

협력선교사/주성지, 고대위

중국선교훈련원 제3기훈련생모집  
M.T.I. for CHINA (93.9.4 개강)

● 예비선교사님,  
선교지에 들어오기 전에  
꼭 언어훈련을 받고 오세요! ●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능력이 배양됩니다.
-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찬양, 전도, 설교, 회화 등)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훈련기간

- 1993.9.4~1994.1.29(5개월)
- 개강에배 및 오리엔테이션 : 93.9.4(토) 오후 3시

선교중국어집중코스(총20주)

- 목 표 :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전도, 찬양 등 선교전문중국어를 습득케 함.
- 일 시 : 매주 월, 화, 목, 금, 토(토요일은 “중국선교전문강좌”)
- ▶ 선교현지답사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4년 2월중에 실시함.

중국선교전문강좌(총16주)

- 목 표 : 중국선교상황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지적응능력을 배양코자 함.
- 일 시 : 매주 토 오후 3시~6시 20분
- ▶ 중국어 기초과정  
“중국선교전문강좌” 수강자 중에서 희망자를 위해 별도로 개설함

\* 자세한 내용은 본지 88~89 쪽을 참고하십시오.

중국선교훈련원(원장: 박진국장로)은 선교언어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中國語文宣教會

제4기 훈련은 94년 3월에 개강합니다.

#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흥겨우



###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연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 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 가족 연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시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 세계적인 고객은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bso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ine, British Petroleum,의 1,500여개의 정수장과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는 한라송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의

###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용
- 대형요양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기차역 양식장용
- 선박용 • 주류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정수 시스템의 결성체라고 볼 수 있음.
- 타회사 제품의 주장을 불허하며
- 열성과 쾌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됨.

###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고발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수입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02)582-4505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주) 카타딘코리아  
KATADYN KOREA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9-9  
이래빌딩(카타딘사옥)  
Tel (02)582-4505(내)